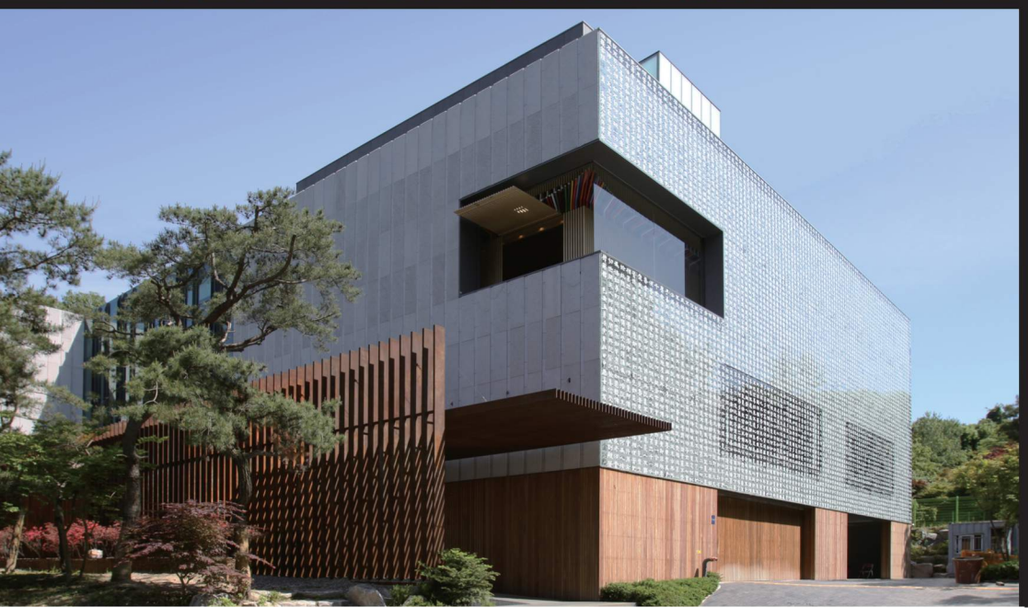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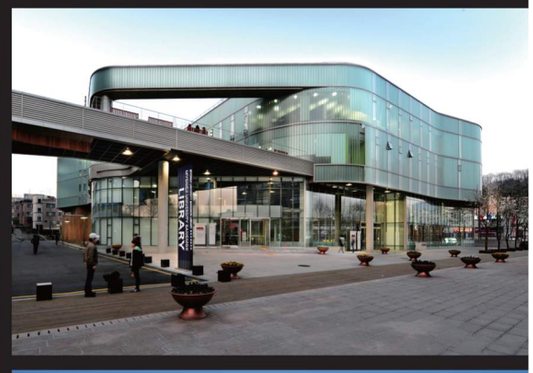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s 건축사





특별기고 2010 건축의 날에 부치는 글
칼럼 「건축사」 500호를 통해 얻는 교훈
시론 건축계의 양극화 현실과 해소 방안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추!
특집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8
http://www.kira.or.kr
201010

2010 건축의 날에 부치는 글

–건축단체들의 총연합과 건축문화청 설립을 촉구하며

Posting Word for The Day of Architecture 2010

- Press Architectural Associations for Grand Union of and Establishment of Architecture Institute

최영집 / Choi, Young-jip, KIRA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 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대표
  국토해양부 중앙심의위원
  국가보훈처 심의위원

건축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릇이자 터전입니다. 의식주의 하나로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건축의 날」은 그러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국민에게 계몽하며 건축문화 창달의 미래를 위해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만든 날입니다.

올해는 6 · 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폐허위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 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공급과 개발의 숨 가쁜 질주였습니다.

오늘 식전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오셔서 2017년에 117개국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UIA, 즉 세계건축사연맹의 총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선포식과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서울시와 건축계가 합심하여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 한국건축의 수준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의 건축문화가 살아있고, 지난 60년간 건축인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업적이 있기에 가능한 도전일 것입니다.

이 사회의 어느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기념하는 날도 참 많아졌습니다. 건설의 날도 있고 건설기술인의 날도 있습니다. 철도의 날도 있고 도로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날은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인 그런 날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날을 통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건축의 형이상학적 가치의 존중입니다. 그러한 바탕 속에서 건축문화를 빛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건축은 많은 관련 분야의 기획과 조정, 각종 전문분야 기술과 산업의 종합, 건설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설경영, 유지 관리와 방재 기술 등이 통합, 융합되어야 할 방대한 영역이지만 그 중심에서는 시대적 요구조건과 모든 정보를 조합 조정하여 창의적이고 철학적이며 예술적이고도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건축의 작곡과 지휘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시설계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건축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고 건축기술과 건설산업은 모두 건축을 완성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과정이며 수단과 방법입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건축내외 공간과 형태나 기능을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엮어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건축의 중심 가치입니다.

건축의 날은 건축의 모든 요소와 모든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중심가치인 건축의 소프트웨어를 보호 육성해나가자는 결의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문화시대 녹색성장시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며 국가브랜드를 살리고 국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건축단체들의 총연합을 주창합니다.
건축단체총연합회, 약칭 건총의 설립을 통해 우선 연합활동을 시작하고
건축문화창달 방안을 논의해 나갑시다.
정부에서도 주택의 공급과 도시의 개발에 급급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 주택, 기술, 건설, 경관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문화시대에 걸맞는 '건축문화청'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의 수출이 많은 한국산업의 수출로 연결됩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작가의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건설수출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작곡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 위대한 작곡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건축 작가인 Architect, 즉 건축사의 교육은 건축공학교육과 달리 대학 5년제 이상의 강도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법과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사법에 의해 국가고시를 실시, 건축사를 선발하여 국가 공인건축가의 길을 가게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많은 악기는 오로지 합주를 하기위해 있습니다. 고도의 기량으로 연주하는 주자들은 작곡가와 지휘자를 만나야 빛을 발휘하고 최고의 감동을 청중에게 줄 수 있습니다. 건축외적인 관련분야, 건축내적인 전문분야 모두 건축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고 건축은 작곡과 지휘가 있어야만 완성됩니다.

지난 60년, 건축의 공급시대에 많은 전문분야들이 발전되고 분화되어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양해졌고 각 영역의 중요도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중심 가치는 빈사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아니 실종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급시대 기술과 산업지원에 급급했고 진정한 가치를 보호 육성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주관하는 역할과 협력하는 역할, 생산하는 역할의 위계가 엉망으로 되었습니다. 합심하여 광의의 건축을 키우기보다는 점점 더 분화되며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넓게 인간의 철학적이고 예술적이며 물질적인 생활을 디자인하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며 건축의 세계를 키워나갑시다. 우선 건축계부터 분화되어가기만 하는 건축의 전문분야가 연합하여 힘을 합치고 유사분야는 효율적으로 통합해 나갑시다. 그리고 서로 가르지 말고 빼지 말고 나누지 말며, 더하고 곱하며 키워 나갑시다. 각 분야는 전문화를 발전시키되 건축으로 합칠 때는 더 크게 융합시켜 건축의 창조적 가치를 높입시다. 중심 가치를 존중해주는 풍토를 건축계 스스로 조성합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건축단체들의 총연합을 주창합니다. 건축단체총연합회, 약칭 건총의 설립을 통해 우선 연합활동을 시작하고 건축문화창달 방안을 논의해 나갑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올해 발기하고 내년에 창립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주택의 공급과 도시의 개발에 급급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 주택, 기술, 건설, 경관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문화시대에 걸맞는 '건축문화청'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기본법 정신과도 상통할 것이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도 직결될 것입니다. 관도 변하고 민도 변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문화시대 통일 선진국에 걸맞는 건축문화를 이룩해 나갑시다.

건축을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내외 귀빈여러분!
건축문화는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화합과 단결로서만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건축문화 창달은 국가의 목표이자 국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건축인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맡은바 역할을 기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 만세! 건축 만세! 건축인 만세! 건축의 날 만세!

‘건축사’ 500호를 통해 얻는 교훈

Learning a good lesson from Magazine ‘Architect’ 500th edition

건축사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게재된 칼럼 · 기고 · 좌담 등을 프린트하여 읽고, 법제도 · 정체성과 윤리 · 현안 · 미래와 비전 등으로 분류하며, 꼭지마다 요점을 만들어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시작한 전철 속 독서는 하차 역을 한 두 곳 지나치기 일쑤였지만 그 양은 줄질 않았다. 지난 추석 연휴 9일간 큰댁에 차례도 거르고 서재에서 ‘방콕’하면서 끝내려했으나 역부족, 나머지 4년분을 오늘에야 끝을 맺었다. 70일간, 요즈음 300쪽짜리 소설책 20권 분량에 해당하는 750꼭지에 담긴 45년의 역사를 독파한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것은 창간 44년의 건축사지가 금년 12월로 500호를 맞게 됨에 따라, 특집의 일환으로 건축사협회와 건축사의 정체성과 윤리문제 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세든 선배에게 부탁했으나 예산 상 적게 책정된 원고료 때문에 거절당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 맡게 된 것은, ‘45년 전 선배들은 어떻게 협회를 이끌었고 어떤 문제로 고민했으며 어떻게 현안을 해결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는 예상보다 더욱 강렬하게 필자에게 다가왔다. 글을 접하면서 감복하고 아쉬워 무릎을 치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 70일은 행복과 경이의 시간이었기에 원고청탁을 거절한 선배에게 감사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역시 공자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다. 청탁이든 기고든 선배들의 글 속에는 현안의 해법과 예지 그리고 미래비전이 살아 있었다.

정인국 교수는 74년도에 이미 “향후 한국건축계는 조만간 업무량이 건축사의 수적 증가를 따르지 못하여 자연도태 현상이 크게 일어날 것”을 염려하며 “컴퓨터 디자인 등을 정신 차려 받아들이고 자신의 개성을 감안한 건축철학을 정립하는데 온힘을 경주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건축사들이 일의 폭주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이러한 경종을 울린 혜안이 부럽고, 이를 보고 몇 명이나 미래에 대비했는지 궁금하다.

김무언 건축사는 올해 부결된 통합문제를 이미 20년 전에 “동일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심지어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정부에 관철되지 않고 있다.”면서 용기를 갖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통합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97년 한창진, 2000년의 김한근, 조성룡 등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강기세 건축사는 94년도에 공제조합을 설립을 주창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이를 위한 토론회를 주창하고 있다. 결국 몇몇 회원의 극렬한 반대 주장에 부결된 것이 내년에 발족된다. 건축사의 노후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지난 45년을 건축사지를 읽으며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사실과, 사익을 위한 아집이나 편견 등이 얼마나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벌써부터 내년도 본협회장 출마자들이 6명씩이나 거론되고 있다.

공자님은 “옛것을 복습하여 새것을 아는 이라면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고 하였다.

나는 말한다. “건축사지를 복습하여 새것을 아는 이라면 대한건축사회의 회장이 될 만하다(溫故而知新 可以爲會長矣).” 圖

장양순 / Chang, Yang-soon, KIRA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약력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본지 및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 한서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건축계의 양극화 현실과 해소 방안

Comprehend of Polarization and Settlement for Architecture Field

회원들을 만날 때 덕담으로 건네던 “얼마나 바쁘십니까?” 란 인사말을 한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없다. 이젠 “사무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조차 면구스러울 정도로, 현실은 어둡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를 더욱 절망의 늪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사무소의 양극화 현상이다. 현재 설계사무소의 인원 구성을 보면 10인 미만 사무소가 87% 10인 이상 사무소 13%이며, 100인 이상은 1.3%이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은 1조2,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4조원의 30.5%에 달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구적 노력이 부족하고, 설계 중심의 한정된 제공 서비스로 인한 국제경쟁력 부족 등 내부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법과 제도적인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한국 주택의 56%가 아파트이고, 재건축 · 재개발방식 중 99%가 아파트이며, 연간 총 주택공급량의 73%가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공급정책이 얼마나 획일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통계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수주할 수 있는 업무량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정부의 경제정책 조절수단으로 이용하는 획일적인 신도시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위주의 고밀도 아파트 공급 정책을 중단하고, 저층 저밀도의 타운하우스, 소규모 블럭형 정비사업,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개별사업단위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변 환경과 연계되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창출하는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형형 설계를 적용한 친환경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건축설계 · 건축재료 ·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매뉴얼을 만들고, 지원방안까지도 마련하여 친환경주택의 수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경기는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신인건축사 참여기회를 확보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실적위주로 평가하는 PQ제도에 의한 발주보다 건축사 개인별 실적평가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 업체 수가 적은 전기 엔지니어링회사와 통합발주하게 함으로써 과다용역비를 지불해야하는 부작용도 개선시켜야 한다. 일괄입찰이나 BTL방식의 발주도 입찰금액이나 경제성과 유지관리 위주의 평가에서 설계의 내용 배점이 우선되도록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개선에는 입찰이나 설계경기에서 로비 때문에 디자인 실력이 있는 소규모 사무소나 신인 건축사들이 좌절하는 불공정한 게임을 우리 건축계 스스로 자정해나감으로써 실력으로 인정받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즉 공존의 법칙이 통하는 직업윤리가 정립 되어야만 비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공사에서 건축주와 무자격자의 합의에 의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책임시공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형건설업면허제도를 신설하여 건축사의 업역을 확장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의 설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건축물생애관리제도’를 건축사의 업무로 구체화시켜 시행하는 관련법을 정부입법(안)으로 건의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건축사업역의 다변화를 가져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 업자에게 혹시나 하여 공짜 계획이나 해주고, 덤핑으로 인한 낮은 보수로 인하여 우수인력이 나가며, 설계의 질은 낮아지고, 경영난은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다. 圖

김영수 / Kim,Young-soo, KIRA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약력
- 서울산업대, 연세대, 명지대 (공학박사)
- 중앙대 대학원, 광운대 법무 대학원 강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 서울시, 인천시 건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기술사, C.V.S, C.M.P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Dynamic Green Wonju with New Hopes

원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그러나 도심 속에는 여전히 딱딱하고 건조한 건물이 많아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도시로서의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어떻게 보완하며 극복하느냐가 우리 원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그 동안 원주는 기업 ·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비약적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도로와 건물을 짓는데 우선한 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격자형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고 말았다. 이는 시민의 정서와 만족을 고려치 않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낸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원주시는 지난 7월 민선 5기 시작과 동시에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 중심의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도로를 내고, 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대의 건축물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을 고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점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아 도시 곳곳에 같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창조하고 사람과 도시환경이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개발의 논리에 의해 보급된 천편일률적인 격자형의 아파트와 건축물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인 이상 도시의 모습을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앞으로 건축물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도심 속의 여백의 미를 살림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숨 쉬는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이 오히려 서울에 비해 도심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원주시는 시민의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심공원의 푸른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10분이면 어느 방향으로든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르게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도심 속에 푸른 공원을 만들고 건물대신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관과 체육 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도심 속 푸른 공원 조성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시민중심의 행복하고 푸른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오늘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현대인들은 언제나 걷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이윤과 개발에 눈먼 채 여기까지 달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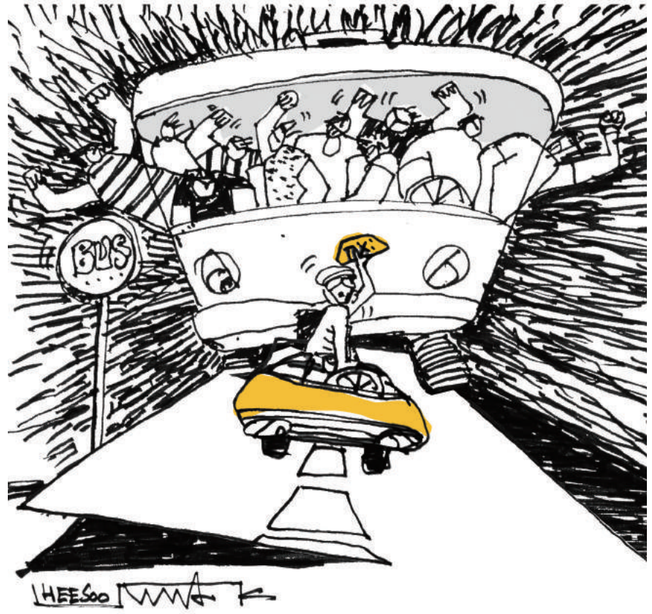
이제는 원주시장 한 사람의 소망이 아닌 31만 모든 시민의 바람을 하나로 모아 원주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높여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 건축계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 선후배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도심 속에 건조했던 건축물들이 시민들의 꿈과 함께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공원 도시 원주"로 변모해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

원창묵 / Won, Chang-mug
원주시장

약력
- 건축사
- 수도권전철 추진위원장
- 세명대학교 겸임교수
-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회장



도시풍경 I

버스가 뒤뚱대며 좁은 언덕을 오른다
돈벌이를 기다리는 택시가 언덕에 기대 서있다
비키라는 작은키의 버스기사님은 경적을 울리고 난리다
덩치큰 택시기사님은 천하태평이다
버스승객들은 입을 모아 택시기사를 비난한다
한 몸집의 거인처럼 변해버린 이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다
어깨동무라도 하며 아침이슬이라도 부를 기세다
슬금슬금 택시기사가 꼬리를 움직인다
버스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자축한다
혁명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 버리고 이들은 다시 남이 된다
길이 식탁인 택시기사에게 밥 먹을 자리는 없다

곽희수 / Kawk, Hee-soo

약력
- 홍익대학교 졸업
- 이뎀도시건축 대표
- 홍익대학교 튜터
-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건축만평은 회원들의 열린 마당입니다. 이 난은 우리 협회의 공식적 취지와 들수 있으며, 다양하고 자유스런 주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쉬운 만화라는 장르를 통한 회원 여러분의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평의 내용은 대상을 평하거나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제로 줄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일을 왜 하나 생각하게 되지요. 태생적으로 CM은 건축주에 딱 붙어서 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감리는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있으면서 또 공공을 생각하면서 일하게 되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가치와도 상관있는 이야기죠.

● **유 :**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당 예배 때 가셨나요? 그리고 이 공사의 관련인들 중 순위에서 합당한 대우를 하던가요?

● **이 :** 네 가서 감사패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만일 그것마저 못 받으면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처음에 교회에서 CM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조건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디자인은 제가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일들이 서로 막 겹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본당 인테리어의 도면을 저희가 그렸어요. 당초 현상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 있는 인테리어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콘셉트를 다 만들었는데, 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해서 저희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진행해 버렸던 것이죠. 아쉬움이 큽니다. 자연채광 같은 것이 다 날라 갔어요. 천창도 있었는데…

● **유 :** 그럼 조명이 없으면, 깜깜하겠네요…

● **이 :**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발언권이 센 부서가 음향부서예요. 이들은 영상이 잘 보이도록 무조건 자연채광을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말이 없으면 자연채광은 전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음향설계를 할 수 있어서, 직접 소프트웨어 돌려서 음향설계를 하였고, 실제로 음향 시공에도 관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업체에서 제안한 데로 하더군요.**

● **박 :** 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들은 언제나 교회가 수지맞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업체가 수지맞는 방안으로 제안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 그냥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 **이 :** 제가 본당 내부에 대해서는 시각적 뿐만 아니라 음향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게 실현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 **박 :** 전체적으로 잘 유지되었지만, 인테리어, 본당의 내부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시겠어요.

● **이 :** 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교회의 내부가 되어버렸어요.

● **유 :** 그밖에 제안하신 것들이 더 있나요?

● **이 :**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자 시스템을 정하는 데 장의자와 개별의자 사이에서 좌석 수 때문에 여러 번의 제안이 있었어요. 저는 개별의자가 좋다고 했고, 교회는 장의자를 선호했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맨 마지막에 교회에서 개별의자로 바꾸었어요.

● **유 :** 앞으로도 계속 교회건축을 하시겠죠?

● **이 :** 그러고 싶지만 제가 **수주를 위한 그런 것을 참 못해요.**

● **유 :** 교회건축세미나 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산 동안교회

● **이 :** 가서 보니, 교회건축의 방향을 약간 오도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 **박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건축을 상업화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더군요. 교회라는 게 정성껏 해야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요.

● **이 :**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자주 이야기 하는 게, **좋은 건축으로 교회를 만들면, 형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길 하고 있어요. 종탑 없어도 되고, 건축자체가 좋으면 된다고…**

● **박 :** 오늘 교회에 관한 이야길 많이 했는데요. 이 건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건축에서 '이래야한다' 혹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유 :** 종교적인 내용도 괜찮습니다.

● **이 :** 교회건축 자체가 일반건물하고 기능이란 측면에선 대동소이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곳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서면, 무언가 느낌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역에 들어설 때부터, 또 성전에 들어섰을 때 그 공간과 분위기를 통하여 신의 임재라던가 신과의 소통, 이런 게 느껴지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느낌이 달라야죠. 결국 교회의 건물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건물을 통하여 일반건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경험을 심어주자는 것이죠. 교회건축은 Ikon(성화)과 같이 성서의 내용을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적인 것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친환경이란 화두가 유행인데, 교회가 바로 친환경을 앞장서서 이뤄야 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공기, 물과 주변풍경 등 자연환경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거기에 무언가 자꾸 덧대어서 자연환경을 가리면, 창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설계 소묘 중에 "교회의 인테리어는 내가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포도원교회의 내벽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채광이 달라져서 벽의 색깔이 바뀌고 음영이 바뀌면서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건축은 배경이고 화폭이 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빛과 시간으로 채우는데 이것이 교회의 인테리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 오늘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축 부탁드립니다.

● **유 :** 말씀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좋은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김효만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1955년 7월 인천 생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8년)

어린 시절에 화가가 되려고 하다

원래 초등학교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장래 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일찍부터 집안의 강한 반대로 접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장래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미술대학을 향한 진학은 안되는 것이니 특별히 다른 분야로의 지향성이 없었습니다. 미술대학 진학이 가로막힌 상태라 더더욱 방향을 못 잡고 있던 터에 진학을 결정해야 되는 긴박한 시점에서 누구한테 정보를 듣기를 건축설계의 분야가 미술과 공학의 중간지대인 학문일 수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건축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에 들어간 후에는 예상외로 아주 만족스런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건축과 일학년 때부터 의장실습이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림도 그리고 조형실습을 하는 등 흥미로운 강의를 접하고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안도했습니다.

공간에서 몇 년 근무한 후 입대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78년에 공간사에 바로 입사했습니다. 이범재 교수님이 당시 단국대학에 출강중일 때인데, 그래서 공간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범재 교수님이 팀장인 설계팀에 잠깐 실습을 한 경험을 통해서 공간사의 문화를 잠깐 맛보았었지요.

당시가 김수근 선생의 공간사는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공간사에서 수행하던 프로젝트는 류춘수 실장님이 맡아서 하던 이란 알보즈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일도 다수 할 정도였고, 그래서인지 입사시험의 난이도도 대단했습니다.

영어회화, 스케치, 면접의 삼단계 시험을 치르고 공간에 입문하다

공간사에는 당시 남산에 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 고문이시면서 공간의 고문도 맡아하시던 분이 입사지원자의 영어회화 시험까지 치르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이를 나누어주고 한 시간 안에 공간사 주변의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그려내는 스케치 시험도 즉석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는 자신의 작품을 내보이며 김수근 선생과의 어려운 면담까지 통과해야 되는 것이었지요. 어쨌든 합격하여 공간에 들어갔고 삼년 정도 있다가 입대를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다시 공간에 들어가다

1981년도에 바로 군대 갔다가 와서는 아람건축(김기석 선생님)에 다니다가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신 후인 84년에 공간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수근 선생 사후의 당시 공간사를 운영했던 장세양, 승효상 선생들과의 친분이 있어서 입사요청을 받고 다시 들어가게 된 거지요.

장세양 선생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아주 돈독했고 공간에 들어가서도 장선생 팀에서 항상 같이 의기투합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후 89년도에는 결국 퇴사하고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근 선생 사후의 공간사의 불안정으로 개업을 하게 되다

개업하게 된 동기는, 당시의 공간은 제가 볼 때 건축 외적인 문제에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시 실무를 맡은 실장이었으나 그런 내부의 경영상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불편했고 미래적 비전 또한 불투명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또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고 싶은 욕구 또한 충만해있을 때라 과감하게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일은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근선생의 공간사에서 재직 중 담당했던 일들은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미술관,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 뒤편에 있는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C빌딩, 창원대림오토바이공장, 한샘기숙사, 강남에 있는 현재는 차병원건물인 회빈레스토랑,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건너편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상록회관) 등 입니다.

개업 후의 일들은 대부분이 주택이고, 많은 상을 수상하다

거의 대부분이 개인주택들입니다. 임거당(97년, 2009WA건축상, 9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학익재(95년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홍대 앞에 있는 남강빌딩, 호유재, 와선재(2004 경기도건축문화상 은상), 혜로헌(2005 아카시아 금상, 2009WA건축상, 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등입니다. WA건축상은 월드아키텍처 커뮤니티(world architecture community)에서 주는 건축 상입니다.

그밖에 조린헌(2002아카시아상 금상,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자안재(2010WA건축상 수상), 녹성헌(2003년), 천안 TP-1(토템폴패션사옥 1990년 초), 파주 출판단지 안의 포토피아(2009년) 등입니다.

가평에 준공된 도헌이 해외잡지에 유명세를 타다

2009년에 준공된 가평 북한강변에 지어진 도헌은 세르지오라는 이태리 사진작가로부터 촬영 요청이 들어 와서 유럽의 유명한 미디어인 월페이퍼, 네덜란드의 마르크, 타센 출판사의 아키텍처 나우(architecture now) 시리즈에 게재되었고 이태리 인테리어 잡지인 인테르니에도 게재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인터넷 웹진인 「archdaily.com」에서 도헌에 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더니 다른 여러 작품들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동안 해왔던 저의 모든 작품이 게재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작년과 금년에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 자료를 보내느라 기분좋게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도헌의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들 눈에 띄었나 봅니다.

기성건축사나 학생들이나 서구건축의 발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적인 또는 독창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한국 건축사회에서 지향해야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서로 좀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건축을 하면서
서로 다른 건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건축이지만 오히려 교묘하게 조화되는
그런 건축들이 즐비해지는 건축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무소 직원은 두 명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는 직원이 거의 두 명 정도만 있는 상태로 작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계약을 한 후에야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저희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정도로 운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두 명 직원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늘 고맙다

직원이 두 명밖에 없기에 조금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 년에 대략 3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면 부담 없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건축에 대한 열정 또한 충만하여 다른 불만 없이 사무소를 위해 애써주니 저는 그것 이상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말고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사무소의 강점이자 약점이라면 본의 아니게 주택전문 사무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건축 중의 일부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사실 건축사라면 모든 유형의 건축을 다양하게 전개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택설계의 좋은 점은 인테리어부터 가구까지 밀도 높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점이다

건축설계 말고 다른 일은 꿈도 꾸어보지 않은 이유는, 간혹 시공까지 손을 대었던 선배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아 시공에는 전혀 관계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택설계가 좋은 점은 인테리어까지 디자인해야하는 밀도 높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구까지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의 프로젝트이지요. 주택설계의 재미와 성취도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후계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가끔 저를 찾아주는 건축주들 때문에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일의 수주활동에 관해서는, 저는 늘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일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 저를 찾아주는 건축주들은 고마운 귀인들이고, 그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저의 생활신조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때 그때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나만의 건축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꿈이다

제게 굳이 비전을 말하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저만의 건축세계를 이룩하고 싶습니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건축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무소는 갑자기 세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기에 바쁘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는 규모에 비해 여러 개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갑자기 많아져서 지난달까지 세 개의 프로젝트가 끝나서 현재 세 개 다 감리중입니다.

세 개 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개의 프로젝트를 설계중입니다. 주택을 겸한 복합문화시설인데, 한강변에 연면적 600평정도의 규모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평창동에 200평정도 되는 주택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2000년대에 토지공사가 주관한 분당 주택박람회의 단지에 당시 유명건축가들이 지은 주택들 중에 한 단독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겠다는 건축주가 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작업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대지위치는 마음에 드는데 기존 건물의 배치와 외관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더군요.

나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는 교과서적인 수순이다

저의 건축설계프로세스는 교과서적인 것 같습니다. 대지의 조건과 건축주의 요구조건 두 가지를 만족시킨 후 의도적인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공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최종결과물로 나오는 내부공간의 내용들이 만들어낸 틀에, 제가 의도하는 저의 지적 감수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설계가 끝나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스케치로 설계를 진행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스케치로 한다

직원이 적어 맨 파워가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간에 있을 때 습득한 것이 프리핸드 스케치인데, 스케치를 통해서 공간과 형태를 유추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굳이 모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점도 있습니다.

공간에 근무할 시절 저는 새카만 신입사원이고 당시 고참 팀장이셨던 류춘수 선배님이 강한 터치의 스케치와 컬러링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눈여겨보고 신입사원 때부터 제가 따라서 흉내를 많이 내 봤고, 또한 스케치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입체적인 공간의 상황을 전부 몸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모형조차 만들 필요가 없었고 스케치만으로 구체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상상을 해왔던 것이지요.

건축주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물론 스케치된 이미지로 설명이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본 계획이 완성돼주기 때문에 사실, 시간비용 유지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가 끝난 후에 전시를 위한 모형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공간은 작은 면적이라도 풍요로운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저는 김수근 건축에서 공간의 변화와 다양성을 주시했기 때문에 제가 설계하는 건축물들은 작은 면적이라도 풍요로운 공간의 변화를 제공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공간의 사건들을 수록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조형성도 내부공간을 닮은것이 되고, 법적제한, 최대한의 볼륨 등의 조건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건축가의 감성을 부여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저의 건축에 대한 외국 사이트에서의 외국 건축사 및 학생들의 비판적 반응은 '복잡하다', '혼돈(chaos)' 등이고, 좋은 평가는 '독특하다', '이상하지만 아름답다' 등이며 '특별한 공간이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고 싶지는 않다' 등 다양합니다.

한국건축계는 동질화된 유사한 작품들의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현재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현재의 건축계상황은… 한국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동질화된 유사성 건축의 지루한 행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또한 다른 쪽에서는 언제부턴가 특별한 방향 없이 세계적인 트렌드만 이리저리 좇아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책해봅니다.

서구건축의 영향이 한국에 너무 깊이 침투한 것 같다

서구의 유럽의 건축이 한국에도 너무 깊이 침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한국건축가들의 작품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반면에 서구건축을 숭상하지 않고 자족적으로 성장해온 일본건축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로서, 현재 세계 건축문화를 리드하는 많은 건축가들을 배출해낸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건축가들이 남의 흉내를 내지 않는 자기만의 건축세계를 만들어 내기를 희망한다

당연하지만 미래의 한국 젊은 건축가들이 지나치게 서구유럽의 건축가들만 추종하고 그들에게 경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건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로 자신만의 건축을 지어내야한다고 봅니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자기만의 건축세계를 만드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되는 그런 풍토조성을 건축계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자기만의 건축세계의 발견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늘 반성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학 갔다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며, 그 경험을 자신의 꿈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성건축사나 학생들이나 서구건축의 발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적인 또는 독창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한국 건축사회에서 지향해야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건축을 인정하는 건축계 풍토가 되었으면 하고 건축계 단체의 통합을 바란다

이젠 서로 좀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건축을 하면서 서로 다른 건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건축이지만 오히려 교묘하게 조화되는 그런 건축들이 즐비해지는 건축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결국 삼단체가 관여하는 피카(FIKA)가 아직도 통합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계의 원로들이 상호 힘을 교류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앞당겨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건축계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내게 오는 건축주들은 나의 스타일을 알고 오는 분들이다

건축주들은 저의 건축적 취향에 일단 동의한 사람들이 찾아오겠지요.

저의 건축은 일정한 스타일이 있을 것이니 건축주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또 그래서 의뢰해오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점이 작업 과정에서 건축주와의 의견소통의 문제에서 아주 편한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가 의뢰 전에 건축사쇼핑을 하고 옵니다.

설계가 끝난 후 즈음 대부분의 건축주는 누구누구한테 갔다 왔었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운이 좋게도 건축주의 근본적인 반론이 없이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거의 전부를 제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의 한계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에 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어떤 한계를 규정할 수밖에 없지만, 저의 건축적 의도가 건축주들에 의해 가감 없이 살려진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다오 안도에게 오는 건축주는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나 안도의 건축공간철학에 100%동의한 사람들만이 찾아오듯이 말이지요. 사무소 유지 측면에서 충분한 설계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작품을 수행하는 전 과정의 표준적 경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후기

김효만 건축사는 이야기 말미에 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번에 그를 만난 것이 딱 두 번째이고 그 기간이 이십년은 족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그가 어떤 건축계행사에서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두 명의 직원을 두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양한 공간이 보석처럼 숨어있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 그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말도 된다. 아무튼 현재 한국건축계의 상황이 모든 건축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판에 현재 바쁘다고 하는 말에서 불경기를 헤쳐 나가려는 건축인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싶다.

최동규 편찬위원장

공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출범!

건축사 공제사업 추진과정

95. 01. 05 건축사법 일부개정으로 건축사 공제사업 근거 법률 마련

08. 10. 14 건축사 공제사업 일부 승인
☞ 손해배상공제업무 우선시행 승인

09. 03. 1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건축사협회 공제사업 범위 확대

09. 11. 03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의 건 원안가결
(회원의 동의를 받아 해당회원의 폐업위로금 중 100만원 범위내 출자금 대여)

10. 02. 25 2010년도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 정관 개정의 건 원안가결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조직을 협회와 별도로 구성 운영하며, 명칭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으로 함)

10. 07. 23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법률 제10392호)
– 2011. 1. 24 시행

공제사업의 법적근거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제2항 및 제3항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31조의2(사업) 제1항 제7호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선포식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2 (금) 경기도 일산 KINTEX, 그랜드볼룸
- 내 용 : 2010년 전국건축사대회 일정에서 진행 예정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음)

건축사공제조합이란?

협회 정관 제5조(사업)에 근거하여 협회내 사업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사업의 운영주체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이라 한다.

주요업무

- 손해배상공제 – 조합원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보장
- 보증 – 조합원이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대신 지급할 금액을 담보
- 융자 – 사업수행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
- 이외에 조합원의 경영 개선, 건축제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Tel. 02-3415-6812, 6876~8

이용안내

– 건축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본 5좌(1좌당 10만원)만 출자 하면 가입가능

–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건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손해배상공제증서의 발급이 가능

– 출자지분액의 50배수까지 보증금을 기준으로 이행 및 지급보증서 발급

– 저리로 출자금의 70%까지 운영자금 대출

–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 반환

– 출자에 대한 배당금 또는 지분 상승을 통한 수익 기대

– 공제증서 및 보증서의 발급수수료는 유관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대동소이하지만, 초기 출자금의 부담이 적다는 잇점이 있고, 타 보증업체 및 보험사에 비하여 업무절차가 간소하고, 수수료 또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competition

설계경기 | Competition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청사

Changwon District Court Jinju Branch

당선작 / 함인선 정회원 • 전영성 정회원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자연경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6,018m²
건축면적 3,016.06m²
연 면 적 13,817.67m²
건 폐 율 18.83%
용 적 률 79.3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발 주 처 법원행정처
설계담당 김동수, 김대영, 임주섭, 홍양표, 국석래, 강지호, 윤영준, 김희철

법원은 시간의 변화속에서도 사회정의 실현의 구심점으로 각인되어 왔다. 이는 변화하는 시간의 물결속에서도 동시대인과 소통하려는 유연한 법정신이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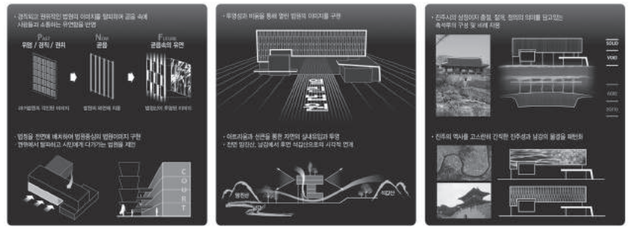
이러한 법원 고유의 법정신을 담기위해 다음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첫째, 경직되고 권위적인 법원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정함의 상징으로서 법원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연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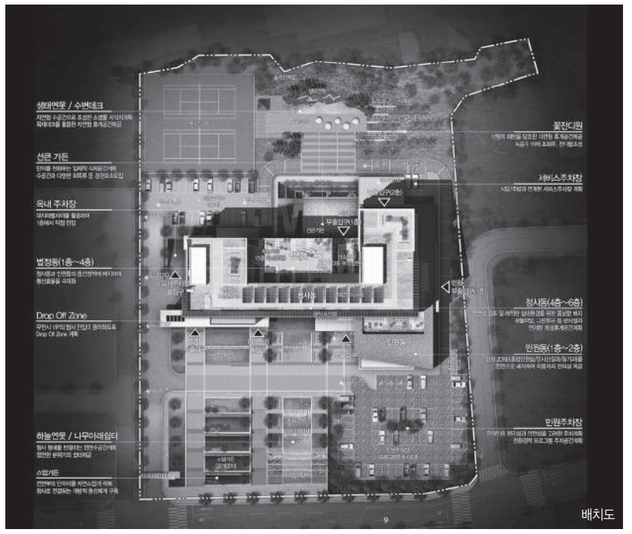
둘째, 법정공간을 법원의 중심공간으로 계획, 법원의 정체성을 담는 것.

셋째, 충절과 절개의 도시인 진주의 지역적 정서를 담은 진주만의 법원을 구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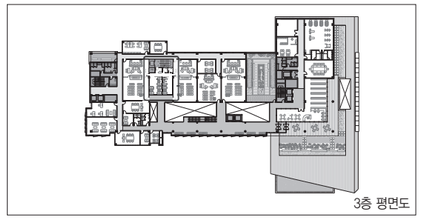
이러한 주안점 아래 현재 공공건축물 건립의 화두인 에너지 및 친환경 문제들을 접목하여, 외형적으로도 내형적으로도 법원다운 건축물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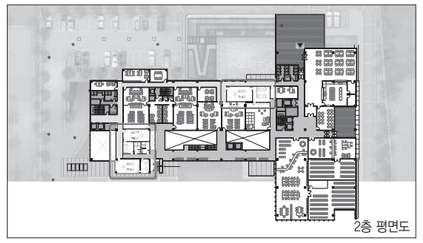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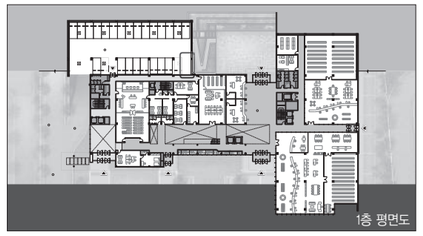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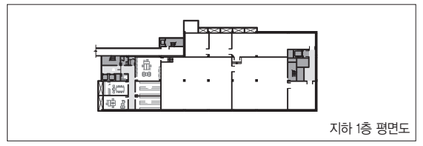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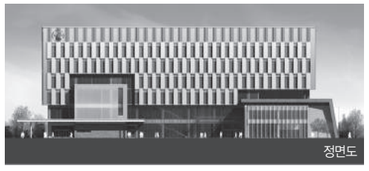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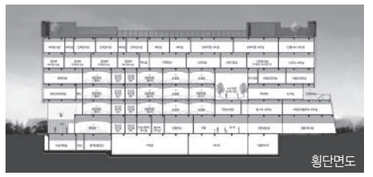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청사

Changwon District Court Jinju Branch

우수작 / 정영균 정회원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신안동 417~43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 (법원청사, 민원실)
대지면적 16,018.00㎡
건축면적 2,911.81㎡
연 면 적 13,818.17㎡
건 폐 율 21.07%
용 적 률 81.2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설계총괄 금두연, 심경주
설계담당 홍석구, 류무열, 정용주, 서영대, 이상헌, 김은주, 이종원, 이주한, 김은영

프로젝트 배경

기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시설노후화 및 조직의 증원에 따라 진주시 신안동의 별도부지에 2012년 준공을 목표하여 추진되는 건축사업이다.

향후 증원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청사와 복지후생시설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법원 청사의 건축을 요구하였다. 본 사이트에 나란히 붙어있는 검찰청은 이미 올초에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당선되었다. 발주처는 부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한 현대적 이미지의 법원청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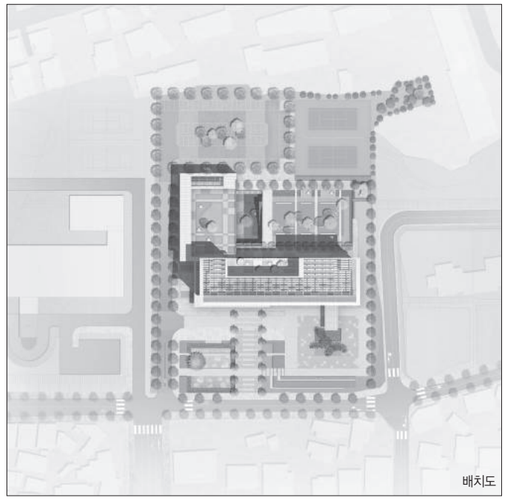
디자인 컨셉

법원청사 계획은 최근에 법정구역이 가능한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계획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유도하였다.

배치계획에서 민원동선 뿐 아니라 법정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주 과제였으며 법정을 전면 저층부에 민원시설과 동일한 위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입면계획에서는 공공청사에서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성능이 확보되도록 창호면적 50%미만으로 계획했으며, 전면의 상징성과 개방성을 위해 계획한 유리커튼 월은 남측의 특성을 살려 수평 루버를 설치하여 일사부하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새롭게 계획될 진주지원 청사는 충절과 교육,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는 진주지역의 정서화 특성을 현대적으로 잘 수용하여, 진주시의 새로운 도시, 문화적 랜드마크로서 작용할 것이다.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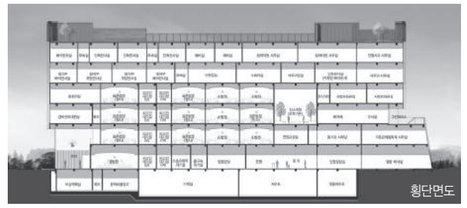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청사

Changwon District Court Jinju Branch

가 작 / 이관표 정회원 • 문영학 정회원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6,018㎡
건축면적 3,128.22㎡
연 면 적 13,822.90㎡
건 폐 율 19.42%
용 적 률 86.29%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설계총괄 이영창
설계담당 김선덕, 김용우, 이대길, 강정진, 이동근, 한미화, 이주영, 정호철

계획개념

역사가 숨쉬는 천년의 고도인 진주에, 정의와 올바름를 향해 나아감으로서 국민과 소통하여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곧은 정신을 표상하는 법원을 구현한다.

신뢰를 넘어 존경받는 법원지원청사

진.의.정 (進義亭)

진(進)_자연을 담다.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위해 나아가는 법원

의(義)_시민에게 다가서다.

시민에게 친근한 Mass로 인지성 확보/민사 집약배치를 통한 One-stop 시스템 구현

정(亭)_정의를 이루다.

법정 전면배치계획으로 열린법정 구성 /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신뢰성 상징

계획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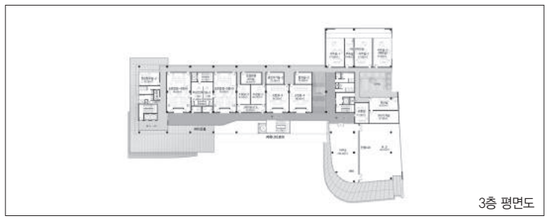
– 자연을 담는 청사로 친환경의 업무공간의 확보 및 나아가는 법원의 당당함 표출
– 청사동입면의 수직패턴을 통해 대나무의 곧은 정신을 모티브로 법원의 신뢰성 구현
– 정의를 이루는 법정동으로 법정의 전면배치로 열린 법원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상징
–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동으로 의암을 상징하는 조형성으로 지역적 정체성 확보/곡선의 친근한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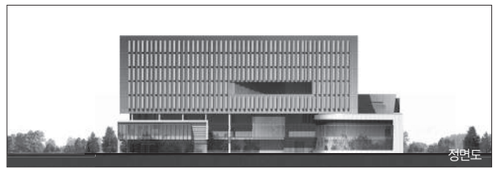
배치계획 및 외부공간계획

부지 내 지하연암층과 진입시 레벨차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배치영역을 설정하였으며, 법정 전면배치를 통해 민원접근성 향상 및 법원의 상징성과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민원존은 법정존과 기능적 분리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직원주차장과 구분하여 민원주차장을 배치하였다.
법정 전면의 열린광장은 기존 법원이 가지고 있던 권위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법원으로서 공공성을 높였으며, 후면마당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확보 및 연속성을 고려한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였다.

Step 1. 자리잡기
전면광장의 확보와 대지 후면의 연암층을 고려한 효율적 배치계획
Step 2. 볼륨의 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법정동/ 청사동/ 민원동의 볼륨 계획
Step 3. 프로그램 조닝
법정 전면배치를 통한 민원접근성 향상 및 상징성 및 정면성 확보
Step 4. 연결하기
녹지축과 통경축의 확보를 통해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친환경 법원계획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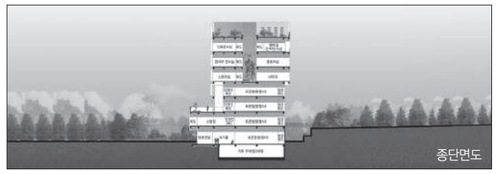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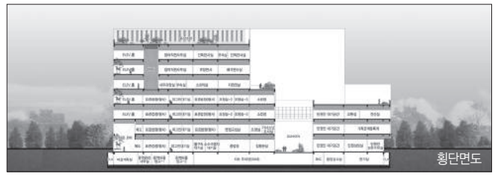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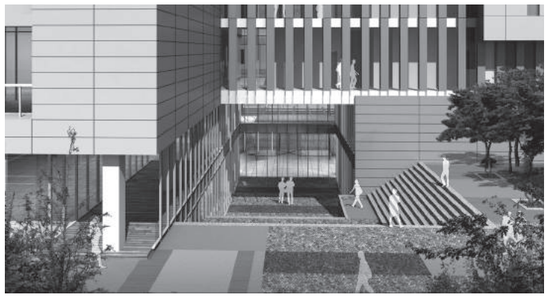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좌측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연재 SERIAL

Special Material

독일 연방국의 신(新)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 규정’ (HOAI 2009)은 한국의 ‘건축사 보수 및 대가기준’ 개선의 타산지석

The New ‘Fee Regulations for Architects & Engineers (HOAI 2009)’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A Stimulus To Revise the Present Architect’s Fee Regulations in Korea

대한건축사협회는 ‘시급한 제도개선 사안’ 중 ‘건축사 보수 및 대가기준’ 개선이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건축을 제외한 타 산업분야의 경우, 해당분야 진흥법 또는 기본법을 통하여 발주 및 지원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현재의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으로 건축사들을 위한 참고 사항은 될지언정 공공발주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대가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근년 독일연방국의 건축실무계의 최대 관심사는 2009년 8월 18일부터 유효한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HOAI 2009)’에 관한 토론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에 속한 독일 연방국의 경우,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은, 관습법적 전통을 따르는 영 · 미국 등의 관행과는 달리, 확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90% 이상의 공 · 사적 건축계약이 이 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사 보수 및 대가 기준 개선의 요구가 지대한 현 시점에 독일연방국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을 심도 있게 조명함은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목 차

1. 독일 연방국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HOAI)’의 변천
   The Development of HOAI in Germany

2. 6차 개정 규정의 주요 개선 사항들
   The Structure of the 6th Revision of HOAI

필자 : 이선구, 현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by Prof. Dr. Lee, Sunkoo

이선구 교수는 베를린 공과대학교(TU Berlin) 건축대학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을 공부한 후 베를린 자유대학교 문과대학(FU Berlin) 신축설계, Moda/Saudi Arabia 단지설계, 베를린시 Humboldt 시립병원 신축설계 등에 건축사로서 실무를 수행하였다.
1983년 이후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창과 교수로 활동하며 ‘신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모형 연구’(교육부 정책연구), ‘독일 통일과 베를린 개조연구’(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 등의 연구와 더불어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통일독일 현대건축(시그마프레스 2004), 20세기 건축의 경향들(발언 1998), 유럽의 도시와 건축(숭실대 출판부 1990) 등의 저서 외에 건축 교과과정 비교연구, 교육시설 개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위탁연구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기초조사 – 유럽 각국의 건축사 업무와 대가기준에 관하여–」(2009)는 아랫글의 배경연구이다.

1. 독일 연방국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HOAI)’의 변천 - The Development of HOAI in Germany -

지난여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는 ‘시급한 제도개선 사안’들 중 첫 번째로 “건축사 보수 및 대가 기준은 민간의 경우 20년 전의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원하는 납품내용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대가는 선진국의 절반 남짓하다. 현재의 건축사 업계는 전멸 일보직전이다. (건축사들의) 최소한 생존의 걱정은 없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1] 고 절규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건축 설계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설계의 업무범위와 도면의 장수, 설계의 정도에 따라 상 · 중 · 하로 등급을 나누어 대가를 계산하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있다.

위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 19조 3항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정함”으로, 실제 공공발주시 별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 이유인즉, 위 규정이 건축사 법에 따른 기준으로 건축사들을 위한 참고사항이 될지언정, 공공발주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대가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 발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회계예규를 따르며, 국가의 구매, 용역, 공사업무는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대가기준과 요율을 갖게 된다.

예컨대 엔지니어링 용역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대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건축분야는 불행이도 어떠한 산업분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용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지금까지 가장 비슷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건축설계 분야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 등을 위한 설계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함이 매우 부적절 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타 산업분야의 경우, 해당분야 진흥법 또는 기본법을 통하여 발주 및 지원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현재의 건축 기본법은 그 선언적 성격에 비하여 진흥법적 성격이 결여되어 일상적 현실 적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근년 독일연방국 건축실무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2009년 8월 18일부터 유효한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HOAI 2009)’을 둘러 싼 논의로서, 1977년 7월 1일 발효 이래 그간 다섯 차례 변경 후, 2009년 12월 28일까지 실시하여야하는 유럽 공동체(EU) ‘서비스 성취 지침’에 따라 최종 수정을 본 제 6차 개정 규정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11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300,000여 건축가들이 그들의 건축 업무에 수가규정을 적용하며, 4개국의 40,000여 건축가들이 자유로운 수가협상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 공동체 국가들의 상당수가 건축가 업무를 종종 협의의 설계에만 국한하는데 비하여 독일 건축가들은 분명하게 구분된 과업단계들에 따른 훨씬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은 수가규정이 없는 나라들의 경우 수가규정을 가진 나라들에 비하여 건물의 지속적인 유지 · 관리 및 수명에 관한한 보다 열악한 형편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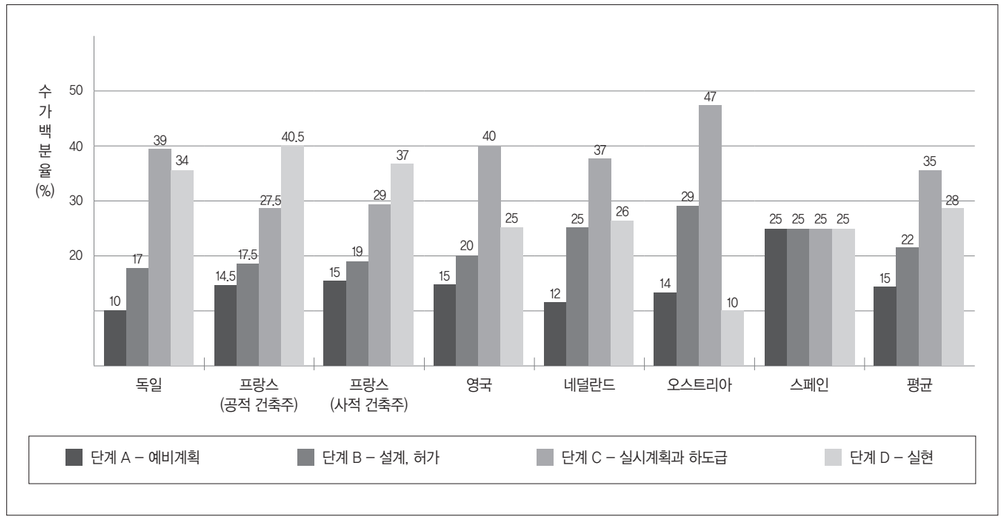
〈표. 1〉 유럽제국의 건축가 수

	건축가 수	연 도	인구(2001. 1. 1 현재)	인구/건축가(1人)
벨 기 에	9,869	1997	10,263,400	1,040
덴 마 크	6,295	1999	5,349,200	850
독 일	111,500	2002	82,259,500	738
핀 란 드	3,755	1997	5,181,100	1,380
프 랑 스	27,080	1998	59,039,700	2,180
영 국	31,300	1995	59,862,800	1,913
아 일 랜 드	2,000	1997	3,826,200	1,913
이 탈 리 아	79,000	1997	57,844,000	732
룩셈부르크	447	1997	441,300	987
네 덜 란 드	4,930	1995	15,987,100	3,243
오스트리아	2,824	1997	8,121,300	2,876
포 르 투 갈	8,839	1999	10,242,900	1,159
스 웨 덴	4,296	1997	8,882,800	2,068
스 페 인	30,098	1999	40,121,700	1,333
총 계	322,233		367,423,000	1,140

1) 전영철, “국가 건축정책의 우선적 과제”, 건축사 2010.08, No.496, p.10 참조

〈표. 2〉 업무 제단계 및 수가 배분 일람

국가 / 단계	독 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사적 건축주)	프랑스(공적 건축주)	스 페 인	영 국	네 덜 란 드
단계 A : 준비설계	1. 기초조사 3 2. 예비설계 7	1. 예비설계 13 7. 기술지도/감독 7	1. 준비조사(ESQ) 10 2.1 예비설계(APS) 5	1. 준비조사 5.0 2a. 예비설계 9.5	1. 준비조사 10 2. 예비설계 15	A. 감정/평가 B. 전략적 개요 C. 개략 제안 15	1. 예비설계 단계 12
단계 A 합계	10	14	15	14.5	25	10	12
단계 B : 설계 및 허가	3. 설계계획 11 4. 허가계획 6	2. 설계 17 3. 제출 10 7. 기술지도 2	2.2 상세예비설계(APD) 16 2.3 허가계획(DCP) 3	2b. 예비설계 II 17.5	3. 설계계획 25	D. 상세 제안 20	2. 최종설계 단계 20 3. 건물준비 단계 10
단계 B 합계	17	29	19	17.5	25	20	30
단계 C : 실시설계 및 하도급	5. 실시설계 25 6. 하도급 준비 10 7. 하도급시 협력 4	4. 실시설계 33 5. 견적근거 12 8. 사업지도 2	3. 실시설계(POG) 21 4.1 하도급준비(AMT) 4.2 하도급시 협력(AMT) 8	3. 프로젝트 설계 20.0 4. 하도급시 협력 7.5	4. 실시설계 25	E. 최종제안 20 F. 산출정보 G. 입찰문서 20	3. 건물준비 단계 30 4. 가격산출 및 계약단계 2
단계 C 합계	39	47	29	27.5	25	40	32
단계 D : 실현	8. 대상물감리(건축감리) 31 9. 대상물 관리 및 문서화 3	6. 예술적 지도 5 7. 기술적 지도 2 8. 사업적 지도 3	5.1 실시 지도(DET) 24 5.2 실시 관리(VISA) 8 6.1 인수 및 문서화(AOR) 6.2 문서화(AOR) 5	7. 건축감리/조절+Visa 34.5 9. 건물인수시 및 보증기간시 보조 6.0	5. 건축감독 6. 청산 및 대상물 인수 25	H. 입찰행위 J. 동원 K. 실제완성을 위한 건설 L. 실제완성후 25	5. 실현 및 작업완료 26
단계 D 합계	34	10	37	40.5	25	25	26



〈그림. 1〉 프로젝트 단계에 따른 수가의 비중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현황 보고서 2000 plus (Statusbericht 2000 plus Architekten / Ingenieure)

그 내용상 우리나라의 건축사 용역의 대가기준에 상응하는 독일연방국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이하 HOAI로 약칭)"은 유럽 대륙법(Civil Law)전통에 따라 – 한국 및 일본의 법체계와 건축법 등 – 관습법(Common Law)체계에 속한 영 · 미국들과 달리, 확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90% 이상의 공 · 사적(公 · 私的) 건축계약이 이 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요율규정(HOAI)"은,

–건축주에게 비용의 투명성과 건축가가 성취해야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일의 진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건축주 및 건축가 쌍방을 보호하며, 건축주는 적절한 비용에 상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겉으로 보아 무한경쟁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라는 논거와는 달리, 가격경쟁이 곧 건축물의 질 저하로 이끈다는 점.

–건축가들의 입장에서, 특히 사무소의 대부분인 중 · 소규모 사무소들의 경우, 가격 경쟁에 치중하는 대신, 건축의 질 향상과 창의성 계발을 통한 전반적인 건축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2009년 8월 18일부터 유효한 제 6차 개정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관료주의 폐해 없애기, 또 위탁자와 수탁자(受託者)간의 보다 자유로운 계약체결을 촉진코자 하고 있다.

계획 사무소들은 보다 경제적인 경영 산출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며 중산층 사무소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적 업무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수가규정을 유지하는 나라들과 그렇지 아니한 나라들 간에 유럽공동체 소속으로 인한 상호주의와 법적 부합성(符合性) 문제가 대두하기 마련이며, 독일연방 경제성(省)은 2001년 공공 위탁자(연방, 주, 지자체)와 연방 건축가 및 엔지니어 회의소 대표들의 동참 하에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현황보고서 2000 plus" 작성을 위임하였고, 이 보고서는 2003년 2월 5일 공공에 공개되어, 독일 수가 규정의 유럽공동체 법규와의 합치성, 법적 위임의 근거 및 규정의 6차 개정을 위한 토론의 마당을 마련하였다.

전문가 의견서는 독일의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화 한 수가규정은 유럽공동체 법과도 합치됨을 확인하였는데, 수가규정이 유럽 공동체 시장 내부의 초(超) 국경적인 수요증진에 필요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초국경적인 계획서비스 업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촉진하고 필요한 건축의 질(質)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한때 고려되었던 법적 구속력 있는 수가규정의 폐기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로 하여금 가격경쟁상의 이유를 들어 계획분야의 업무를 줄이게 되어, 건축의 질(質) 손실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공공의 이해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아니한 바, '건축법이 안전에 관한 법' 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제반 업무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건축)계획업무는 상호신뢰에 근거한 물자(物資)라고 할 수 있다. 상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건축물은 그 수명이 긴 구매라고 할 수 있어, 고가의 잘못 계획되어 축조된 건물로부터 소유자와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는 일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문제이다.

수가규정의 폐기는 부실하게 계획된 건물에 값비싸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소비자측 위험을 높일 것이 분명하다.

건축주 측을 위한 이해 돕기

오늘날 건축가/엔지니어의 제(諸)과업은 복잡하고 전문화되었다. 건축주들은 건축업무 위임시 종종 제시된 건축가의 과업과 수가의 적절성에 관하여 개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점은 무엇보다도 경험이 없는 건축주들에게 더더욱 그러하다. HOAI는 건축주에게 적절한 가격에 또 기대되는 양질(良質)의 성과물 일체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건축주는 자신의 이해를 대표하는 수탁자를 필요로 하고, 건축가/엔지니어는 HOAI를 통하여 과업수행에 충분한 경제적 근거를 마련하고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계획과 실행의 분리를 통하여, 계획이 시행건설사의 이해에 예속되는 대신, 비용과 질에 대한 대안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건축주에게 부여한다.

경제정책

1984. 11. 12일자 "엔지니어/건축가 제업무 규정에 관한 법 개정에 관한 법 (독일연방국 민법 법률집 BGBl p.1337)"을 통하여 입법자는 건축가 수가규정에 최저수가와 최고수가율을 확정하여 건축가/엔지니어의 제반 계획에 대한 충분한 수가가 공공의 이해에 기여한다고 확인하였다.

건축업계의 최저임금 엄수에 관한 확정을 통하여 연방정부는 저임금을 통한 덤핑경쟁이 건축의 질의 저하로 이끌게 될 것을 막고자 한다. 건축업계의 파멸을 가져올 가격경쟁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그간 도처에서 건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모형(Bauteam, Guaranteed Maximum Price, PreFair 등)이 등장하였다.

자유직 종사자와 직장

의료, 법(法)과 계획분야의 자유직 제업무는 헌법에 근거한 원칙적 의미를 가지며 자유직을 유지 또 강화함에 공공의 이익이 있고, 국가는 따라서 자유직 건축가와 엔지니어에게 계획업무를 위탁하였고, 이들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사회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만약 타 직종의 수가규정을 포함한 건축가 수가규정을 폐기한다면 이는 연방정부의 중산층 장려 정책에 대한 공공연

한 모순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자유직 종사자들 대부분이 중소규모 단위업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HOAI 제도가 폐기된다면, 200,000 – 250,000인을 고용하고 있는 ~ 35,000 건축사무소들은 80,000 – 100,000인 규모의 ~10,000 – 15,000 사무소로 줄어들 것이라고, 독일 연방 건축가 회의소는 추산하고 있다.

관료주의 축소

흔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적 규정의 폐지로 관료주의를 축소 할 수 있다는 논거와는 달리, 수가규정 철폐는 연방, 주(洲)와 지자체로 하여금 이들의 건축프로젝트의 예산확실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계감사원과 조율하여 독자적인 수가지침을 제정하려 할 것이다. 대기업 역시 이들의 계획업무를 위한 건축가/엔지니어의 수가를 균일하게 규정하고자 할 것이다.

계획공모에 참가한 개별 건축가/엔지니어에게 예비설계 비용전부를 지불함이 없이 공평하고 규정된 계획공모(설계공모)의 장점을 통하여 건축주가 다양한 건축가들로 부터의 대안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HOAI의 배경 변천 및 구성

HOAI는 1971.11.4의 엔지니어와 건축가 과업 규정에 관한법(연방 법령집 I, 1749)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입법자는 이 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개선하고, 높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코자 하는 목적에 기여코자 하였다.

법제정 당시 건축 및 토지비용의 갑작스런 상승이 임대료 상승의 원인으로 간주되어, 입법자는 엔지니어와 건축가 과업의 보수 규정 개정이 건축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간 1차 변경(1984. 7. 17 엔지니어 제(諸)과업 추가), 2차 변경(1985. 10. 6. 4조 2항 최저수가 규정 삽입), 3차 변경(1988. 3. 17 도시 계획적 과업에 대한 수가인상), 4차 변경(1990. 12. 13 1976/80년 이래 변경되지 아니한 수가표의 수가수준 인상 등), 5차 변경(2002. 1. 1 유로법에 따라 DM수가를 €로 변경)을 거쳐 제 6차 변경(2009. 8. 18 발효)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HOAI 제정/공포 당시 수가는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게 그들의 맡은바 과업에 대한 충분한 보수를 가능케 하였다.

건축가 및 엔지니어의 과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HOAI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들 과업에 대한 수가는 수가 규정의 틀 안에서만 약정되거나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HOAI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격법(Price Law)적 규정들은 유연성 있는 계약법(Contract Law)적 규정들을 제한한다.

수가는 HOAI에 따르면서도 자유로운 협상에 의지하는데, 법적 위임에 따라 최저 및 최고 수가가 정해진 이상, 계약 쌍방은 수가 차액 사이에서 수가 합의를 협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9개의 과업 단계

1. 기초조사
   계획을 통한 건축임무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조사
2. 예비계획
   계획임무 해결의 근본적 부분들의 수집
3. 설계계획(체계 및 통합계획)
   계획임무의 궁극적 해결 수집
4. 허가계획
   필요한 허가 또는 동의를 위한 안(案) 작업 및 제출
5. 실시계획
   실시에 충분한 계획해결의 작업 및 표현
6. 하도급 준비
   물량 조사 및 업무명세서 작성
7. 하도급 협력
   비용견적 및 하도급 협력
8. 대상물 감리(건축 감리)
   대상물 실현의 감독
9. 대상물 감리 및 문서화
   하자 제거 감독 및 전(全)결과물의 문서화

〈표.3〉 수가의 기본업무 평가/사정(査定) 비(%)

과업단계	건물	옥외시설	공간 형성 건조물 (실내건축물)
1	3	3	3
2	7	10	7
3	11	15	14
4	6	6	2
5	25	24	30
6	10	7	7
7	4	3	3
8	31	29	31
9	3	3	3
	100	100	100

건물, 공간구성 건조물(실내건축) 및 옥외시설(조경)에 관한 성과물들은 9개의 과업(課業)단계로 분류되고 매 단계의 과업들은 (기본)과업과 특수 과업으로 나뉜다.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제9회 이사회

2010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자격의 건, 2010 하반기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 2010 전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지원금 요청에 관한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자격에 관한 건,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지원금 요청에 관한 건이 논의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자격의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2010 하반기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
  –행사개최에 필요한 협찬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사업규모도 축소 ·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2010 전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
  –전체 예산을 3억원으로 하여 내실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차기 개최지 선정은 시도건축사회별로 유치희망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함.
- 제4호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지원금 요청에 관한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선임
  ▷공제사업 담당이사와 위원장, 3대권역별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함.
- 제2호의안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자격에 관한 건
  –조합원 자격을 협회 회원으로 한정하도록 공제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지원금 요청에 관한 건
  –예비비 500만원과 협찬금 중 500만원으로 하여 총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6회 회관관리위원회

제6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하자보수의 건
  –사무처에서 9월 3일 까지 회관하자보수관련 문서를 방수와 콘크리트 분야를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 할 것.
  –하자관리 전문변호사 선임시 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리스트와 하자 · 보수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작성할 것.
- 제2호 : 회관 대강당 등 임대계약 갱신

한 모순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자유직 종사자들 대부분이 중소규모 단위업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HOAI 제도가 폐기된다면, 200,000 – 250,000인을 고용하고 있는 ~ 35,000 건축사무소들은 80,000 – 100,000인 규모의 ~10,000 – 15,000 사무소로 줄어들 것이라고, 독일 연방 건축가 회의소는 추산하고 있다.

관료주의 축소

흔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적 규정의 폐지로 관료주의를 축소 할 수 있다는 논거와는 달리, 수가규정 철폐는 연방, 주(洲)와 지자체로 하여금 이들의 건축프로젝트의 예산확실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계감사원과 조율하여 독자적인 수가지침을 제정하려 할 것이다. 대기업 역시 이들의 계획업무를 위한 건축가/엔지니어의 수가를 균일하게 규정하고자 할 것이다.

계획공모에 참가한 개별 건축가/엔지니어에게 예비설계 비용전부를 지불함이 없이 공평하고 규정된 계획공모(설계공모)의 장점을 통하여 건축주가 다양한 건축가들로 부터의 대안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HOAI의 배경 변천 및 구성

HOAI는 1971.11.4의 엔지니어와 건축가 과업 규정에 관한법(연방 법령집 I, 1749)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입법자는 이 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개선하고, 높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코자 하는 목적에 기여코자 하였다.

법제정 당시 건축 및 토지비용의 갑작스런 상승이 임대료 상승의 원인으로 간주되어, 입법자는 엔지니어와 건축가 과업의 보수 규정 개정이 건축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간 1차 변경(1984. 7. 17 엔지니어 제(諸)과업 추가), 2차 변경(1985. 10. 6. 4조 2항 최저수가 규정 삽입), 3차 변경(1988. 3. 17 도시 계획적 과업에 대한 수가인상), 4차 변경(1990. 12. 13 1976/80년 이래 변경되지 아니한 수가표의 수가수준 인상 등), 5차 변경(2002. 1. 1 유로법에 따라 DM수가를 €로 변경)을 거쳐 제 6차 변경(2009. 8. 18 발효)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HOAI 제정/공포 당시 수가는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게 그들의 맡은바 과업에 대한 충분한 보수를 가능케 하였다.

건축가 및 엔지니어의 과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HOAI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들 과업에 대한 수가는 수가 규정의 틀 안에서만 약정되거나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HOAI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격법(Price Law)적 규정들은 유연성 있는 계약법(Contract Law)적 규정들을 제한한다.

수가는 HOAI에 따르면서도 자유로운 협상에 의지하는데, 법적 위임에 따라 최저 및 최고 수가가 정해진 이상, 계약 쌍방은 수가 차액 사이에서 수가 합의를 협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9개의 과업 단계

1. 기초조사
   계획을 통한 건축임무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조사
2. 예비계획
   계획임무 해결의 근본적 부분들의 수집
3. 설계계획(체계 및 통합계획)
   계획임무의 궁극적 해결 수집
4. 허가계획
   필요한 허가 또는 동의를 위한 안(案) 작업 및 제출
5. 실시계획
   실시에 충분한 계획해결의 작업 및 표현
6. 하도급 준비
   물량 조사 및 업무명세서 작성
7. 하도급 협력
   비용견적 및 하도급 협력
8. 대상물 감리(건축 감리)
   대상물 실현의 감독
9. 대상물 감리 및 문서화
   하자 제거 감독 및 전(全)결과물의 문서화

〈표.3〉 수가의 기본업무 평가/사정(査定) 비(%)

과업단계	건물	옥외시설	공간 형성 건조물 (실내건축물)
1	3	3	3
2	7	10	7
3	11	15	14
4	6	6	2
5	25	24	30
6	10	7	7
7	4	3	3
8	31	29	31
9	3	3	3
	100	100	100

건물, 공간구성 건조물(실내건축) 및 옥외시설(조경)에 관한 성과물들은 9개의 과업(課業)단계로 분류되고 매 단계의 과업들은 (기본)과업과 특수 과업으로 나뉜다.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제9회 이사회

2010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자격의 건, 2010 하반기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 2010 전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지원금 요청에 관한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자격에 관한 건,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지원금 요청에 관한 건이 논의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자격의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2010 하반기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
  –행사개최에 필요한 협찬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사업규모도 축소 ·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2010 전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
  –전체 예산을 3억원으로 하여 내실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차기 개최지 선정은 시도건축사회별로 유치희망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함.
- 제4호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지원금 요청에 관한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선임
  ▷공제사업 담당이사와 위원장, 3대권역별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함.
- 제2호의안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자격에 관한 건
  –조합원 자격을 협회 회원으로 한정하도록 공제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지원금 요청에 관한 건
  –예비비 500만원과 협찬금 중 500만원으로 하여 총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6회 회관관리위원회

제6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하자보수의 건
  –사무처에서 9월 3일 까지 회관하자보수관련 문서를 방수와 콘크리트 분야를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 할 것.
  –하자관리 전문변호사 선임시 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리스트와 하자 · 보수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작성할 것.
- 제2호 : 회관 대강당 등 임대계약 갱신

의 건
–현재 계약은 인정되지 못한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은 1년, 사용료는 연간금액 1억 5천으로 하여 월할 납입(*소급사항은 없음)하여 2011년 2월 22일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협의 할 것.
–시기적으로 소급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제외하도록 하고 계약만료적용시까지 3~4개월 간이라도 정식 계약하여 사용료를 적용받도록 함.
• 제3호 : 회관관리 매뉴얼관련 제 계약서 보완 및 체크리스트 작성의 건
–사무처에서 9월 3일 계약서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자료로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함.
–먼저 건물관리 용역도급계약서, 과업지시서, 과업시방서에서 문제점을 발췌하여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자료로 사용함.
• 제4호 : 회관관리 용역도급계약 재선정의 건
–회관관리는 11월 계약종료 시점을 두고 통보하는데, 계약서상 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조속히 입찰을 추진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회관관리를 무리없이 진행시키도록 함.
–2010.8.23(월) 회관관리위원장과 관리업체(성원개발)간의 협의과정에 회관관리에 대한 중도 포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지만, 만일의 상황에도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제7회 회관관리위원회

제7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관리 매뉴얼 작성의 건
–석정훈 위원이 회관유지관리 매뉴얼 작성을 위한 3D 시뮬레이션 등 현재 회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 비용을 조사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함.
–건물관리 현재추세는 3D 로 유지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마감상태, 1차 2차 보수사항, 보수담당, 작업물량이 즉시 체크될 정도로 발전되어 전문 프로그램업체에서 제작되고 있으므로 만일 비용문제 등 제반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기초를 만들어야 함.
• 제2호 : 8층 비서실 환기설비 설치의 건
–환기설비공사보다는 카펫청소(분기당)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함.
–환기설비공사를 하기보다는 습식청소용역업체와 년간 계약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습식카펫 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기 청정기 대여 등의 비용과 기기 사양을 조사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함.

■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보험사 업무제휴의 건
–보험사 업무제휴의 건에 대해 협의함.
• 제2호 : 홍보물 제작의 건
–안내서의 내용 중「공제사업의 법적근거」를 색깔 등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하고,「공제사업의 목적」에 '불의의 사고로부터 조합이 건축사를 보호'한다는 내용 또는 '건축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며,
–한화손해가 제출한 디자인 시안의「표지」그림은 "도면과 집"으로 하고, 그림을 엷은 색으로 처리하여 그 위에 강조체로 슬로건을 덮어 씌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협의함. 아울러 전체적으로 시안의 디자인이 완성도가 떨어지므로 흥국이 제출한 디자인이 접수되면 위원들에게 이메일 전송하여 의견을 취합하여 디자인 등을 결정할 것을 협의함.
• 제3호 : 건축사공제조합 슬로건 선정의 건
–슬로건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4안인 "조합원에겐 희망을, 건축주에겐 믿음과 신뢰를, 새로운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사 공제조합" 을 기본 토대로 하되, 내용은 좀 더 세련되고 회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며 '조합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건축사'라는 용어를 쓰도록 할 것을 협의함.

■ 제6회 국제위원회

제6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대표단 참석 여부 변경에 따라 대표단 구성을 재논의하고 대표단 명단을 확정함. 참가예산을 산출하여 부족예산은 국제사업비 중 추가로 편성 가능한지 검토하고 자비 부담금액을 참가 국제위원에게 통보하기로 함.
–참관단 모집(파키스탄, 인도)은 8. 27(금)까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집하였으나 최소 모집인원(10인)이 충족되지 않아 취소함. (신청인원 : 1인)
–학생건축디자인 공모전 작품 선정(2개 작품)을 위해 8. 25(수)까지 건축대학 재학생(3~5학년)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총 6개의 작품이 접수됨. 국제위원회 심사결과 김아람(경성대학교), 배호준(건국대학교) 학생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정재욱 자문위원이 선정된 학생을 면담(9.6)하여 파키스탄에 송부할 판넬제작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함.
–주파키스탄대사관에 연락하여 ACA-14 행사 개최 및 본 협회 대표단의 방문을 통보함(필요시 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제2호 : 제14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의 건
–협의회 세션별 논의 주제를 협의하고 주제 발표자 선정을 위해 NABAR 및 JFABEA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하기로 함.
–협의회 세션별 참석자 및 발표자를 협의함.
• 제3호 : 전국건축사대회 해외단체장 초청의 건
–지난 8월 협약을 체결(8.21)한 라오스건축사구조기술인협회 회장 및 라오스 주변국가와의 교류 확대 추진을 고려하여 베트남건축사협회 회장을 추가로 초청하기로 함.
–협약서 체결을 논의 중에 있는 중국건축학회(ASC) 회장을 추가로 초청하기로 함.
–일본건축가협회(JIA) 회장은 일정 변경이 어려워 불참을 통보하였으나 다시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고, 신춘규 이사가 연락함.
• 제4호 : 중국건축학회(ASC)와의 교류 추진
–중국건축학회와의 교류 추진은 지난 7월 서울시건축사회 북경 방문시 제안되었으며,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와 세계건축사연맹(UIA)의 회원단체로서 교류 중인 중국건축학회와의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단, 회장방침에 따라 9월 중 서울시건축사회가 중국건축학회 북경지부와의 협약체결을 추진할 경우 양 단체의 본협회 간 협약체결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서울시건축사회의 방문시기를 맞추어 추진하기로 함.

■ 제1회 중앙윤리위원회

제1회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울산건축사회 정회원(김광종) 재심청구에 관한 건
–본 안건을 심의함에 앞서 울산건축사회의 징계결정문을 검토한 결과 징계사유가 추상적이므로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구체적인 내용 및 입증자료 등을 울산건축사회에 요청하기로 함.
• 제2호 : 울산건축사회 정회원(박철현) 재심청구에 관한 건
–재심청구인인 박철현 건축사가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울산건축사회에 사실조회를 의뢰하기로 함.
▷본인에게 전달된 정확한 날짜와 경위 및 입증자료 등

■ 제3회 중앙윤리위원회

제3회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울산건축사회 정회원(김광종) 재심청구에 관한 건
–울산건축사회에서 '10.7.26 김광종 회원에게 행한 회원권리정지 3개월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기로 함.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위원장에게 위임함.
• 제2호의안 : 울산건축사회 정회원(박철현) 재심청구에 관한 건
–울산건축사회에서 '10.7.26 박철현 회원에게 행한 회원권리정지 3개월에 대한 처분은 회원권리정지 1개월로 감경하기로 함.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위원장에게 위임함.
• 제3호의안 : 윤리위원회규정중 회원징계결정기준 개정 건의에 관한 건
–이번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약을 개정토록 요청하기로 함.

■ 제8회 사업위원회

제8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홍보마케팅의 건
–본협회가 목표한 유료부스(100부스) 중 60%의 달성으로 좀더 노력하고, 내부행사용 무료부스(100부스)도 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구성을 완성코자 함.
–사무처에서 고양시 소재 업체명단을 취합하면, 사업위원장이 직접 고양시청에 전시회 참가 독려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임.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경기도시공사장과 미팅하여 전시 참가를 독려하였음.
–시도건축사회에 산업대전 참가 협조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였음.
–전시참가비의 디렉토리 광고 및 협찬금도 최선을 다하여 유치키로 함.

■ 제9회 사업위원회

제9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홍보마케

팅의 건
–디렉토리 협찬광고에 집중하여 유치키로 함.
–고양시 소재 업체 유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로 함.
–중국업체들 참가결정은 다음주까지 확인하여 최종결정키로 함.
–대한민국건축사대회때 '한국건축산업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여, 상의 품격을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키로 함.

■ 제2회 제1법제도개선위원회

제2회 제1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건
–동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안)대로 법제위원회의 안으로 마련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제1법제도개선위원회 방향성 정립에 관한 건
–두 가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으며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함.
① 건축법 체계 재정비
② 현장조사 · 검사 확인 업무대행 제도 관련 지침서 마련

■ 제2회 방송사업 TF팀 회의

제2회 방송사업 TF팀 회의 회의가 지난 9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방송 1차 구성안 검토에 관한 건
–제작진의 방송 1차 구성안의 상세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및 추천 의견을 정리하여 전달키로 함.

■ 제3회 방송사업 TF팀 회의

제2회 방송사업 TF팀 회의가 지난 9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프로그램 제작기간 및 방영시기에 관한 건
–구성안 변경 ·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 계약 상의 '10년 10월 초 보다 1개월 가량 제작기간을 연장하여 '10.11월 초에 방영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YTN(외주제작사)측에 전달함.
• 제2호 : 프로그램 구성안 수정 · 보완에 관한 건
–TF팀의 프로그램 구성안 1차 검토의견에 대한 YTN측의 답변을 듣고, 2차 검토의견을 제시함.
▷'건축'과 '건축사'의 본질적 가치를 보여주고 시대적 가치를 건축물에 담기 위한 건축사의 고민과 성과,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되,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의 건축사의 노력을 부각시켜 줄 것을 요청함.
▷제작진 측에서 회의중 전달된 수정의견을 모두 정리하여, 구성작가 재량으로 가감하고, 상충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TF팀과 협의해나가기로 함.

■ 제4회 방송사업 TF팀 회의

제4회 방송사업 TF팀 회의가 지난 9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인터뷰 대상 및 건축물 촬영안 확정에 관한 건
–YTN 외주제작사에서 작성한 인터뷰 대상 및 건축물 촬영안을 수정 · 보완하고, 원로 건축사등 주요인사의 섭외에 협조키로 함.
• 제2호 : 프로그램 제목 추천에 관한 건
–프로그램 제목을 다음과 같이 추천함.
▷TF팀 안
전체 : 건축, 누가 주인인가!(김우성, 9/15)
우리 건축, 우리 도시(정동명–친근감, 공동체성 은유)
1편 : 건축, 시대를 삼키다(박찬정, 물리적, 외형적 성장, 욕심의 표출)
2편 : 우리 건축, 나의 도시(박찬정, 진정한 공동성 구현 희망)
▷YTN 안
전체 : 도시와 건축
1편 : 시간의 공존, 수천의 얼굴
2편 : 사람의 건축, 사람들의 도시

■ 제7회 친환경위원회

제7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건축포럼 세부계획에 관한 건
–포럼명을 '2010 녹색설계를 위한 친환경 건축 · 리모델링 포럼'으로 정함
• 제2호 : 친환경 저에너지 통합설계 사례집 발간에 관한 건
–친환경 저에너지 통합설계 사례집 제작을 위한 분야 및 집필자 선정

■ 제3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제3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차 APEC 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참석의 건
–제4차 APEC 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는 김지덕 위원장, 이근창 위원, 정진일 담당사무관이 참석하기로 협의함. 중앙이사회 참석을 위한 Country Report는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제도운영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하기로 함.
–국제건축컨퍼런스시 이근창 위원의 발표 주제 및 방향은 세계화시대의 건축실무(Architectural practice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주제에 맞춰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나눠 일의 진행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하기로 함.
• 제2호 : APEC 계속교육 제공에 관한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10.20~23) 중 본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건축사연수교육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주관으로 Mr. Knut Goeppert 특별강연회를 붙임과 같이 10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일산 KINTEX에서 APE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비로 개최하기로 협의함.
• 제3호 : 제3차 APEC 등록건축사 심사 · 등록계획 공고의 관한 건
–제3차 APEC 등록건축사 심사 · 등록 공고는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APEC 등록건축사 심사 · 등록 공고를 연례화하여 매년 11월에 공고하여 5월에 수여식을 개최하기로 협의함.

■ 제14회 행정위원회

제14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검토의 건
–위원장이 시도건축사회장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 · 설명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1장부터 부칙까지 재검토함.
• 제2호 : 정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일정에 관한 건
–정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함.

■ 제15회 행정위원회

제15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전국건축사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검토 · 보완하여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2호 :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동호회 등록 및 지원기준 제정의 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기준을 좀 더 보완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정관개정(안)에 관한 건
–정관개정(안)에 대한 회장과 상근부회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제6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6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
–건축사법의 "설계"의 정의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7의 평가기준, 같은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등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각 조문의 개정(안)을 다음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하였음.

■ 제2회 정보 · 교육위원회

제2회 정보 · 교육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건축사연수교육에 관한 건
–건축사연수교육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함.
▷건축사연수교육 내용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부 교육의 시간을 변경 시행 하기로 함.
▷건축사연수교육 중 일부과목(개정건축법해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2010년도 건축문화강좌에 관한 건
–친환경 이외의 주제로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강사를 각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홈페이지 설문조사 실시 후 시행하기로 함.

■ 제6회 정책위원회

제6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방송사업 협찬금 유치에 관한 건
–하반기중 협회 행사는 많고, 협찬이 가능한 기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은 담당 위원회 보다는 이사회에서 통합 협의 및 조율을 해야 전체 행사의 협찬금 유치에 차질이 없을 것임.
–정책위에서도 방송 전후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조키로 함.
–YTN, 사이언스TV 방영 이후 해외홍보 목적으로 영어더빙 버전 제작시, 추가 홍보장면 삽입방안을 활용하여 협찬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함.
• 제2호 : 조사 · 검사업무 개선의 건
–조사 · 검사 업무 대행자와 이해당사자간 최소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

고,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품질화하는 동시에 건축사 직능의 일부로 떳떳히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조사 · 검사업무를 통한 처벌사례 등을 수집 · 분류하고 바람직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가려 개선점을 도출하기로 함.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키로 함.

라오스건축사 · 구조기술인협회와 MOU 체결

우리협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를 방문, 라오스건축사 · 구조기술인협회(회장 Sommad Pholsen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에는 최영집 회장과 김지덕,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양국의 건축 전문직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특히 우리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교류 추진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사)IBS Korea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협회와 사단법인 IBS Korea(회장 이기식)가 '지능형 건물의 보급과 활성화를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28일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체결된 협약식에서는 '인증제도를 위한 설계자 교육 및 홍보' '건축주에게 장점과 필요성 홍보' '교육 및 정보의 교환' '기술개발 및 교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협회 기획 '한국건축문화 60년' YTN, 사이언스TV 방영

우리협회에서는 기획, 추진한 『한국건축문화 60년 – 살고 싶은 건축, 누리고 싶은 도시』2부작 다큐멘터리가 지난 10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YTN과 사이언스TV를 통해 총 6회 방영됐다.

이번 방송사업은 광복 이후 60년간의 건축문화 역사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건축의 본질과 건축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자 우리협회가 방송사업을 기획 · 추진한 것이다.

1부는 「전쟁의 폐허 위에 이룬 기적 60년」이라는 제목으로 광복 이후 폐허에서 출발한 한국 건축이 단기간에 이루어 낸 성과를 조명하는 동시에, 공급과 개발의 논리속에서 건축사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문화시대 강소국의 건축문화 전략」의 첫 화두로, 건축의 공공성의 의미 및 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과 도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방송은 건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 · 방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축과 건축사의 본질, 건강한 푸른 도시에 관한 국민 의식이 널리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향후 국내외 홍보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독일건축사 'Mr. Knut Goeppert' 초청 강연회 개최

우리협회는 독일 건축사인 'Mr. Knut Goeppert'를 초정해 '혁신구조 공학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인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일산 KINTEX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건축사연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Goeppert는 슈투트가르트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Schlaich Bergermann und Partners GMBH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건축사이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협력팀 02-3415-6826, 6828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징계 결정 공고

대한건축사협회는 정관 제54조 제1항에 의거 우리협회 정회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속	이름	건축사사무소	징계결정 내용 ('10.10.13)
울산 건축사회	박철현	청담 건축사사무소	권리정지 1개월

2010 건축 법령집 판매

우리협회는 건축업무를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을 3단 대조식으로 편집하고, 건축관련법령 및 기준을 담아 「2010 건축법령집」을 발간 · 보급한다.

발송료를 포함하여 1만 5천원에 판매하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입금증과 구매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 성료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오경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후원하는 '2010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2010 UIFA Seoul)'가 지난 10월 4일 건축사회관에서의 개막식과 함께 5일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다.

10월 4일 개막식에는 세계여성건축가협회 솔랑즈 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오경은 회장,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해 80여개국에서 온 200여명의 여성건축사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솔랑즈 회장은 "오랜된 문화유산과 역사적 재발견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이번 대회는 우리의 유산의 보전과 특별함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계여성건축가협회(UIFA/The International Union of Women Architect)는 1963년 프랑스 건축가 솔랑주에 의해 창립됐으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80여 개국의 건축가, 도시계획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경 디자이너, 기타 환경관련 전문인,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여성건축가들의 연합이다. 지난 1963년 제1회 프랑스 파리대회를 시작으로 3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데, 한국은 제6회 프랑스 파리대회(1983년)에 처음 참가한 이후 꾸준히 활동을 해 왔으며 2007년 제15회 루마니아 부카레스트대회에서 제16회 서울대회가 결정됐다.

2010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지속 가능한 건축 및 도시환경의 발전을 위해 'Green Environment'라는 대주제를 택하고 '전통에서의 Green', '친환경 주거'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도시재생'이라는 3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열리는 6개의 세션에는 총 3가지의 소주제를 기본으로 해외 16명, 국내 20명의 유망 여성건축가들의 심도 깊은 주제발표가 있었다.

2010 대전건축문화제 발대식 개최

'2010 대전건축문화제' 발대식이 지난 9월 15일 샹젤리제웨딩홀에서 건축사, 교수, 건설 · 시민 · 환경단체장,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참여 속에 개최됐다.

대전광역시 주최로 건축3단체인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대전광역시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대전충남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0대전건축문화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마당'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됐다.

금년 2회째를 맞이하는 대전건축문화제는 1회 때보다 더 규모가 크고 다양한 행사로 기획돼 아동 ·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원 '글짓기, 그림그리기, 친환경건축모형대회'의 행사와 일반시민 참여의 '시민사진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주방설계공모전', 친환경건축에 대한

견학체험의 장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건축문화를 공유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생태건축투어' 등이 열렸다.

이외에도 '독일친환경 Landscape특별전', '공공디자인사회봉사', '아파트특별전시회', '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등의 행사들이 동시에 열렸으며, 대전광역시청 관련 부서들도 '공공디자인공모전', '옥외광고대상전', '도시디자인포럼' 등을 통한 행사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축문화 서비스가 제공됐다.

제3회 심원건축학술상 공모

심원문화사업회가 주최하고 (주)엠에스 오토텍이 후원하는 '심원건축학술상(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 Academic Researcher)'이 2차 응모작을 접수한다.

2차 응모작은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추천작은 2011년 1월 15일 '건축리포트 〈와이드〉' 11년 1-2월호 지면에 발표할 예정이다.

심원건축학술상은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물로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고(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은 미 발표작으로 간주함)를 응모 받아 그 중 매년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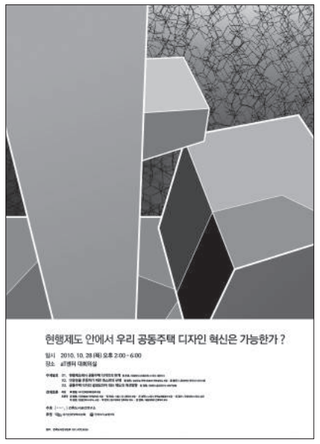
심원문화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와의 인연을 회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로서,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 당선작 : 1편(상패 및 상금 500만원과 단행본 출간 및 인세 지급)
- 응모자격 : 내, 외국인 제한 없음
- 응모분야 : 건축역사, 건축이론, 건축미학, 건축비평 등 건축인문학 분야에 한함

(단, 외국국적 보유자인 경우'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함)

- 당선작 발표 : 2011년 5월 15일(건축리포트 〈와이드〉 11년 5-6월호 지면)
- 문의 : 심원문화사업회, 02-2235-1960

AURI, '우리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은 가능한가?' 심포지엄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aT센터 대회의실에서 '현행제도 안에서 우리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제도상에 공동주택을 경직되게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제도가 외국의 그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우리의 공동주택이 형식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현행제도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의 한계'에 대해 최두호 토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 윤철재 니켄세케이 한국지사 부지사장과 정영욱 삼성건설 주택사업본부 전략설계실 과장이, '공동주택 디자인 결정요인이 되는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김진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전체토론의 좌장은 최명철(주.단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다.

-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31-478-9656

오토데스크 코리아,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유저 컨퍼런스 2010' 개최

오토데스크 코리아(대표이사 김동식)는 지난 10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500여명의 제조업 고객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유저 컨퍼런스 2010'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D를 넘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의 세계로 안내합니다(Beyond 3D: Digital Prototyping)'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단순히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소개하는 취지를 넘어 오토데스크 유저들을 위한 자리로서 기계설계, 제조, 산업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고객사들이 국내외 유명 전문 디자이너들의 강연과 함께, 자동차, 기계제조, 소비재, 우주항공 분야 등 다양한 사례 발표를 접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식 오토데스크코리아 사장은 "이번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유저 컨퍼런스 2010'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제조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각 채널별로 다양한 소통의 창을 마련해 오토데스크 제품의 장점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2-3484-3400, www.autodesk.co.kr

KCC,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환경부 장관상 수상

KCC는 지난 6일 환경부가 주최한 제2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원순환 선도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정개선, 기술개발, 친환경원료 사용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유해물질 저감, 재활용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공이 큰 기업과 민간인 등에게 총 16개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KCC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를 통해 비용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KCC의 전주 실리콘공장은 지속적인 공정개선으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였고, 지속적으로 재활용처리 정책을 실시해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CC 관계자는 "KCC 전주 실리콘 공장은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해당 폐기물의 발생공정인 MCS (MethylchloroSilane-유기실리콘 모노머) 반응공정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면서 "그 결과 ECM (Exhausted Contact Mass - 폐기물) 배출량을 연간 650톤 감소시켰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발생 저감비용을 연간 9,300여만 원, 공정개선으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10억 7,000만 원 등 총 12억여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2008년 58.8%에서 2009년 71.8%로 증가하였고 폐기물 발생 저감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이 15.4% 감소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2억 2,000여만 원의 폐기물비용 저감효과 실적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CC는 2004년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2005년 KS인증(F4901 건축용실링재)을 획득했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를 다수 (페인트,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바닥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등) 획득해 친 환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다.

KCC, '2010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3개 부문 1위 수상

KCC가 지난 9월 1일,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고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원하는 '2010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인증수여식에서 창(호)세트, 수성도료, PVC(비닐계) 바닥재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창(호)세트 부문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사용품질지수란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수연구회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측정모델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 및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종합지표이다.

KCC는 도료, 건축 내외장재, 유리, 창호, 바닥장식재, 특수소재제품 등 각종 건축, 산업 자재의 공급을 통해 한국 건축, 산업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KCC는 주력 사업 분야인 도료와 건축 내외장재, 유리 분야에서 실리콘, 소재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견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KCC 관계자는 "한국사용품질지수는 소비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므로 특히 조사 신뢰성이 높은 지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KCC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니즈를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신간안내

아파트박사

안형준 저 | 596쪽 | 부동산경제신문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과 교수와 부동산경제신문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와 단지계획, 구조계획,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유지관리, 재건축, 리모델링, 하자보수 등 핵심내용들을 모아 '아파트 박사'를 발간했다.

사진과 함께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알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도서에는 안교수의 오랫동안 아파트 건축 · 구조설계 및 아파트 주거 · 생활양식을 연구하면서 축적된 아파트를 보는 노하우가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장 아파트란! 개념도입과 각 분야별로 2장-5장까지 단지계획, 주거공간, 단위세대, 부대시설, 6장부터 11장까지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조계획, 마감재, 설비계획, 조명, 조경에 대해 요약하여 다루었다.

• 문의 : 부동산경제신문 출판사업부 02-326-3455

베트남 건설 · 부동산 시장

유성용 저 | 327쪽 | 굿인포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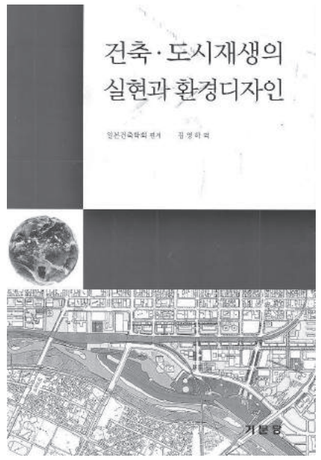
이 책은 4년간의 베트남 주재관 생활을 했던 저자가 그 생활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고, 주재관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펴낸 책이다.

특히 베트남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자의 베트남 당국의 정책과 의도 및 배경 등에 주목하고 이를 소개한 이 책은 베트남에서 건설 및 부동산 사업이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독자에게는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는 현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으로 재직중이다.

• 문의 : 굿인포메이션 02-326-3455

건축 · 도시재생의 실현과 환경디자인



일본건축학회 편저, 김영하 역 | 244쪽 | 기문당

이 책은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김영하 교수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작지만 일조가 되어 '건축 · 도시재생'의 소통과 꿈을 실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며 펴낸 책으로, 프로젝트의 건축기획으로서의 테마, 콘셉트, 경위, 자금수지계획, 법 제도와의 적응, 계획단계의 특징, 실시단계의 특징, 기획으로써의 평가 · 전망의 시점을 설정하여 건축기획을 친근감 있고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건축이란 무엇이며, 건축이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동향을 고려한 인간과 환경 본연의 형태의 제안을 살펴봄으로써 환경공생과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서의 건축기획과 도시재생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 문의 : 기문당 02-2295-6171~5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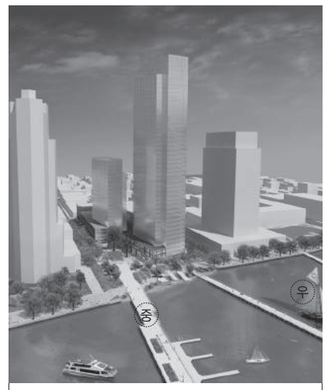
해외건축동향
overseas news review

PLAZA ARCHITECTS'

김은미 / Studio M.Ap
by Kim, Eunmee

지역 정치인들의 뉴욕시를 향한 이의제기 – 제안요구서(RFP)로 프로젝트를 부양하고 공공심리를 피할 수 있게 개발업자를 도왔다고 주장하다

논란의 중심인 자바스트리브 부두
Courtesy Pelli Clarke Pelli



개발업자 번스타인은 그의 타워들을 더욱 크게 만들 인디아 스트리트 부두(중간) 자바스트리트 계획(우)를 계획 하였다.

블룸버그 행정부는 이스트 리버를 페리로 건너기 위해서 그린포인트 수변공간 한 켠을 기꺼기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있을까? 스티브 레빈 의원은 그렇다고 보고 있다. 7월에 이 뉴욕의 경제개발공사는 "선박의 정박을 허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스트 리버로의 즐겁고 안전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부두 구조"라는 제안요구서(RFP)를 발표하였다. 자바 스트릿에 위치한 이 부두는 페리를 제외한 레크레이션이나 교육용 보트의 정박을 허가하게 될 것이다. 2005년 지역 수변공간 리조닝 계획에 따르면, 이 자바 스트릿의 부두는 인디아 스트릿에 이미 계획되어진 페리를 수용하게 될 또 다른 부두와 인접해 있다.

비슷한 수법으로 번스타인은 보도를 인디아스트리트 계획과 같이 돌려 놓았고 이것은 그의 빌딩들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레빈과 소수의 지역 사회 그룹은 자바 스트릿 부두가 그 현장 가까이 많은 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개발업자인 조나단 번스타인을 배불리는 것 이외에 어떠한 명백한 목적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부두의 개발은 또 다른 부두들의 공중권을 가질 번스타인에게 그가 작년에 발표한 두 Pelli Clarke 럭셔리 타워 만한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레빈은 경제개발공사가 제안요수서(RFP)를 통해 번스타인사에 토지 수여를 보장함으로써 그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인디아 스트릿 부두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는 만약에 둘 다 하지 않는 다면, 그들(개발업자)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페리 서비스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 그들에게 모든 걸 줘버렸습니다." 라고 레빈

신간안내

아파트박사

안형준 저 | 596쪽 | 부동산경제신문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과 교수와 부동산경제신문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와 단지계획, 구조계획,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유지관리, 재건축, 리모델링, 하자보수 등 핵심내용들을 모아 '아파트 박사'를 발간했다.

사진과 함께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알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도서에는 안교수의 오랫동안 아파트 건축 · 구조설계 및 아파트 주거 · 생활양식을 연구하면서 축적된 아파트를 보는 노하우가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장 아파트란! 개념도입과 각 분야별로 2장-5장까지 단지계획, 주거공간, 단위세대, 부대시설, 6장부터 11장까지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조계획, 마감재, 설비계획, 조명, 조경에 대해 요약하여 다루었다.

• 문의 : 부동산경제신문 출판사업부 02-326-3455

베트남 건설 · 부동산 시장

유성용 저 | 327쪽 | 굿인포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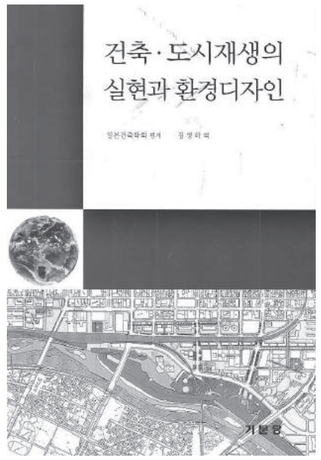
이 책은 4년간의 베트남 주재관 생활을 했던 저자가 그 생활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고, 주재관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펴낸 책이다.

특히 베트남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자의 베트남 당국의 정책과 의도 및 배경 등에 주목하고 이를 소개한 이 책은 베트남에서 건설 및 부동산 사업이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독자에게는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는 현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으로 재직중이다.

• 문의 : 굿인포메이션 02-326-3455

건축 · 도시재생의 실현과 환경디자인



일본건축학회 편저, 김영하 역 | 244쪽 | 기문당

이 책은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김영하 교수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작지만 일조가 되어 '건축 · 도시재생'의 소통과 꿈을 실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며 펴낸 책으로, 프로젝트의 건축기획으로서의 테마, 콘셉트, 경위, 자금수지계획, 법 제도와의 적응, 계획단계의 특징, 실시단계의 특징, 기획으로써의 평가 · 전망의 시점을 설정하여 건축기획을 친근감 있고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건축이란 무엇이며, 건축이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동향을 고려한 인간과 환경 본연의 형태의 제안을 살펴봄으로써 환경공생과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서의 건축기획과 도시재생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 문의 : 기문당 02-2295-6171~5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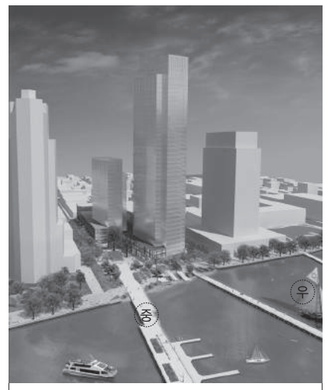
해외건축동향
overseas news review

PLAZA ARCHITECTS'

김은미 / Studio M.Ap
by Kim, Eunmee

지역 정치인들의 뉴욕시를 향한 이의제기 – 제안요구서(RFP)로 프로젝트를 부양하고 공공심리를 피할 수 있게 개발업자를 도왔다고 주장하다

논란의 중심인 자바스트리브 부두
Courtesy Pelli Clarke Pelli



개발업자 번스타인은 그의 타워들을 더욱 크게 만들 인디아 스트리트 부두(중간) 자바스트리트 계획(우)를 계획 하였다.

블룸버그 행정부는 이스트 리버를 페리로 건너기 위해서 그린포인트 수변공간 한 켠을 기꺼기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있을까? 스티브 레빈 의원은 그렇다고 보고 있다. 7월에 이 뉴욕의 경제개발공사는 "선박의 정박을 허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스트 리버로의 즐겁고 안전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부두 구조"라는 제안요구서(RFP)를 발표하였다. 자바 스트릿에 위치한 이 부두는 페리를 제외한 레크레이션이나 교육용 보트의 정박을 허가하게 될 것이다. 2005년 지역 수변공간 리조닝 계획에 따르면, 이 자바 스트릿의 부두는 인디아 스트릿에 이미 계획되어진 페리를 수용하게 될 또 다른 부두와 인접해 있다.

비슷한 수법으로 번스타인은 보도를 인디아스트리트 계획과 같이 돌려 놓았고 이것은 그의 빌딩들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레빈과 소수의 지역 사회 그룹은 자바 스트릿 부두가 그 현장 가까이 많은 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개발업자인 조나단 번스타인을 배불리는 것 이외에 어떠한 명백한 목적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부두의 개발은 또 다른 부두들의 공중권을 가질 번스타인에게 그가 작년에 발표한 두 Pelli Clarke 럭셔리 타워 만한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레빈은 경제개발공사가 제안요수서(RFP)를 통해 번스타인사에 토지 수여를 보장함으로써 그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인디아 스트릿 부두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는 만약에 둘 다 하지 않는 다면, 그들(개발업자)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페리 서비스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 그들에게 모든 걸 줘버렸습니다." 라고 레빈

사무실의 대변인 라미 메탈씨는 이야기 했다. 개발자 및 경제 개발 공사는 모두 RFP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이 지역 사회는 그린포인트 지역이 오직 불안정한 G 트레인으로만 이어진 고립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빠르게 월스트리트나 34가로 연결될 수 있는 제안인 페리 서비스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그대로 구현될 때 환영할 것이다. 뉴욕시 또한 지난번 기회에 주춤해 버렸던 페리 서비스 계획을 간절히 최종화시켜 실현시키고 싶어한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은 2005년 rezoning의 계기로 그들의 해변 가로 밀고 들어온 초호와 주택의 조류에 격분을 표하고, 주변에 새로운 개발(특히나 현재의 조닝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계발)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번스타인과 그의 소유지의 다른 개발자들은 이미 인디아 스트릿 부두를 만들 의무를 부여받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공중권의 혜택을 가지고 갔다. 두 번째 부두를 추가하며 그들은 더 많은 공중권의 혜택을 가지고 가게 되며, 레빈의 사무실에서 계산해 본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40,000평방 피트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 부두에 위협을 만드는 것은 번스타인이 실질적으로 그의 FAR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부두에 땅을 더함으로써 그의 사이트를 증가 시키는 것이다. 번스타인은 이미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인디아와 자바 스트릿을 없애고 그들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더 많은 오픈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번스타인의 사이트를 확장시키고, 그의 건물이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전에 공공의 재산이었던 땅을 집어삼킴으로써, 번스타인은 공개심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4.7 FAR' 라는 문지방을 넘지

않고, 그의 프로젝트를 확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번스타인이 그 부두개발에 개발자가 되고 그 두 길들을 없앤다면(이것은 공원과와 교통과 관할 아래 있다), 번스타인은 어떤 지역적 압력 없이 그의 거대해진 타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제안요구서에 있는 한 조항이다. 그 조항은 어떤 신청자든 부두를 짓기 위해선 'Army Corps of Engineers'로부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탈씨에 따르면, 경제개발 공사가 제안요구서의 발행에 앞서 필요한 허가들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번스타인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그 부두 개발을 위해 필요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Army Corps'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발에 필요로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번스타인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그 허가들을 실질적으론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은 페리부두를 진실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입니다." 라고 경제개발공사의 메탈씨는 말한다. 번스타인의 회사의 대변인에 따르면 번스타인 외에 어떤 사람도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가정 했을 때, 왜 특혜가 필요한 것일까? 그 대변인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팔월 초에 제안요구서(RFP)의 제출이 끝이 났을 때, 레빈씨는 도시가 그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

번스타인의 대변인 조지 폰타스씨는 그들의 프로젝트가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을 위한 매력적인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와 뉴욕시는 그들이 제안한 부두계획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어떤 그룹이나 개인도 제시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좋은 성장 이웃 연합'이나 Greenpoint Waterfront Association와 같은 저명한 단체들은 그들의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 프로젝트는 아직 공공심리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고, 그것이 완료 될 때 까지, 그 프로젝트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거나, 당선안으로 뽑히는 일은 어려울 것 입니다."라고 폰타스씨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업자들이 공들여 만든 '2005 Rezoning'을 계속적으로 뒤엎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사회로 부터의 강력한 세부조사를 받아왔다. "2005년은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단 한 명의 개발자도 이 법칙들에 따르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가 정신이상으로 가는 사다리의 바로 다음 계단입니다."라고 건축가

이자 'Community Board 1 land-use committee'의 의장인 헤더 로슬룬드는 말한다.

새로운 공원과 'surface boulevard'가 'Alaskan Way Viaduct'를 대체할 것이다. 9에이커의 새로운 공공공간이 도시 수변공간의 심장에 만들어 진다.
Courtesy WSDOT

씨애틀은 탈공업시대로부터 남겨진 많은 제방들의 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대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지난주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이 "회색의 음울한 운송통로의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흥미진진한 공공공간으로의 변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디자인 회사로 선정되었다. 약 569 million 달러의 이 프로젝트는 도시 중심 수변 공간을 따라 있는 고가도로가 없어지면서 만들어지는 9에이커의 오픈스페이스를 도시에 제공할 것 이다. 도시 서쪽에 위치한 'Alaskan Way Viaduct'은 도시계획가 들이 수십 년간 제거되기를 꿈꿔온 물리적 그리고 시작적인 장벽이다.

뉴욕에 기반을둔 'Field Operations'는 조경과 도시 디자인이 전문영역이며, 'High Line and Fresh Kills Park in New York' 프로젝트를 위한 디자인 팀을 이끌었고, 산타모니카의 새로운 시민공원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뉴욕 기반의 'SHoP Architects'와 씨애틀 회사인 'Mithun'이 그들과 팀을 이루고 있다. 이 팀은 'Gustafson Guthrie Nichol, Michael Van Valkenburgh, and Wallace Roberts &Todd' 들이 포함된 4개의 최종 후보자들 중에 선택되었다.

WSDOT 초기 계획안 분홍색 공간 안에 새로운 공공시설이 위치 할 곳이다.

씨애틀 시는 9월 15일 'Benaroya Hall'에서 열린 1,3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4팀 중에 당선 팀을 선정하였다. Corner씨는 그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것은 'working waterfront'입니다. 나는 다른 모든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특정 장소로 부터의 특정 장면을 위해 마비되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수변공간의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드라마틱한 세팅을 만들고,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그곳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원의 실현 여부는 'Alaskan Way viaduct'을 대체할 지하터널($3.1 billion의 자금이 주와 연방정부로부터 모여졌고,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 이 지하터널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의 공사에 달려있다. 씨애틀 시는 새로운 공원을 위한 자금의 절반을 마련하였고, 나머지를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 고가도로로 채워져 있는 그 공공 영역에 어떤 상업적 개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뉴욕의 'High Line'프로젝트를 좋은 본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공공의 오픈 스페이스가 개인 개발자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내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라고 시애틀 교통과의 릭 세리단이 말했다. 시의 공무원들은 수변공간의 고층건물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우리는 마이애미 해변과 같은 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시의원 샐리 백쇼는 말했다.

씨애틀 건설팀을 위해 'RFQ'를 발행해 왔고, 10월에 당선작을 발표하기 위한 계획 하고 있다. 건설과 디자인 팀들은 그 당선안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될 것이며, 개념 디자인은 내년의 위해 준비되고, 건설을 2016년에 시작되도록 계획될 것이다. 그리고 공원은 2018년에 완공되는 걸로 예정되어있다.

수변 공간 계획은 많은 도시에서 진행 되어 오고 있다. 모든 개발 계획이 그렇듯 인근 주민들의 요구와 경제 논리, 도시 계획 차원의 원칙들이 제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충돌을 한다.

위에서 미국의 두 경우를 살펴 보았지만 이 모든 난관을 거쳐 미래를 위한 가장 타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주관 기관의 입장이 공정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건축이나 도시의 디자인 계획을 받는 과정 심사의 과정, 의견 수렴과정 등을 공개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도시를 위한 어떤 계획이든 공개적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받을 수 는 없는지… 이러한 유연한 기관을 꿈꿔 본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0년 8월말

구분 / 건축 / 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307	5,307	104	208	8	24	5,419	5,539	1,646	1,646	246	492	62	186	25	100	25	168	2,004	2,592		7	7,423	8,131
서울	900	900	26	52	2	6	928	958	886	886	144	288	39	117	12	48	15	90	1,096	1,429		6	2,024	2,387
부산	470	470	17	34	2	6	489	510	96	96	18	36	3	9	0	0	3	24	120	165			609	675
대구	416	416	21	42	3	9	440	467	64	64	19	38	3	9	3	12	2	10	91	133			531	600
인천	269	269	3	6	0	0	272	275	63	63	7	14	0	0	1	4	0	0	71	81			343	356
광주	203	203	1	2	0	0	204	205	39	39	7	14	3	9	2	8	0	0	51	70			255	275
대전	244	244	5	10	1	3	250	257	35	35	9	18	3	9	1	4	1	17	49	83			299	340
울산	178	178	5	10	0	0	183	188	17	17	2	4	1	3	0	0	0	0	20	24			203	212
경기	718	718	2	4	0	0	720	722	233	233	17	34	3	9	2	8	1	5	256	289			976	1,011
강원	171	171	2	4	0	0	173	175	25	25	2	4	0	0	1	4	0	0	27	33			201	208
충북	209	209	4	8	0	0	213	217	30	30	5	10	1	3	1	4	2	15	39	62			252	279
충남	235	235	1	2	0	0	236	237	45	45	5	10	2	6	2	8	0	0	54	69			290	306
전북	237	237	4	8	0	0	241	245	23	23	2	4	2	6	0	0	0	0	27	33			268	278
전남	191	191	1	2	0	0	192	193	16	16	2	4	0	0	0	0	1	7	19	27			211	220
경북	350	350	5	10	0	0	355	360	36	36	4	8	1	3	0	0	0	0	41	47		1	396	407
경남	404	404	7	14	0	0	411	418	28	28	3	6	0	0	0	0	0	0	31	34			442	452
제주	112	112	0	0	0	0	112	112	10	10	0	0	1	3	0	0	0	0	11	13			123	125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31	10	8,141	100%	23
서 울	2,387	3	2,390	33.9%	10
부 산	675	1	676	7.9%	9
대 구	600	0	600	7.7%	0
인 천	356	0	356	3.8%	0
광 주	275	0	275	3.7%	0
대 전	340	1	341	3.7%	0
울 산	212	0	212	2.6%	0
경 기	1,011	2	1,013	12.2%	2
강 원	208	0	208	2.6%	0
충 북	279	0	279	3.0%	0
충 남	306	3	309	3.1%	0
전 북	278	0	278	3.0%	0
전 남	220	0	220	1.9%	0
경 북	407	0	407	4.6%	1
경 남	452	0	452	5.0%	1
제 주	125	0	125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수	5,539	2,592	–	8,131	
비율	68.12%	31.88%	–	100%	
사무소수	5,419	2,004	–	7,423	
비율	73.01%	26.99%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인의 축제 '2010 건축의 날' 성료

부대진 건축사, 김홍식 교수, 정상진 교수 대통령표창 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0건축의 날'이 지난 10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성료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등 정부인사와 최영집 회장,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언구 대한건축학회 회장, 솔랑즈 세계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 건축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최영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릇이자 터전이며, 의식주에 하나로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며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며 건축의 세계를 키워나가자. 우선 건축계부터 분화되어가기만 하는 건축의 전문분야가 연합하여 힘을 합치고 유사분야는 효율적으로 통합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서로 가르지 말고 빼지 말고 나누지 말며, 더하고 곱하며 키워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최회장은 건축단체들의 총연합을 주창했다. 건축단체총연합회, 약칭 '건총'의 설립을 통해 연합활동을 시작하고 건축문화창달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도시, 주택, 기술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건축문화청'의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장과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솔랑주 세계여성건축가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유공자 표창에서는 부대진 (주)진아건축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와 김홍식 명지대학교 교수, 정상진 단국대학교 교수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이영순 영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김혜정 명지대학교 교수가,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은 인의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대표이사 외 8인,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은 이병환 성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외 14인,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은 김회현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대표이사 외 8인이 수상했다.

부대행사로 개최된 해외진출 건축작품전시회 개막 컷팅식에는 건축3단체장들과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곳곳에 진출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13개 작품이 참여, 세계 속의 국내 건축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공식행사 후 대강당 뒷마당에서 열린 축하연은 내빈과 수상자, 건축인들이 웰빙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하며 나누는 자리였으며, 올 건축의 날을 준비하는데 공헌한 인사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피터 프란(Peter Pran) 미국 NBBJ 디자인 대표의 주제강연과 나다니엘 칸 감독의 건축영화 'My Architect'가 상영돼 큰 관심을 모았다.

건축의 날은 창의적인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자존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9월 25일)을 기념일로 택하여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10월달에 열리게 됐다.

1

2

3

4

5

6

7

8

1. UIA 총회 유치를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좌로부터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언구 대한건축학회 회장)
2. 개막 컷팅식
3. 최영집 회장의 개회사
4. 건축의 날 기념식장 전경
5. 이창섭 집행위원장의 '건축인 선언'
6.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7.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의 격려사
8. 솔랑주 세계여성건축가협회 회장의 축사

9

10

11

12

13

14

15

16

17

9. 대통령표창–부대진 (주)진아건축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10. 대통령표창–김홍식 명지대학교 교수
11. 대통령표창–정상진 단국대학교 교수
12. 주제강연–피터 프란
13. 피터 프란에게 감사패 전달
14. 축하연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축사
15. 축하연 재즈공연
16. 축하연 전경
17. 해외진출 건축작품전시회

한국건축문화대상展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展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도시축전기념관(트라이-볼)」,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동탄 솔리움 타운하우스」설계자와 「성남판교 대림휴먼시아(A27-1)」시공자가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을지로 119안전센터」,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그린투모로우」설계자와 「파주 교하 한빛마을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시공자가 선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건축주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수여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에 대한 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1992년에 제정돼 「건축은 문화다」임을 표방하며 이 땅에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왔다.
올해에는 건축이 갖추어야할 본질적인 가치와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issue) 및 건물의 완성도와 건축디자인의 독창성, 건축사가 추구한 분명한 건축적 비전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했다.
특히 사회공공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도시축전기념관'은 건축적인 조형성과 함께 그 구조적으로 대담한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시공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시공의 완성도도 높이 평가를 받았으며, 민간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의 건축사는 전통양식과 공간의 직설적인 재현보다 현대건축의 틀 안에서 은유와 상징을 통한 전통건축의 체험을 유도하는 데서 찾았고, 이를 놀라운 집중력과 능숙한 건축기법을 동원하여 보기 드물게 완숙한 건축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건축과 도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재개발로부터 기존의 도시현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려할 수 있게 한 부지의 활용방안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으며, 환경의 복원과 순응을 콘셉트로 한 프로그램으로 출품자의 노력과 건축지식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공생」의 조흥래, 최용기, 옥민진 씨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1인에 한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이순조(종합건축사사무소 명승건축,주) 씨를 선정해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공로상'에는 임종권(전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씨가 선정됐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108점, 계획건축물부문 330점 등 총 438점이 응모됐으며, 시상식은 10월 20일(월)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고, 수상작은 킨텍스 1층 3홀에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또 건축계에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 · 관 · 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 · 시상행사로 발전.

목 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본 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 시화공장	삼성종합연수원 창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법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학동수졸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닮교회 SBS 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투자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팜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트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아름악당 진로쿠어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합주거 웨스틴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수원	–
제7회 (1998년)	울산 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웰콤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선수 · 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스에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 시청사, 아이파크 삼성동	KT 여의도 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제14회 (2005년)	달성군청사 타워팰리스 Ⅲ	대치 동부센트레빌, 배재대학교 예술관	A House With Three Courts 수입777 보헌빌딩 옥계 휴게소
제15회 (2006년)	청계천 문화관 해송원 솔빛머금은 남쪽마을... 오름–무방리 주택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주)하이마트사옥, 노은 리슈빌 Ⅱ, 동신대학교 기숙사	–
제16회 (2007년)	덕평자연휴게소, 파주웅진 씽크빅 사옥, The # 스타시티, 배재대학교 국제언 어생활관	대룡중학교, 논현동 의화빌딩, 용산 파크자이, 양익재	완도군 수협활어 종합유통센터 외 12작품
제17회 (2008년)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웨스트민스터홀, 아임삭 오창공장, 김포 수기마을 힐스 테이트, 동백 아펠바움	백남준 아트센터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관악산 휴먼시아, 루트 하우스	단원어린이 도서관 외 13개 작품
제18회 (2009년)	서울남 산국악당, 부띠크 모나코, 반포 577, 은평 뉴타운 현대 I PARK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집운헌, 의정부 녹양 휴먼시아	제주특별자치 도립미술관 BTL 외 10개 작품

준공건축물부문

□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2008. 3. 2 ~ 6. 6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3. 2 ~ 6. 7 (kaa.kira.or.kr)
▶ 접수 : 6.8 ~ 6.9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심사 :
  • 1차 사진첩심사 : 6.18
  •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6. 30~7. 2(지방), 7. 6~7. 8(수도권)
  •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7.8
▶ 시상식 : 10. 20 14:00 /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
▶ 수상작 전시 : 10. 20~24 / 장소 : 킨텍스 1층 3홀

□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 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 · 개축 · 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응모 불가함.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나. 주요 출품규정

▶ A4규격의 포트폴리오 1부(Korean Architecture 2009 작품집 참조)
  포트폴리오는 출품자(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표지에 작품명, 접수번호 표기
▶ 작품사진, 기본도면, 작품개요 · 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 건축물대장(표제부, 현황도 포함) 1부

※ 공동설계 작품인 경우 공동설계자의 출품동의서(명의 동의) 반드시 제출

□ 심 사

가. 심사방법

▶ 1차심사 (사진첩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 (현장심사) : 현장 대상작 심사
▶ 최종심사 : 입상작(대상 · 본상 · 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김 병 현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_ 위원장
김 용 미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 흥 균 호서대학교 교수
서 치 호 건국대학교 교수
이 현 우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임 장 렬 (주)성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장 양 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천 태 삼 한국건축문화대상 부시행위원장

□ 시상내용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 명 \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대상, 본상 작품별 대표 설계자, 시공자에 한해 해외건축탐방 특전부여

수상자명단

◻ 준공건축물부문

大 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도시축전기념관(트라이–볼) 유걸(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주)포스코건설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민간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 주식회사 성영종합건설 / 안동수

• 공동주거부문(시공자–대통령상, 설계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성남판교 대림휴먼시아(A27–1) 정영균(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림산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일반주거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동탄 솔리움 타운하우스 서윤주(주.디안 건축사사무소) / 청도건설(주) / 청도솔리움(주)

本 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을지로 119안전센터 류재은(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 강임종합건설(주) / 서울특별시청

• 민간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 유병진

• 공동주거부문(시공자–국무총리상, 설계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파주 교하 한빛마을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임종대(주.성현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라건설(주) / (주)문일주택개발

• 일반주거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그린투모로우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 삼성물산(주)

※ 작품명 그린투모로우는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시공자만 시상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성북 더 게이트 힐즈** 오찬재(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지온홀딩스
• **박학재** 안우성(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 정일훈 / 정일훈
•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김종국(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주)포스코건설 / 송도국제도시개발(유)
• **모노퍼스** 임홍래(건축사사무소 단우유디) / (주)한양 / 에스에이치공사
• **은평가경(佳景)** 안길원(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두산건설 / 에스에이치공사
• **명동예술극장** 한종률(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일건설(주)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디지털도서관** 이필훈(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국립중앙도서관
• **2010 광주 세계 광 엑스포 주제 영상관** 조성호(주식회사 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 남광건설(주) / 광주광역시청
•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이관표(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자호(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부천시청
• **일신 한남동 10** 우시용(건축사사무소 시공건축) / 벽산건설(주) / 일신방직(주) 한남동빌딩
• **양평교육원** 유태용(주.테제 건축사사무소) / (주)메가마크 / (주)오리온
• **해운대 온누리 교회** 이필훈(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파라다이스 글로벌 / 부산온누리 감리교회
• **커낼 워크** 부대진(주.진아건축도시 건축사사무소) / (주)포스코건설 / 송도국제도시개발(유)
• **천주교 마산교구 마산카톨릭교육관** 손기찬(건축사사무소 동이) / 지엔지건설(주) /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작품명 박학재는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심사총평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금년으로 19회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매년 당해연도의 대표작으로 20여점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이들을 현실의 건물로 이루어 놓는데 기여한 건축사와 건설사를 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건축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건축물이 우리의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는 인식을 범사회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년의 건설 불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모두 108점이나 되는 많은 응모작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높은 호응도는 두 부문의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그 만큼 높아진 것도 반영하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주거부문의 응모작의 감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심사는 예년과 같이 시행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1차 예비심사에서 30점의 현장심사대상작을 선정한 후에 6일 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는 30개소를 찾아 현장심사를 가졌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작 선정과정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30개의 2차 심사대상작에 대한 밀도 높은 토의와 평가를 가진 후에 각 수상분야별로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전원이 동의한 23점을 수상후보작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대상 4점과 본상 4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과 본상 선정에서 탈락된 15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건축이 갖추어야할 본질적인 가치와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issue) 및 건물의 완성도 등이 거론되었으며, 건축디자인의 그 중에서도 독창성과 건축사가 추구한 분명한 건축적 비전은 수상작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필수요건임을 모든 심사위원들이 공감하였습니다. 심사는 전 과정을 통하여 원만히 진행되어 표결에 의하기보다 토의를 통한 위원 전원 합의로 어려움 없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최종 결정은 최선의 선택으로 인한 결정이었음을 위원들 모두가 자부함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금년도의 수상작들을 일괄하여 살펴보면 예년과 크게 다름없이 각각 나름대로의 다양한 건축의 추세와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하는 점이 있다면, 두 대상수상작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극명하게 대조적인 두 가지의 경향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기념관이 보여주고 있는 경향으로, 기존의 관념과 규범의 구속에서 벗으나 자유롭게 새 시대의 건축공간과 외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을지로 119안전센터, 양평 교육원, 광주 광엑스포 주제관 등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이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경향으로, 건축의 가치를 획기적인 외형표현에서 찾기보다 절제된 단순조형 안에서의 건축언어와 내부의 공간조직을 통하여 의도하는 건축의 특성을 만들어 내는 접근법입니다.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일신한남동10 등의 건물이 비슷한 경향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 경향이 수상작들에서 균형감 있게 나타났음은 이시대의 건축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 다른 방향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가진 몇 건물도 주목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복원 재활에 성공한 명동예술극장, 도시생활의 중요한 거점으로 등장한 국립디지털도서관, 친환경건축의 이해와 보급에 기여할 그린투모로우 등 모두가 기억해야 할 건축의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주일간의 강행군 속에서 진행된 심사에 열의와 진지함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이를 지원해주신 주최 측 관계자와 건축사협회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수상작에 대한 개별심사평은 박흥균 위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김 병 현**

준공건축물부문 大賞

사회공공부문_도시축전기념관(트라이–볼)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전시장으로 건립되었고, 행사가 끝난 후에 송도국제도시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등장하게 된 건축물이다. 건축적인 조형성과 함께 그 구조적으로 대담한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장방형의 수공간(reflecting pond)위에 3개의 bowl(Tri–bowl)로 구성한 건축적인 시도는 조형성과 함께 구조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진입레벨에서는 수면을 따라 브릿지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역원추형 구조물들 사이의 외부공간은 수면에 비추이는 효과로 인하여 건축물의 강력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진입 후 내부공간은 3개의 역원추형 bowl이 결합된 무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장에 필수적이라고 이해하는 평탄한 바닥은 곡면의 벽면을 따라 물 흐르듯 놓여진 다양한 레벨의 수평 판들로 조직되어 바닥이 전시물의 수용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대형 설치작품과 영상전시, 행위예술 및 공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풍요롭고, 융통성 있는 공간이 되었다. 시공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시공의 완성도도 높이 평가된다. 이 기념관은 앞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민간부문_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전통사찰건축공간을 현대건축으로 재해석해내는 시도에 매우 의미 있는 해결을 보여주고 있다.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전통사찰의 내 외부 공간들을 입체화하여 단일 건물 속에서 다층의 집중적 공간으로 재해석해내고 있다. 건축사는 전통양식과 공간의 직설적인 재현보다 현대건축의 틀 안에서 은유와 상징을 통한 전통건축의 체험을 유도하는 데서 찾았고, 이를 놀라운 집중력과 능숙한 건축기법을 동원하여 보기 드물게 완숙한 건축으로 완성하고 있다. 중정의 수공간은 시각적으로 반사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참선과 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 공간을 주변의 풍광을 품어내는 수공간의 수면을 따라 외부로 확장시킴으로 공간적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강당의 공간구성은 특별히 주목을 끄는데, 전통사찰공간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폐쇄와 개방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 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공간 안의 공간으로 중층의 불당을 디자인함으로 창의적 재해석으로 상호 교감하는 공간적 연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섬세한 디테일링을 완성도 높게 소화한 시공사의 능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동주거부문_성남판교 대림휴먼시아(A27-1)

자연녹지에 인접한 좁고 긴 경사진 부지의 환경에서 주변의 자연수림을 단지 내로 적극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단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었다. 4~15층의 비교적 낮은 층수의 주동의 배치임에도 주동의 밀도에 비해 각 주호에서의 고른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공간의 흐름도 너그럽고 자연스럽다. 각 주동사이의 보행자 공간은 건물에 의해 압도되지 않는 편안함을 준다. 3면으로 개방된 평면을 주로 하고 있는 주동의 외관은 비교적 크게 디자인된 개구부와 가볍고 밝은 색채의 외벽과 저층부의 조적조의 벽은 그 비례와 함께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장차 개발되는 인접 단독주택단지와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동의 높이와 배치계획이 디자인되었으며 단독주택단지에서 볼 때 배경이 되는 자연녹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주어 경관을 독점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단지들과 연계하며 호흡하는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반주거부문_동탄 솔리움 타운하우스

자연공원에 인접한 연립된 단독주택단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건축사의 사려 깊은 디자인의 능력은 오늘날도 잊혀져가는 과거 전통마을의 분위기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세대 간의 조망과 내 외부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확보시키고 있으며, 기존부지의 원지형의 지표면 레벨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자인함으로 지하층레벨의 각주호로 진입하는 방법이 거주자들 간의 커뮤니티형성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고 있다. 전통주택의 사랑방이나 별채의 개념을 도입한 1층 레벨의 사랑방배치는 필로티 하부공간으로 뒷산으로부터 흐르는 청량한 바람 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어 단지 전체에 시각적인 풍성함과 함께 자연의 에너지의 혜택을 고르게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과장된 표현 없이 가족생활을 그대로 반영한 소박한 외형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조합은 좋은 리듬을 만들어 내고 있다. 건축사가 외부공간조성부터 실내디자인까지 일관되게 디자인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준공건축물부문 本賞

사회공공부문_을지로 119안전센터

동대문 디자인센터와 대형건물사이 가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소방서건물이다. 안정되고 중성적인 외관이 이런 종류의 공공건축이 지녀야할 덕목으로 여겨지는 기존관념에서 볼 때 불안정해 보이는 매스의 구성과 강한 색채로 표현된 소방서는 매우 도전적이다. 평범한 소재일 수 있는 소방서를 집무공간과 숙소공간을 분리된 매스로 표현하며 주변의 컨텍스트에서 자신의 존재를 팝아트적 오브제로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로 건조한 가로풍경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동시에 삼각형의 좁은 대지에 소방서의 까다로운 프로그램의 기능적 해석을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디자인하여, 장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서원들에게 건강하고 긍지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낸 점도 돋보인다.

민간부문_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지루하고 경직된 기존의 캠퍼스 조직 속에 새로이 계획된 도서관건물은 캠퍼스의 젊은 에너지로 충만한 중심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중앙부에 아트리움 공간을 두고 계획된 도서관의 외관은, 반투명의 U형 글라스를 사용한 유연한 곡면의 유리외벽은 그 중성적인 디자인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형태를 과시하기보다는 주위의 건물들을 수용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점이 오히려 내부의 아트리움 공간을 더욱 드러나게 하며 부드러움과 풍요함으로 캠퍼스에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비범한 건축이 되게 하고 있다. 특히 내부 아트리움의 주위 공간을 통로공간과 함께 가벼운 독서공간을 겸하도록 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도서관 건축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소음과 시각적인 간섭을 적절히 제어하게 함으로써, 빛이 충만한 도서관의 주 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공동주거부문_파주 교하 한빛마을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고층주거단지로서 다양한 주동형태와 층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자인함으로 단지 전체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하고 있다. 여유롭고 다양한 경관이 고려된 보행동선은 주민들로 하여금 규모가 큰 주동의 매스를 편안하게 느끼게 한다.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는 주동배치와 외부공간계획은 인접해있는 대공원과 공동주택단지들과의 적극적인 시각적 소통을 유도한다. 지하주차장의 조닝zoning구성과 지하보도계획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하 주차 층에서는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 다만 각 주호의 내부공간에서 더 나은 실내디자인이 되었더라면 하는 점이 아쉽다.

일반주거부문_그린투모로우

시대적인 요구인 친환경주택의 홍보를 위한 실험주택이다. 주거건축의 에너지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계획, 에너지 효율성능을 높이는 설비, 신재생에너지 및 IT기술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건축시스템, 자연친화적인 건축 재료의 사용 등으로 68개의 Green Items를 적용하였다. 건물은 무난한 보급형으로 계획되어있어 건축문화적인 측면에서 미흡함이 있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으나,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일반 소비자가 보고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건축환경을 인지하며 체험하게 한 것을 중요한 사회문화적 기여로 인정하였다. 국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LEED최고등급인 Platinum인증을 획득하였다.

준공건축물부문 優秀賞

성북 더 게이트 힐즈

북악산의 수림지대에 인접한 경사진 부지에 지어진 블록형 단독주택단지로서, 단지의 경사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세대에서 보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단지 내의 인접 주택의 조경된 지붕너머로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단지의 각 주거는 동네로서의 공동체 의식보다는 독립적으로 향유되는 여유 있는 주공간과 테라스, 완성도 높은 디테일링으로 서구적인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다.

박학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부부 2인을 위한 주택으로 연구와 교제 등 각자의 일과 생활을 고르게 담아내는 주택이다. 지하층부터 전 층이 먼 조망을 향하여 투명하게 열려진 중정은 두 사람의 움직임을 언제나 서로를 인식하게 한다. 1층 레벨의 현관과 별도로 전면도로에서 진입하는 부현관은 지하1층 레벨의 중정으로 직접 진입하게 된다. 지하 1층에는 가족실 및 작업실이 함께 있어 두 개의 현관은 부부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공간적 융통성을 부여한다. 비하여 건축의 외관은 다소 무표정하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기존의 단지설계형식을 벗어나 도시조직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계획되어진 도시형 공동주택 단지이다. 도시의 가로체계에 따라서 저층, 중층, 고층건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 배치되어 단지의 건축밀도를 여유롭게 수용하고 있으며, 건물들은 도시가로를 형성하면서 생활가로를 만들고 공원, 광장 등과 어우러지며 서로 소통하는 작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대규모 주거단지의 주요한 개발모델로 보여진다.

모노퍼스

청계천과 남산조망을 가진 세장한 도심의 대지에 건축된 도시형 임대아파트로서, 청계천변에 새로운 경관을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려하며 도시와 공간적 소통을 하는 균형감 있는 해결을 보이고 있다. 주거단위는 각 주호가 4각형의 모서리로 만나도록 하여 청계천의 종축의 조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외적으로는 주동의 매스를 가볍게 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은평가경(佳景)

경사진 지형의 원형에 순응하며 아파트의 주동타입이 디자인되어 단지의 경관을 주변의 자연과 함께 만들어 내고 있다. 급경사 부지에 위치한 주동을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를 복합하여 계획하고 완만한 부분은 중정을 가진 블록형 아파트를 배치하였다. 고층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가 복합되어진 부분의 동선처리와 조형적 디자인의 배려가 요구된다.

명동예술극장

시간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보존과 재생은 현대도시를 얼굴을 풍요롭게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시간을 축적하는 중요한 건축행위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건축물은 단지 디자인측면 뿐 아니라 문화체육부의 의지적 결단과 집행능력이 일체가 되어 탄생된 도시문화적인 이벤트임을 높이 평가하였다. 건축의 외관은 수준 높게 복원되었으며, 내부는 극장의 규모, 무대장치 및 관련기능에 적절하고 수준 높은 공간의 질을 구현하였다. 다만 로비공간은 명동의 가로로 열린 공간으로는 공연장의 규모에 비하여 협소하게 보이며, 건물외부의 복원된 입면에 대한 최소한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국립디지털도서관

무표정한 기존 중앙도서관의 전면광장에 증축된 새로운 디지털도서관은 단순한 증축사업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제공하는 도시개량사업으로 보아야하는 공공사업이다. 기존 도서관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전면가로를 향해 존재를 보이는 투명한 입면, 내부공간이 도시공간의 연장으로 확장되는 도서관홀, 여기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통되는 연속적인 공간들은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기존광장부분을 옥상녹화로 확보하여 도시환경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2010 광주 세계 광 엑스포 주제 영상관

수공간 위에 표면에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역원추형의 경쾌한 매스로 디자인되어 빛기둥들과 힘께 다양한 빛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수공간위로 유도하는 방문객의 동선은 빛의 풍경을 여유롭게 한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짧은 시간에 건축되어서인지 마감 등에서 거친 부분이 있지만 그를 감안하더라고 건축사의 디자인의 집중력과 창의적인 성취가 보인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원자력관련 병원으로 본동 및 인근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및 진료센터를 분리배치하고 있다. 저층부와 고층부의 매스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휘어진 곡면의 매스로 결합시켜 운동감 있는 조형을 만들었으며 이로써 병실의 남향배치와 건물의 정면 성을 창의적으로 성취하였다. 동시에 부지 내에 존재하고 있던 해송군락부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휘어진 곡면의 매스 사이로 중정으로 디자인해냄으로 병원의 내 외부 공간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2층의 수술회복실을 남쪽의 해송군락이 보이는 부분에 위치시킴으로 해서 수술 후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시동과 사무동의 정선대리석을 주재료로 한 두 개의 곡면 매스로 구성하고, 매스와 매스사이에 만화페스티발과 같은 행사나 평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넉넉한 외부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외부공간은 기존의 녹지축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사무동에는 지상 2층부터 층간 연속된 외부 데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 만화 창작인들과 근무 직원들의 휴식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매스의 규모에 비하여 휴먼스케일의 고려가 부족하여 외부공간을 건조하게 한 것이 아쉽다.

일신 한남동 10

글라스 커튼월을 diagonal grid형태로 멀리온을 구성하여 외관에 경쾌한 변화를 주고 있어 주변 문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층 로비와 아트리움 공간, 음악당 등의 구성은 공간기능을 상호 풍요롭게 하고 있으며 건축공간의 일부로 선정되고 전시된 미술품들과 함께 도시문화에 기여하는 문화적 공공공간이 되고 있다. 아트리움 공간은 건물의 주 공간으로 인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트리움의 주벽은 천창을 통하여 유입되는 자연광의 패턴을 하루의 시간에 따라 다르게 그려내며 아트리운 공간을 시공간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모든 디테일이 전 건물에 걸쳐 '투명함'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

양평교육원

북한강변에 위치한 건축으로 건물의 프로그램된 규모에 비하여 의도적으로 크게 보이도록 디자인된 건축물이다. 풍경으로서의 지붕매스의 구성은 건물에 대한 인상을 풍요롭게 한다. 담장과 벽의 구분 없이 여러 수직 벽을 병치시킴으로써 내외부공간의 중첩과 관통으로 풍부한공간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풍부한 건축언어와 그를 성취해내는 원숙한 디테일링으로 건축은 강변의 풍광에 스며든다.

해운대 온누리 교회

부정형한 대지의 형상과 주변의 경관의 스토리를 건물디자인에 능숙하게 녹여 내고 있다. 땅에서 시작하여 옥상의 녹지공간으로 연장되는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 동선과 다양한 레벨의 공간은 교회건축의 기능적 짜임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내부공간을 감싸는 외부 파사드의 구성은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면서도 신도시의 절제되고 개성 있는 조각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한다. 대예배당의 주진입공간인 2층의 홀과 동선공간으로, 외벽을 따라 형성된 3층높이로 오픈된 공간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은 내부공간의 공간감을 충만하게 한다.

커낼 워크

송도센트럴파크에 면하여 시작하여 1Km길이의 가진 수공간을 주테마로 한 상업시설이다. 주변에 계획되는 고층건물군 가운데 위치한 커낼워크는 20m의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4~5층의 저층으로 구성되어 수공간과 함께 휴먼 스케일을 느끼게 한다. 비교적 단순한 매스가 반복되는 구성이나 외장 재료와 창호의 절제되고 리듬감 있는 디자인은 중앙mall을 활기 있게 한다. mall의 수공간이 말 그대로 canal이 되지 못한 것과 중앙mall이 도로에 의해 끊어지는 부분이 다소 많은 것에 비하여 보행자를 위한 적극적이지 못한 배려는 아쉽다.

천주교 마산교구 마산카톨릭교육관

남해의 절경을 조망하는 산의 9부 능선에 자리 잡은 가톨릭교육관이다.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등고선을 따라 형성된 좁고 긴 대지에 중앙에 길을 내고, 교육시설과 숙소의 건물을 선형으로 양측에 배치함으로 남해의 절경을 배경으로 한 성지 같은 장소를 만들어 내고 있어 인상적이다. 이 지역에서 조달한 벽돌, 자연석 등 저비용의 재료를 사용한 간결하고 소박한 건물이지만 이 건축을 낳은 선한 인간성과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며 기억에 남는 종교적 장소성을 구현하고 있다.

계획건축물부문

□ 행사일정표

▶ 작품공모공고 : 2008. 3.16 ~ 6. 6.
▶ 접수
• 1차 작품계획(안)접수
– 1차 작품접수 : 2009. 6. 10 ~ 6. 11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7. 12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심사 :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6.14
• 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7.13
• 3차 작품설명 프레젠테이션 심사: 7.15
▶ 시상식 : 10. 20. 14:00 /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
▶ 수상작 전시 : 10. 20~24 / 장소: 킨텍스 1층 3홀

□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회귀 ; 본연으로의 회귀** Return to Nature"
– 녹색성장시대에 요구되는 친환경건축 구현
▶ 주제설명 :

배경 21세기에 이르러 산업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은 인간생활의 윤택함과 안락함을 가져왔지만, 지구환경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지구온난화와 각종 자연 재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자연에 대항하여 인간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위한 산업의 발달이 거대해져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이제는 지구의 신음이 되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단체, 국가의 영역을 넘어 지구촌 전체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근래 범세계적인 공동 인식 속에서 국제적인 공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가 2005년 발표된 '교토의정서'로써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구촌의 인식과 행동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정부나 학계에서 지구환경에 친화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방안이 모색되고, 실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유행처럼 번지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눈과 귀를 자극하는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일 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아직 많은 분야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들은 뉴튼식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적인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의 문제로 인식하여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시스템적, 전일론적, 순환론적 사고유형을 가진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먹거리와 공산품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에 환경 친화적인 재료와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단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건축 분야에서의 환경 친화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조합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환경을 공급하여 조화롭게 상생하자면 보존이 최선이고, 건축은 어떠한 목적과 수단이든지간에 자연을 파괴함으로 시작되는 행위이므로 친환경 건축이란 나란히 서있기 힘든 단어의 공생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은 필요하며, 건물을 짓기 위한 환경 파괴는 불가피하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로 자연과 상생하는 건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축의 가장 조화로운 접점을 찾는 것이 환경 친화 건축, 이 어색한 동거를 아름답게 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는 자연과 함께하며 자연 속에서 그 건축물은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환경과의 조화를 구현하였다. 공간의 구성, 자연소재, 내외공간의 상호관입, 공간연계 등의 한국적 전통미의 현대화가 요구되며, 공간과 시간, 인간 사이에서 생태와 행태, 형태의 3요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 가느냐에 대해 많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최근에 남발하는 친환경의 주제를 뛰어넘어 자연과 인간과 건축, 본연의 의미를 상고하고, 건축적인 어휘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실제 지구환경에 가장 조화롭고 적극적인 새로운 건축의 접근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실현가능한 건축적 모델을 제시하게 되길 기대한다.

전제 1 지구 환경, 즉 기후, 지형, 태양, 대지, 수목, 물, 공기 등 가장 본연의 조건을 이용하여, 인간이 생활하고 자연이 지속하기 가장 적합한 형태를 디자인으로 형상화하여 새로운 건축의 모형을 제안한다.

전제2 대지는 자유로우며, 자연의 일부분이거나, 이미 생성된 건물이나 도시를 개선하는 방향도 가능하다.

▶ 출품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작품접수
▶ 작품계획안 A2(가로42.0㎝×세로59.4㎝ – 종방향으로 구성)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 작품계획안은 전면 우측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계획안 폼보드 · 우드락 부착 불가)
▶ 작품설명서 1부(A4 1매)
• 작품설명서 전면 우측상단에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야 하며, 참가신청 작품명 · 작품계획안 · 작품설명서 제목이 동일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의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2차 작품접수
▶ 패널 A0(가로84.1㎝×세로118.9㎝ – 종방향으로 구성) 1매
– 작품계획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
• 패널 두께는 1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폼보드 및 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 패널 전면 우측상단에 1차와 같은 양식으로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 모형
(가로×세로 80㎝×80㎝, 높이 50㎝ 이내 – 모형대 제출 및 외부전원장치 지원 불가)
• 모형접수번호는 접수현장에서 부착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의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 심 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

이 각 표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_ 위원장
박 찬 정 (주)지디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주 권 삼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신 정 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대표
권 연 하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대표
고 은 영 건축사사무소 가진 대표
박 재 웅 박재웅 건축사사무소 대표

□ 시상내용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우수상 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명단

□ 계획건축물부문

大賞(국토해양부장관상)

• **공생** 조흥래, 최용기, 옥민진(동아대학교 건축학부)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자생적 삶을 위한 제로 커뮤니티** 심창경, 유양현, 소재남(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와 천 그리고 학교, 그곳에서 쉬다** 이수정(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김용규(아주대학교 건축학과)
• **자연스러운 자갈치** / 이상호, 김용찬, 김주란(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침식된 경사지를 회복시키다** / 김진성, 오준호, 양지훈(전남대학교 건축학과)
• **땅으로 내리고 물로 뜨다(신곡양배수장 리노베이션 계획)** / 정하영(인하대학교 건축학과)

特選(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자연발생형 도서지역의 생태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안** / 정수진, 우종희, 박윤동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난지 새로이 꽃피다** / 김성중, 양희진, 송대한(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 **존속[存續] – 중지도에 바람이 불다** / 이준희, 정민화, 손재현(계명대학교 건축학과)
• **랜드스케이프 카펫** / 강성엽, 곽남윤, 양승일(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자연으로 스며들다** / 장하종, 정재철, 오수민(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오감과 함께한 청계천 만들기** / 유영수, 위대한(경원대학교 건축학과)

入選(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자연 위를 거닐다**/ 천진호(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과)
• **훼손된 자연의 재생과 삶의 공간으로의 유입의 계획안** / 백연자(목포대학교 건축학과)

-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_친환경적 추모공간을 통한 공원화 계획** / 심광기(국립 한밭대학교 건축학 전공)
- **조수간만으로 변화하는 포구도시 군자만** / 김남수, 이상윤, 김정은(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공존(共存)** / 정다혜(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잊다, 그리고 잇다** / 채가영, 김장한(계명대학교 건축학과)
- **그린 스케치** / 전봉수, 박주석, 박찬우(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 **그만파라, 마이 아프다!** / 한아름, 고은옥(목원대학교 건축학과)
- **자연과 하나가 되다** / 현미주(부경대학교 건축학전공)
- **낙동강 나루터복원을 통한 문화친수공간 계획안** / 김현진(지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석경훈(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우물터 –잃어버린 사람 터–** / 장원주, 박찬일, 전성환(중앙대학교 건축설계학과)
- **도시와 자연 사이, 폐부두의 풍경** / 정유미(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기억의 씨앗을 심다** / 김나연, 최보민, 정일석(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낙산공원의 자연요소와 대학로 예술문화의 결합을 통한 산동네 개선 방안** / 황현혜(홍익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과)
- **아이야, 자연을 품에 안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자!** / 임나정, 이민지, 김관중(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자연 : 날 건들지마** / 한상희, 박천범, 김영후(목원대학교 건축학과)
- **호혜적인 경계** / 백승엽(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 자연의 품에서 공간을 만들다** / 민영철, 주현돈(목원대학교 건축학과)
- **그대로 흐른다** / 최헌, 박초아(목원대학교 건축학과)
- **회현 시민아파트, 자연으로 돌아가다** / 김규엽(영남대학교 건축학과)
- **장항, 단비로 적시다** / 윤진용, 윤재훈(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올해의 건축문화인상(국토해양부장관상)

이 순 조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승건축(주) 대표

◻ 공로상

임 종 권 전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심 사 평

이 각 표 /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장

미국 코네티컷 주 뉴런던에 있는 '노틸러스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최초의 핵잠수함 SSN–571 노틸러스호는 1954년 진수식을 한 후 1980년 퇴역할 때까지 세계 최강의 잠수함으로 미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지만, 원래 1870년에 출간된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의 공상과학소설 '해저 2만리'에서 무한 잠항이 가능한 현대식 원자력 잠수함의 개념이 그대로 현실화 된 것이고 노틸러스란 이름도 소설 속의 잠수함이름 그대로입니다. 소설 속의 상상력이 현실로 돼버린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출품작 330점을 보면 전반적으로 독창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양해서 심사기간 내내 즐겁고 신선했습니다. 응모한 분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독창성이야말로 미래 우리 건축문화를 꽃 피울 귀중한 오늘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에서 내건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회귀」는 무척 어려운 과제였지만,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짓되 – 자연과 인간과 건축이 어떻게 조화롭고 친환경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는가? –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건축에 있어 항상 머릿속에서 맴도는 선승의 화두일 것입니다. 응모한 대다수 작품 속에서 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였고 대체적으로 역량 있게 처리를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응모작들은 주제와 동떨어졌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어색한 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작품성 여부와 관련 없이 1차 심사에서 탈락되었으며, 또한 작품에 대한 논리적 빈곤과 기본적으로 꼭 표현해야만 할 건축적요소의 결핍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설 속에서 노틸러스호 선장 네모가 해양생물학자 피에르 아로낙스에게 무한 잠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작가의 과학적인 지식과 통찰력, 상상력, 독창성 등이 소설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84년 뒤에는 개념이 현실로 실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소설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도 자신의 작품에 생명을 주려면 건축적 논리와 기본적 요소가 탄탄히 작품 속에 자리 잡아야 하고, 앞으로도 작품생활을 하는 동안 늘 고민해야 하는 만큼 더욱 정진해주기를 바랍니다.

CG를 비롯한 표현기법, 모형제작의 완성도는 심사위원 모두 감탄할 정도로 훌륭하였으며, 특선이상 작품 중에서 대상, 우수상들을 가리기가 무척 힘들었을 정도로 우열차이가 크게 없었다는 데에도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했었습니다. 이번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응모자들과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내내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동료심사위원님,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준비한 대한건축사협회 담당 관련 직원과 특히 대한민국 건축계 최고권위의 상으로 매김 하도록 후원해주신 모든 기관께 감사드립니다.

권 연 하 /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새 학기 시작 전 주제문을 작성하면서 많은 우려를 하였다. 기성 건축사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를 던지면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많은 응모 작품들이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나마 입선작으로 선정된 작품들도 2차 작품 설명회에서 향은 어떻게 되고 용도는 무엇이며 각 실의 실명은 무엇이고 등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획방향을 가이드 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도시계획이나 단지계획만 제출한 응모작이 많아서 안타까웠다.

주제만 충분히 이해하고 응모했다면 최소한 입선 될 작품들이 낙선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설계 지침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될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최종심사시, 1) 주어진 주제의 이해와 표현여부
2) 건축적 해결방법과 디자인 능력
3) 패널, 모형의 완성도 및 표현기법
4) 자기 작품의 이해도와 표현능력 등으로 가중차등을 두어 평가 하였는데,

대다수 작품들이 2) 건축적 해결방법과 3) 표현기법 등은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1) 주제의 이해와 4) 프레젠테이션은 모든 작품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공생"의 경우 건축적 해결방법과 디자인능력이 높게 평가 되었으며 아쉬운 부분은 주변 환경과 조화부분으로 주변 소형 건물군과 좀 더 어울릴 수 있도록 단위건물을 좀 더 작게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또한 상위 작품으로 "자생적 삶을 위한 제로 커뮤니티"는 앞으로 도시근교 그린벨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며 현재 진행 중인 보금자리주택의 아파트 일색인 개발의 틀을 깰 수 있는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도시와 천 그리고 학교 그곳에서 쉬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잘 계획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낙선한 작품 응모 팀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찬 정 / (주)지디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우선, 출품을 위해 애쓰신 건축학도들 모두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3차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차수가 거듭 될수록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문제해결이나 제안을 위한 고뇌와 열정을 보다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획과정을 통해 세상과 대상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실현 될 수 있는가가 우리의 합의된 지향점이라면, 단순히 이성적, 선험적 기준만이 아닌 건축 계획자로서 공간감이나 미감 등이 장차 체화될 수 있을지의 다소 주관적인 관점 또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상작 모두, 주제에의 부합성이나 사회적, 건축적 문제의식 및 안목 등에 우수한 점이 있는 반면, 달리 그렇게도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창의적 작품 부족이 다소 아쉬웠고, 일부이기는 하나 의도적(?) 사실왜곡의 표현은 장차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와 그 근거, 전체 풍경의 변화 등 종합적 시각 보다 대상물 위주의 시각에 머물렀던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상작 '공생'은 주변 지형과의 다양하고 자연스런 건축적 연계나 소통성 문제, 다소 과도한 스케일 등 이견이 있었으나, 주제에 대한 건축적 대안, 전통성 및 지역성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현대적 계승, 공동체성의 제고라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사회적, 자연적 제 요소의 균형적 조합과 활용(369번), 기존 환경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장소 만들기(019번), 나름의 프로그램 설정과 건축적 정리(109번), 다소 무리해 보이나 회복의 주제를 잘 살린 점(267번), 건축적 감각과 잠재력을 보여준 것(200번)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험자로서 보다 나은 본보기나 메시지를 보여주지 못한 책임감도 함께 느껴졌으나, 어려운(?) 건축적 현실에서 열심히 연마하는 후학들을 볼 때, 기성 건축인 모두의 분발과 함께 바람직한 환경과 건축을 위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제안의장(場)으로 성장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박 재 웅 / 박재웅 건축사사무소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의 수많은 개체들이 멸종의 길을 걸어왔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50%에 가까운 생명체들을 사라지게 했고(가장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갯벌 간척사업이다) 지금도 인간에 의한 지구환경 파괴행위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김민기 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처럼 우리 인간은 연못 속의 작은 물고기는 아닐까?

올해의 주제 〈본연으로의 회귀〉와 작년(2009년)의 주제 〈치유와 회복〉은 인간이 파괴한 우리들의 보금자리(지구환경)를 본연의 모습으로 가꾸자는 친환경 · 녹색성장의 시대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을 받아 세수하고, 장독대 위에 쌓인 눈을 한 움큼 집어먹던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을까? 어려서부터 산성비의 위험을 교육받고 그리하여 비는 맞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온 세대에게 본연으로의 회귀는 어떤 느낌을 줄까? 라는 생각이 심사 전부터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주었다.

작년보다는 다소 적었지만 330여개의 출품작들을 접하면서 주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분석, 목표의 설정, 창의적 사고, 건축에 대한 기술적 능력, 작업의 완성도 등을 최대한 살피려고 노력하였지만 마치 일기장을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본질은 보지 못하고 외형만 살핀 우(愚)를 범한 것은 아닌지…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 모두에게 상을 줄 수는 없지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한 참가자들 모두에게 작품전은 삶의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다. 심지어는 물고기도 어종에 따라 강한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탄성체가 탄성의 범위를 벗어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듯이 지구환경도 치유의 단계를 벗어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위해 수많은 생명체를 멸종시키는 어리석음은 작은 연못속의 물을 썩게 만드는 물고기와 같다.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번 과제의 화두였고, 향후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본질인 것이다. 〈본연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를 가슴속에 담고 함께 걸어온 모든 참가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신 정 철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계획건축물부분의 주제가 다소 난해하고 철학적이어서 학생들이 주제를 해석하고 작품의 방향을 선정해 가는 과정들이 염려되었지만 다수의 출품자들이 주제와 연관한 시대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작품의 장소성과 건축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은 우리 건축계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보는 눈과 건축적인 이해의 폭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슴 뿌듯한 현장이었으며,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축의 본질적인 구현을 염두에 두고 주제를 해석하여 인문적이고 건축적인 본연의 회귀를 지향한 많은 작품 속에 배어 있는 그동안의 수고와 땀의 흔적위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아쉬웠던 점은 금번에 출품된 대 다수의 작품이 concept 위주로 작품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시키다 보니 작품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concept를 전개해나가는 프로세스는 우수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을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나가는 고민의 흔적과 학생다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성찰이 다소 부족하여 건축적인 프로그램의 기능을 소화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빈약했던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공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작품의 표현력은 대부분 학생들의 수준이 프로들 못지않게 훌륭한 수준이었고, 몇몇 작품의 표현과 모형들은 학생작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놀라워 앞으로가 기대되는 예비 작가들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과 조형적인 어휘의 선택에서 다수의 출품자들이 기성 작가들이 사용하는 디자인 언어를 답습하여 디자인을 전개한 까닭으로 심사 과정에서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이 훌륭해도 입선작에서 제외 된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시류를 초월한 학생다운 창의성과 기본에 충실한 아이디어를 디자인어휘로 발전 시켜나가는 트레이닝이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세기는 많은 분야가 경계를 허물고 타 분야와 상생의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건축은 그 시대가 만들어낸 정신과 철학과 예술과 기술과 인문 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문화의 산물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미래인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야할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래 세기의 건축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준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 여러분 모두와 대한민국의 건축을 함께 만들어 가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건축의 힘을 보여주는 건축계의 대표선수로 성장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건축계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이 주 권 / 삼희 종합건축사사무소

응모작품을 통해서 출품자들의 건축적인 사유와 열정을 느껴보는 것은 심사위원으로서 큰 보람입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지속가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인간과 건축 본연의 의미를 상고하고, 건축적인 어휘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건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주안점으로 작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역이나 부지의 발굴과 공모주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도시계획적 측면, 환경과 생태적 측면 그리고 건축적해석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품을 통한 일상의 도시, 일상의 마을, 일상의 삶에 대한 건축적 해결방안과 실현성에 대한 평가.

본상 수상작품의 대부분이 주안점에 높은 평점이 가능했으며, 출품자의 건축적인 사고, 환경 생태학 측면의 사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적인 사고에서도 상당한 깊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 "공생"은 재개발로 부터 기존의 도시현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려할 수 있게 한 부지의 활용방안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의 복원과 순응을 콘셉트로 한 프로그램은 출품자의 노력과 건축지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 "도시와 천 그리고 학교, 그곳에서 쉬다"는 복원된 청계천의 물길을 끌어 들여서 건축적으로 사적 공간과 공공성이 공존할 수 있는 청계천주변 도시환경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작품 "자연스러운 자갈치"는 도시맥락에서 장소의 기능을 분석하고, 수변경관 건축계획에 환경요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통건축의 반외부 공간의 구성기법을 적용하여 적합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형상화한, 건축계획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작품 "침식된 경사지를 회복시키다"는 도시화로 침식된 녹지공간과 자연공간의 회복 방안의 제시로 열악한 도시기능의 개선과 환경의 회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침식된 자연공간의 회복 방안으로 인공지반 조성 방식의 녹지공간 회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인공지반과 원지반의 중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생태적인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고 보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품 "자연발생형 도서지역의 생태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안"은 개발이 예상되는 도서의 자연취락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문화 및 환경 생태학적으로 수준 높은 지식과 사고로 도시화과정의 이론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서의 순환도로를 도시외곽을 순환하는 고가 입체도로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의 기본 콘셉트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총 330개의 응모작을 심사하면서 출품자의 건축에 대한 지식, 열정, 사명감, 그리고 폭넓은 사고와 재능을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응모자의 미래의 모습과 작품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고 은 영 / 건축사사무소 가진

매년 수백 명의 건축학도들이 하얗게 밤을 지새운 흔적들로 가득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출품작들은 올해도 역시 그 열기만으로도 초반부터 심사위원들을 긴장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본연으로의 회귀_RETURN TO NATURE'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최근 남발하는 친환경의 주제를 뛰어넘어 자연과 인간과 건축, 본연의 의미를 상고하고, 건축적인 어휘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조화롭고 적극적인 새로운 건축의 접근을 도모하고, 실현가능한 건축적 모델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며 주제를 결정하였고, 이에 학생들은 다양한 접근과 실험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기대하지 못했던 시도와 아이디어들은 소중한 수확이 되었다.

우선 주제를 해석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역사적인 회귀, 사회적인 회귀 등 인문학적으로 주제를 해석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 된 것을 보면서 신세대의 유연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때론 시대적, 사회적, 혹은 지역적으로 큰 이슈와 관심이 집중되는 대지에 도전함으로 기성작가들에게 자극이 되는 작품도 있어, 우리 건축학도들의 관심이 이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사회를 아우르고자 하는 성숙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든든하고 건축계의 미래에 희망을 엿 보게 되었던 것 같다.

다만, 건축이라는 실제적인 명제를 대함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성실한 해석이나 동선에 대한 고민, 또는 사용자를 고려한 진지한 프로그래밍에 충실하기보다는, 표피에 치중한 표현 중심, 사용자가 배제된 작가 위주의 공간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기성작가 흉내 내기, 내용 없이 외피만 치장하는 것, 멋으로 포장된 안타까운 작품들은 씁쓸하고 서글픈 교육 현실을 돌아보게 하여 마음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12작품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상당히 진지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자신들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젊은 미래들의 패기는 그들의 미숙함을 뛰어 넘는 힘이 있었고, 당선작과 탈락작을 막론하고 모든 작품의 패널을 빼곡히 채웠던 그들의 도전과 열정은 한 작품도 함량 미달이 없이 참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 건축계의 튼실한 기둥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젊음의 한 시절을 건축이라는 거대한 덩어리와 씨름하며 미래를 지어나가는 이 나라의 모든 건축학도들이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시간과 놀라운 공간들이 눈앞에 펼쳐질 날들을 상상하며 건축학도들의 젊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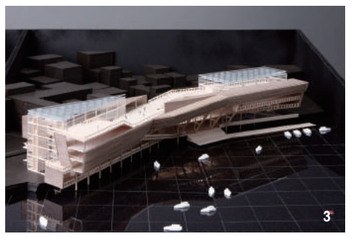
大賞

공생 _ 조흥래, 최용기, 옥민진 /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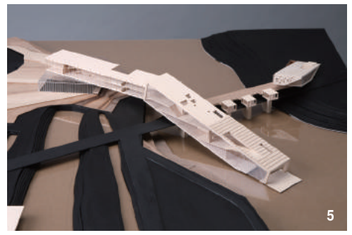
優秀賞

1

2


3

4


5

1. **자생적 삶을 위한 제로 커뮤니티** _ 심창경, 유양현, 소재남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2. **도시와 천 그리고 학교, 그곳에서 쉬다.** _ 이수정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김용규 /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3. **자연스러운 자갈치** _ 이상호, 김용찬, 김주란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4. **침식된 경사지를 회복시키다** _ 김진성, 오준호, 양지훈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5. **땅으로 내리고 물로 뜨다. (신곡양배수장 리노베이션 계획)** _ 정하영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特選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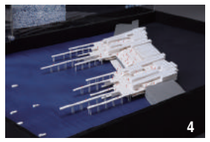
1. **자연발생형 도서지역의 생태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안** _ 정수진, 우종희, 박윤동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2. **난지 새로이 꽃피다** _ 김성중, 양희진, 송대한 /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3. **존속[存續] – 중지도에 바람이 불다** _ 이준희, 정민화, 손재현 /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4. **랜드스케이프 카펫** _ 강성엽, 곽남윤, 양승일 /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5. **자연으로 스며들다** _ 장하종, 정재철, 오수민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6. **오감과 함께한 청계천 만들기** _ 유영수, 위대한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入選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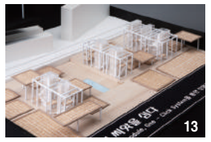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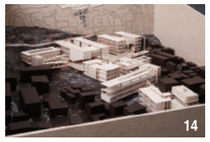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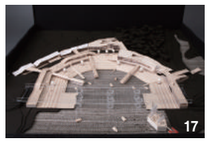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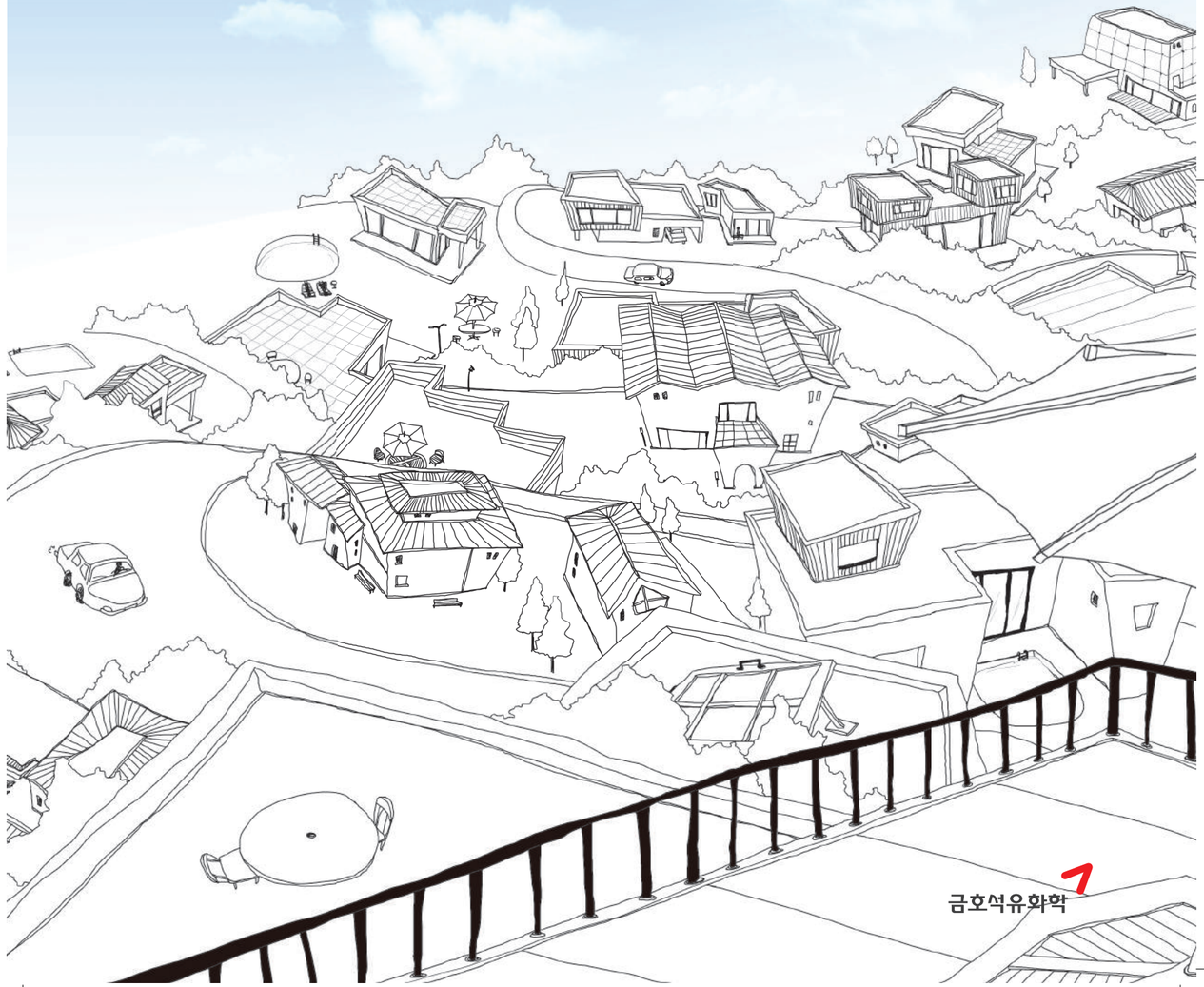
21

01. **자연 위를 거닐다** _ 천진호 /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과
02. **훼손된 자연의 재생과 삶의 공간으로의 유입의 계획안** _ 백연자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03.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_친환경적 추모공간을 통한 공원화 계획** _ 심광기 / 국립 한밭대학교 건축학 전공
04. **조수간만으로 변화하는 포구도시 군자만** _ 김남수, 이상윤, 김정은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05. **공존(共存)** _ 정다혜 /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06. **잊다, 그리고 잇다** _ 채가영, 김장한 /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07. **그린 스케치** _ 전병수, 박주석, 박찬우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08. **그만파라, 마이 아프다!** _ 한아름, 고은옥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09. **자연과 하나가 되다.** _ 현미주 / 부경대학교 건축학전공
10. **낙동강 나루터복원을 통한 문화친수공간 계획안** _ 김현진 / 지오디자인 건축사 사무소, 석경훈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11. **우물터 –잃어버린 사람 터–** _ 장원주, 박찬일, 전성환 / 중앙대학교 건축설계학과
12. **도시와 자연 사이, 폐부두의 풍경** _ 정유미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13. **기억의 씨앗을 심다** _ 김나연, 최보민, 정일석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14. **낙산공원의 자연요소와 대학로 예술문화의 결합을 통한 산동네 개선 방안** _ 황현혜 / 홍익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과
15. **아이야, 자연을 품에 안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자!** _ 임나정, 이민지, 김관중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16. **자연 : 날 건들지마** _ 한상희, 박천범, 김영후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17. **호혜적인 경계** _ 백승엽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18. **건축, 자연의 품에서 공간을 만들다** _ 민영철, 주현돈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19. **그대로 흐른다** _ 최현, 박초아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20. **회현 시민아파트, 자연으로 돌아가다** _ 김규엽 / 영남대학교 건축학과
21. **장항, 단비로 적시다** _ 윤진용, 윤재훈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www.hugreen.kr

"내가 그리는 나의집"

휴머니즘 인테리어 Hu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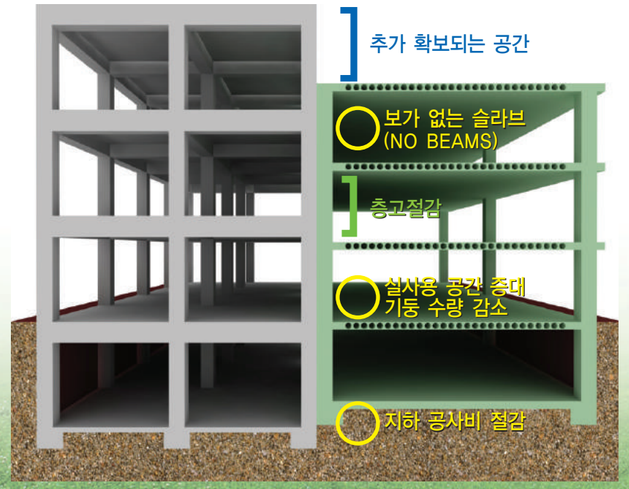
금호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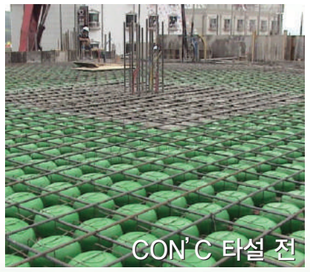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테크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87-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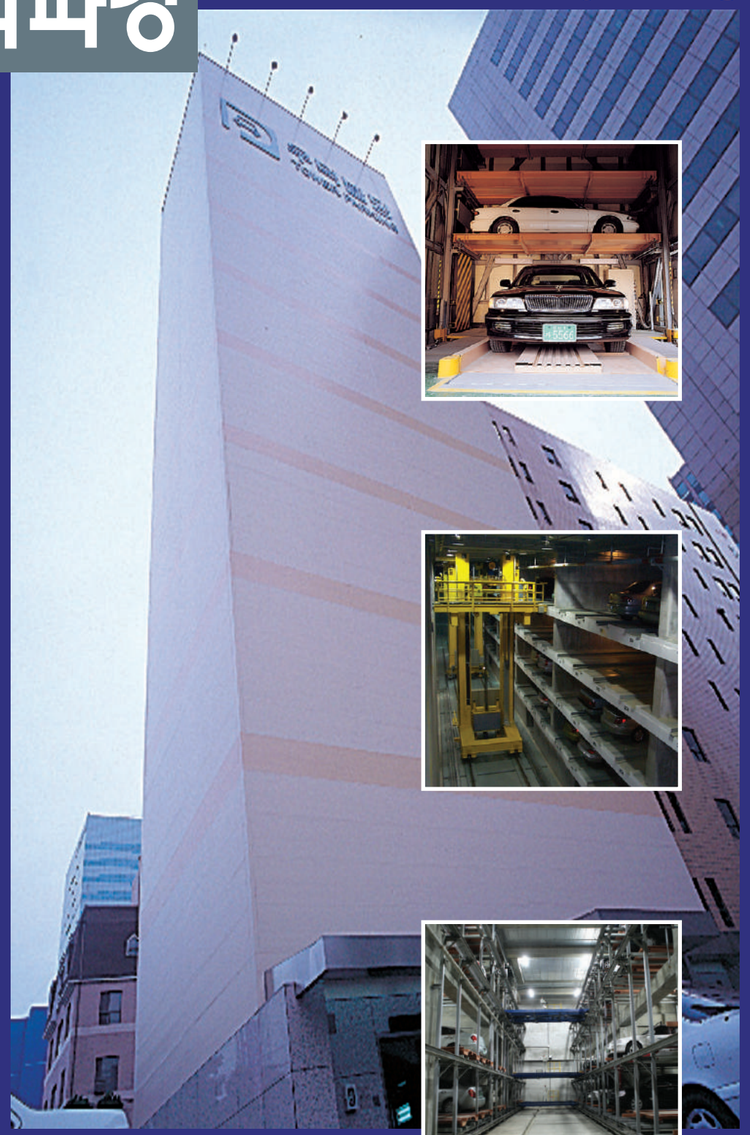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삼성애니파킹

SAMSUNG Any-Parking

- ▶ 엘레파킹
  승강기방식
- ▶ 박스파킹
  다층순환방식
- ▶ 카트파킹
  평면왕복-파레트방식
- ▶ 트롤리파킹
  평면왕복-무파레트방식
- ▶ 트랜스로파킹
  승강기슬라이드방식
- ▶ 셔틀파킹
  평면왕복-초고속형
- ▶ 스퀘어파킹
  수평순환방식
- ▶ 타워파킹
  수직순환방식
- ▶ 로터리파킹
  수직순환방식
- ▶ 프리파킹
  경량철골자주식
- ▶ 주차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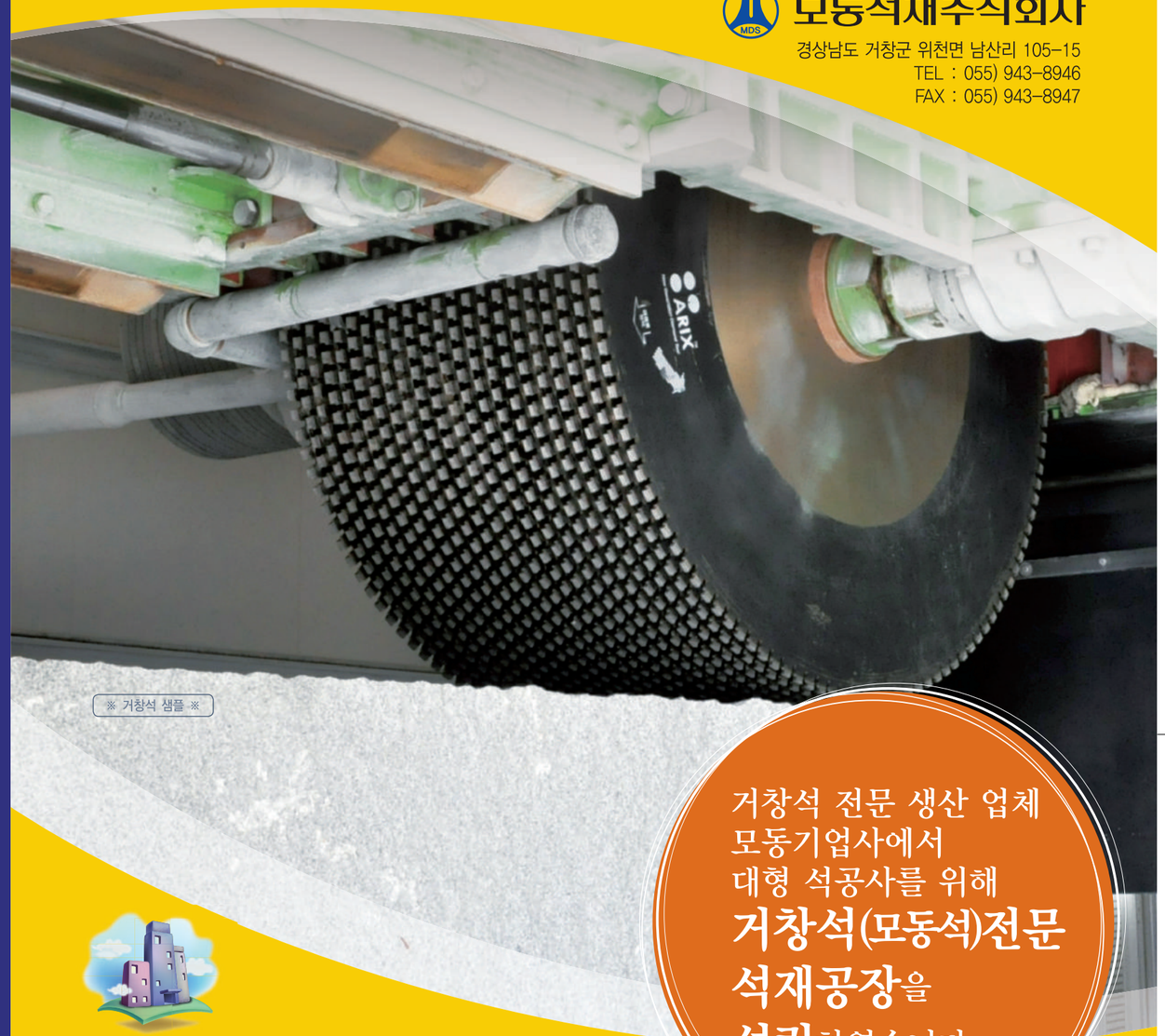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기계식주차설비 30년 삼중테크!!
비교를 거부하는 "신뢰"를 드립니다.

SAMJUNG 삼중테크
Parking Solu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2 동영문화센타빌딩 9층
Tel. 02-568-3942 Fax. 02-568-1795
http://www.samjungtech.com

- **창원연구소** : 경 상 남 도 창 원 시 신 촌 동 6 9 TEL. 070-7012-4521
- **김포공장** : 경 기 도 김 포 시 대 곶 면 초 원 지 리 5 4 2 - 2 TEL. 070-7011-8915
- **부산지점**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660-1 한신밴오피스텔 1120호 TEL. 051-811-2268
- **대구지점**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056번지 삼성물산 내 TEL. 053-550-1150
- **대전지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5-6 현대리조텔 911호 TEL. 042-822-8834
- **광주지점**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1 우미프라자 2층 108호 TEL. 062-366-2177



모동석재주식회사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5
TEL : 055) 943-8946
FAX : 055) 943-8947

거창석 전문 생산 업체
모동기업사에서
대형 석공사를 위해
거창석(모동석)전문 석재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영호남 최대 규모의 석재가공공장
모동석재주식회사
월평균 판재 생산량(약20,000㎡)

오랜 기술과 대형 석공사 실적을 자랑합니다.
어떠한 공사 물량과 가격에도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모동석은 각종 관급공사 선호도 1순위의 우수한 품질의 석재입니다.

주요생산품목	규 격	가 공
판 재	20T, 30T, 40T, 50T, 60T이상, 100T	버너 / 물갈기 잔다듬 완제품
사구석	100T	

모동석의 특징

- 물성-건축 및 토목시공에 적합한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화학적 풍화에 가장 안정된 석재입니다.
- 녹 발생률이 아주 적은 안정된 석재입니다.
- 변질 및 파열성 정도에 따른 석재등급 분류에서도 가장 우수한 A급 석재입니다.
- 자연 방사선 함량이 낮은 친환경 석재입니다.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展

2010. 10. 20~10. 24
일산 KINTEX 제3홀

시상식 _ 10. 20 14:00
리셉션 _ 10. 20 15:30

kaa.kira.or.kr

주최 _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주관 _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_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건축문화대상展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 도시축전기념관 (트라이–볼)
-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 성남판교 대림휴먼시아(A27–1)
- 동탄 솔리움 타운하우스

본 상

- 을지로 119안전센터
-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 파주 교하 한빛마을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 그린투모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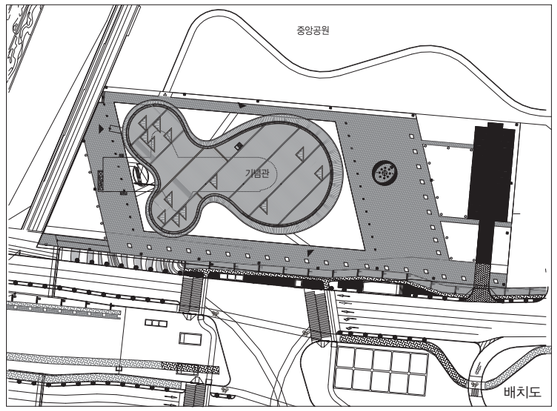
우 수 상

- 성북 더 게이트 힐즈
-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 은평가경(佳景)
- 국립디지털도서관
- 2010 광주 세계 광 엑스포 주제 영상관
- 일신 한남동 10
- 해운대 온누리교회
- 천주교 마산교구 마산가톨릭교육관
- 박학재
- 모노퍼스
- 명동예술극장
-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 한국만화영상 진흥원
- 양평교육원
- 커낼 워크

도시축전기념관(트라이-볼)
Incheon Tri-bowl

• 설계자 : 유걸(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 건축주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6번지	연면적 2,892.95㎡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25.68%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용적률 17.19%
대지면적 12,300.3㎡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3,159.3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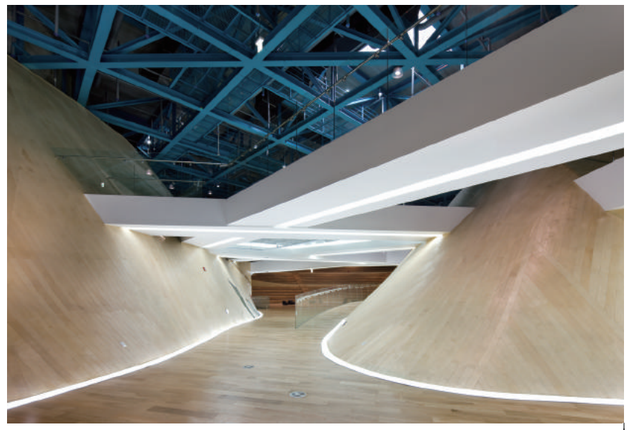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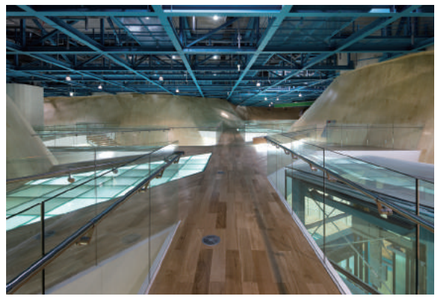
배치도

인천 트라이-볼, 도시축전 기념관은 건축공간의 일반적 이해를 뒤집어 놓은 건축물이다. 평평한 바닥에 벽과 천장의 변화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일반 건축공간과 달리, 평평한 천장 밑에 자유로운 곡면의 바닥이 만들어진다. 이 기념관은 전시공간으로 사용되며, 계획초기에 넓은 천장은 전시를 위한 면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바닥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 구조물은 장방형의 수경(reflecting pond) 위에 떠있고 관람객들은 긴 브리지를 통해 구조물의 밑을 지나 진입하게 된다. 방문객들의 동선은 들어가고, 올라가고, 돌고, 건너고, 내려가는 식의 연속된 입체 브릿지의 궤적 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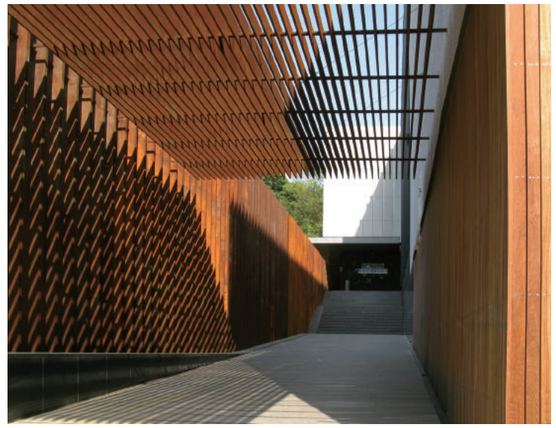
내부공간은 크게 전시 · 공연공간과 휴게 · 서비스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 · 공연공간은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방문객들은 천장구조물에 매달린 전시물을 입체 브릿지의 궤적을 따라 움직이면서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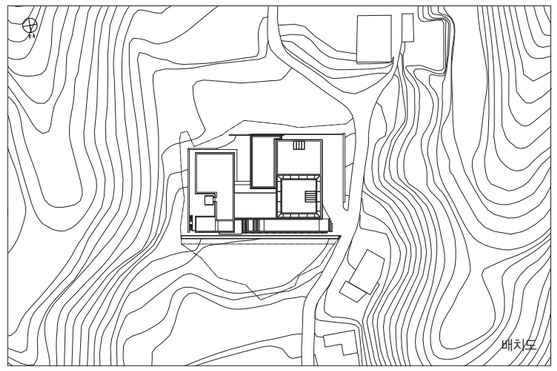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Tanheo Memorial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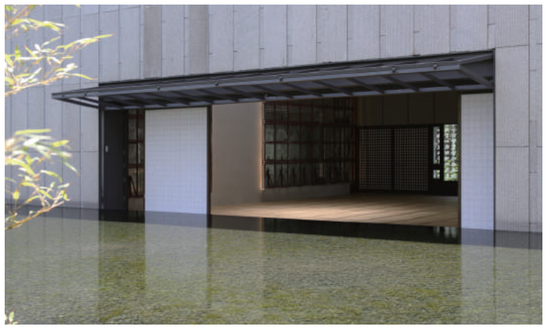
• 설계자 :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 시공사 : 주식회사 성영종합건설 • 건축주 : 안동수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대지면적 1,984.28㎡
건축면적 987.04㎡
연면적 1,498.58㎡
건폐율 49.74%
용적률 62.98%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철골콘크리트



배치도



탄허대종사

한국의 고승이자 불교학자인 탄허스님은 선교일체의 융합사상에 의해 선은 교의 뿌리이고, 교는 선에 이르는 율부로서 그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불교의 기본 경전을 모두 번역하였고, 경전 강의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에게 경학사상을 심어 주었다.

스님의 문도와 추앙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스님의 법음이 전해지는 요람이 될 이곳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다.

단순히 스님을 추앙하고 기리는 공간이 아니라 스님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학문을 통해 불자의 길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인재불사와 역경사업에 전념한 스승의 뜻을 기리는 기념관인 동시에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아 인재불사를 실천하는 강학공간인 것이다.

부지현황

수서역에서 분당방향으로 1km 남짓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부지는 대모산 북사면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리하고 있다. 부지 전면(북측)으로는 단독주택지와 일부 텃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오른편(서측)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 그리고 뒷쪽(남측)으로는 교회부지와 맞닿아 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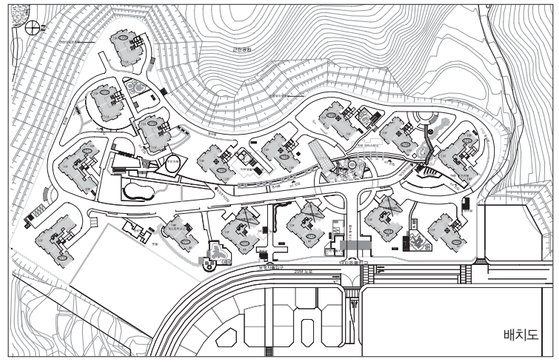
북향의 좌향, 불리한 여건의 주변 인접시설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12m의 높이제한과 450평이라는 면적제한 속에서 통상적 기념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경전학당, 불당 및 선원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불교의 귀중한 진리를 배우고, 동시에 자기수행을 위한 선교일체의 열린 장소로, 프로그램의 적층과 공간의 가변성을 통해 전시+교육+예불공간 등이 하나로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계획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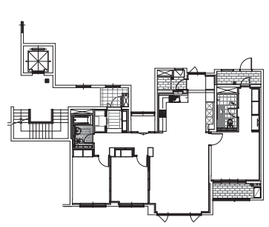
성남판교 대림휴먼시아(A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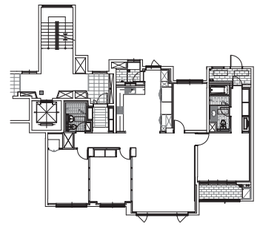
Seongnam Pangyo Daelim-Humansia(A27-1)

• 설계자 : 정영균(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대림산업(주) • 건축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5번지	연면적 70,154.75㎡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건폐율 18.08%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115.71%
대지면적 42,057㎡	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건축면적 7,603.7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101M2-A 단위세대 평면도


117M2-A 단위세대 평면도

부지는 판교택지개발지구의 동측, 동판교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1.5Km 이내에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판교IC가 위치하고 있다.

개발계획 방향으로는

첫 번째, 동판교 물순환 체계 및 근린공원과 연계한 자연친화 공간계획 _ 부지 서측 근린공원의 우수한 조망과 생태환경을 연계하여 수공간 체험학습장과 근린공원과 연계된 단지내 산책로를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하고, 가족광장은 자연지반으로 조성하여 녹지 및 물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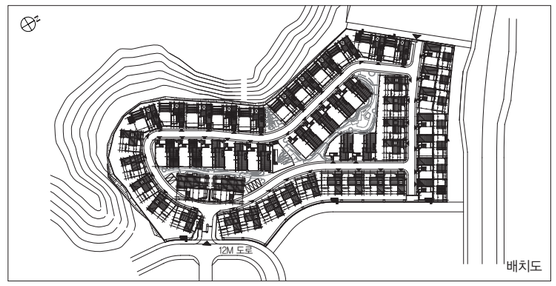
두 번째, 통경축 확보 및 근경 · 중경 · 원경의 경관창출을 위한 배치 및 주동계획 _ 자연, 인간, 경관 친화 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탑상형 주동을 적극 배치하여, 서측 근린공원으로의 통경축 확보 및 세대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 했으며, 단지전체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시원스런 외부공간 연출 및 단지내 광장을 거쳐 남측공원을 바라보는 수직 통경축을 확보하여 경관친화 단지를 구현하였다.

세 번째,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과 광장, 안전한 보행 공간 조성계획 _ 단지 출입구를 시작으로 마을 중심길과 보행로를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들을 배치하여 인간친화 단지를 계획했다. 근린공원 및 수공간 주위에 인포넷 센터, 문고 및 주민카페를 포함한 유리온실을 배치하였고, 가족광장을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경로당 및 주민카페 등을 집중형 으로 배치하여, 주민들과의 불어 사는 삶이 구현되는 인간친화 공간 및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지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카페테리아와 커뮤니티 시설을 데크와 연계 입체적으로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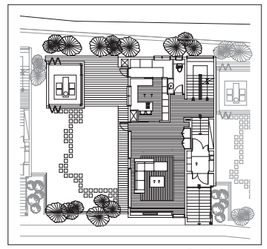
동탄 솔리움 타운하우스
Dongtan Solium Town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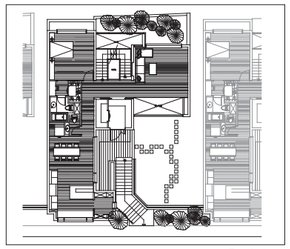
• 설계자 : 서윤주(주.디안 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청도건설(주) • 건축주 : 청도솔리움(주)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61, 164번지
지역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용도 단지형 단독주택
대지면적 18,214.30㎡
건축면적 6,326.99㎡
연면적 17,224.16㎡
건폐율 34.74%
용적률 61.4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배치도


A-TYPE 1층 평면도


B-TYPE 1층 평면도

사람… 자연… 그리고 건축

본 대지는 동탄 신도시에서 단독주거단지로 지정된 블록 내에 입지하여 인근의 유사한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거 단지와의 차별화와 아파트 위주의 현재 주거형식에서는 아직 낯선 타운하우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해야 했다. 오밀조밀한 담장과 골목길 그리고 하늘과 마당을 품던 '집'에서 어느새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주거'의 전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아파트도 아니면서 완벽한 단독주택도 아닌 타운하우스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자연과 사람을 이 단지의 출발선이자 종착점으로 보고 시작한 이곳은, 지구단위 지침 상 단지 세대수가 정해져 있는 사업의 한계에서 용적률을 낮추고 녹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주가 경제성과 수익성을 과감히 양보함으로써, 녹지 재생과 마당 만들기 즉, 단지를 비워내는 작업에서부터 설계가 시작되었다. 비워짐의 여유를 통해 거주자의 개성과 시간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므로 설계는 형태나 공간 만들기 대신 그 속에서 일어날 이야기를 통해 공간이 완성되어 나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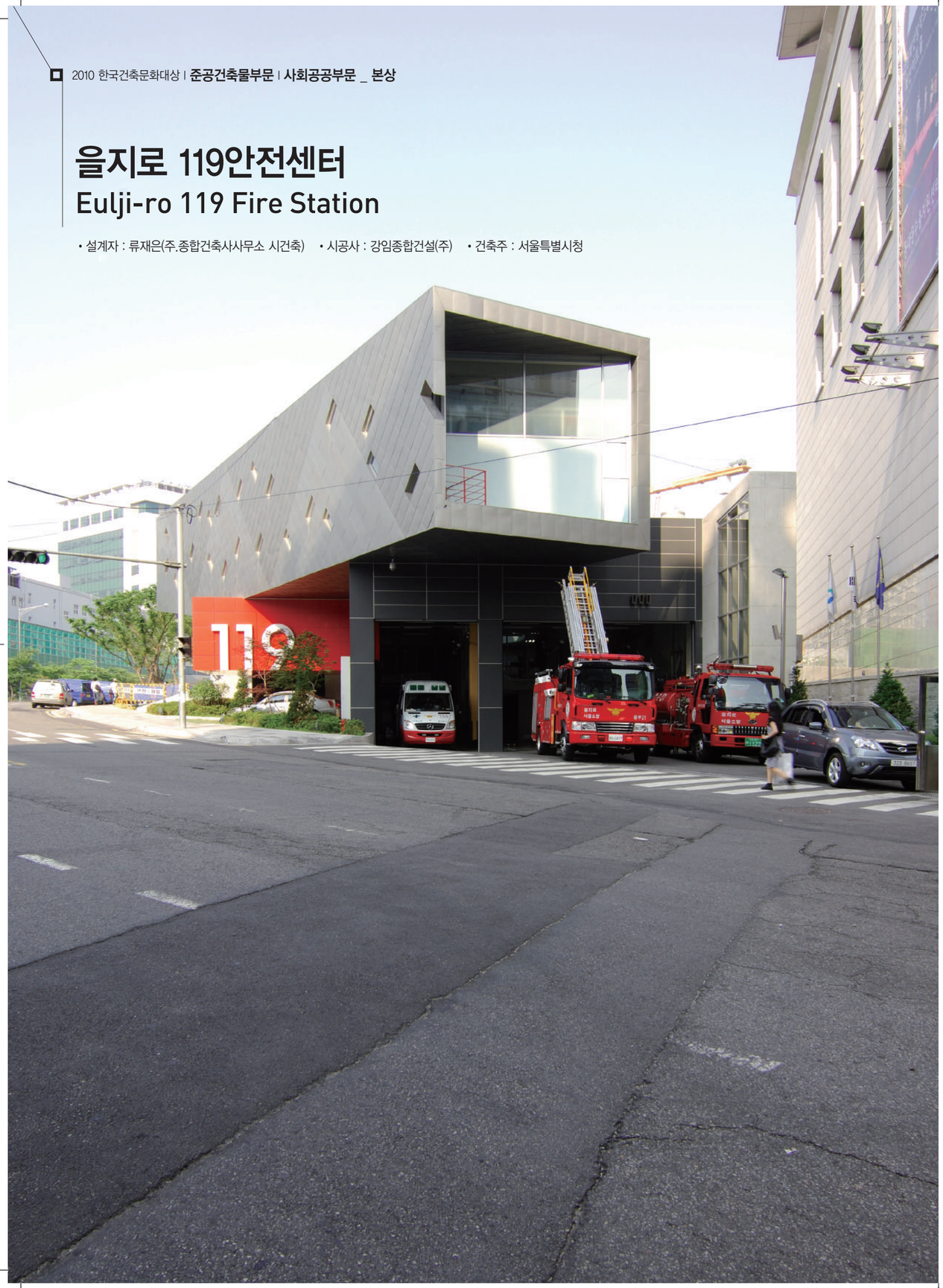
마당 마루 그리고 미완의 사이 공간

이곳의 집들은 미완이다. 적당히 애매하게 남겨진 공간과 무엇인가를 위해 비워진 공간들을 통해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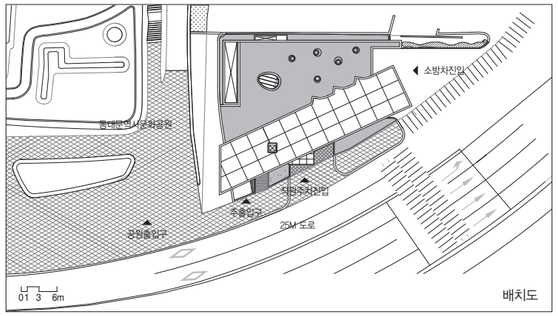
한국의 건축을 표방한 이 곳은 서양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완성이다. 형태의 완성이나 극치로 나아가지 않는다. 외부 또한 자연과 정원의 경계가 없다. 산 밑에 있는 집은 산 전체가 정원이고 집 전체가 자연의 일부다. 그러나 자연을 품은 건축은 자연만큼 커진다고 하였던가. 채 나눔과 마당, 중정과 사이 공간 그리고 대청마루 정자 등을 통해 건축은 비워지고 덜어진다. 건축 형태가 아닌 반 외부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집이 완성되어간다.

을지로 119안전센터
Eulji-ro 119 Fire Station

• 설계자 : 류재은(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 시공사 : 강임종합건설(주) • 건축주 : 서울특별시청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251-7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대지면적 944.00㎡
건축면적 477.56㎡
연면적 907.95㎡
건폐율 50.59%
용적률 61.4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을지로 119안전센터는 동대문디자인파크의 일부인 역사문화공원의 입구에 인접해 있다. 동대문디자인파크는 도심 공간을 공공에게 환원하는 작업이며, 강한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주변의 도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건축물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이 을지로 119안전센터의 건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주된 결정요소는 아니었다. 이 건축을 결정 지은 주된 요소는 바로 공공성이다.

공공디자인, 기반시설 등 주민에게 서비스되는 공간은 그 기능에 충실하게 잘 디자인되고, 충분한 품질로 지어져야 한다. 소방서의 경우, 소방대원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디자인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건축하는 것이야 말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탈권위적 건축의 방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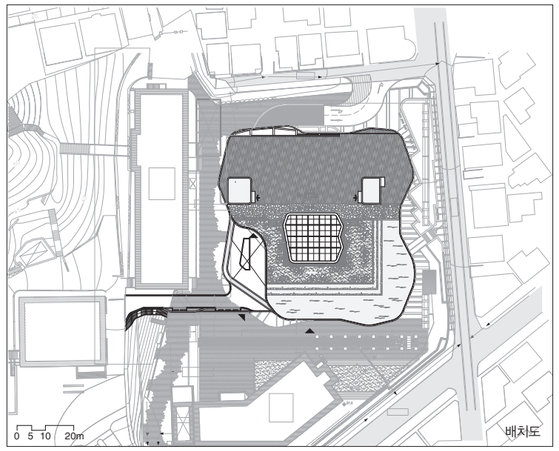
도시에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공공에게 개방된 공간이다. 역사문화공원은 건축물을 대지의 일부로 융합시키며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역사문화공원의 공간은 건축물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 이러한 개방된 공간의 흐름은 우리 부지에서도 연속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건물이 대지에 접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차고, 상황실 등 소방서 고유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간만을 접지층에 배치하고, 근무자들의 거주공간을 공중으로 띄워 올리는 것이다. 창고, 식당 등의 보조적인 기능들은 경사면 하부에 반지하화 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지상의 공간을 통해 역사문화공원과 주변이 소통하며 연결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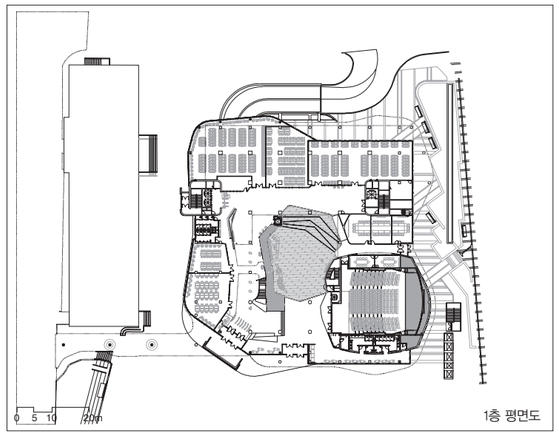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
Myongji University Bangmok Library

• 설계자 :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 건축주 : 유병진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번지	연면적 99,002.26㎡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건폐율 23.12%
용도 도서관, 국제회의장, 주차장	용적률 132.52%
대지면적 55,791.90㎡	규모 지하 3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2,899.06㎡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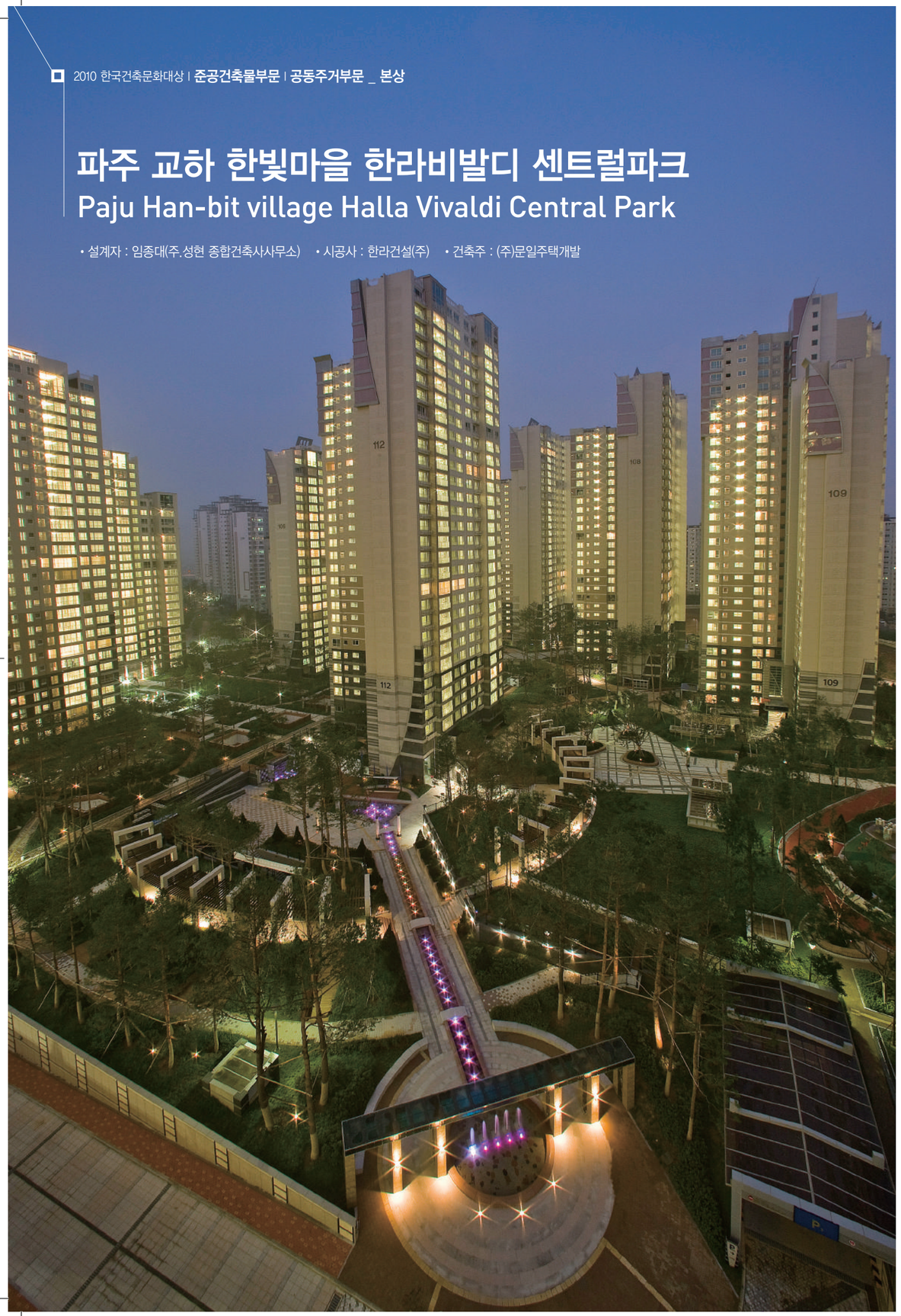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열람하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정보매치와 수단을 통해 이용자에게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최근 두드러진 추세이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다양한 매체와 수단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학교의 전체적인 학술문화컨텐츠를 조감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학술정보센터인 방목학술정보관을 계획하였다.

기존 학교 건축물과 인근 주택가에서의 장벽감이나 거리감을 주지 않고, 각 분야의 지식이 서로 소통하고 학생들이 교류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유곡선의 Mass 형태가 출발하게 되었고 여기에 서가들을 기능적으로 품을 수 있는 사각형의 Mass가 삽입되어, 현재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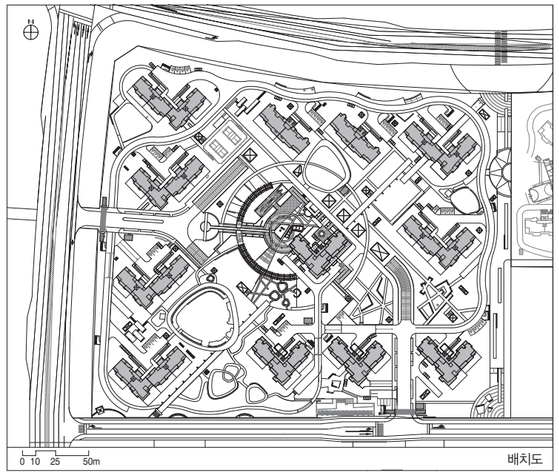
자유곡선의 외피에는 곡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U-Glass를 사용하게 되었고, 사각형의 Mass에는 책, 종이, 서가의 느낌을 풍길 수 있는 목재(IPE)를 사용하였다. U-Glass는 유리이긴 하지만, 반짝거리는 직사광선을 비추기보다 걸러진 부드러운 빛을 품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목재는 책과 같이 나이를 먹게 되고, 그 흔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파주 교하 한빛마을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Paju Han-bit village Halla Vivaldi Centr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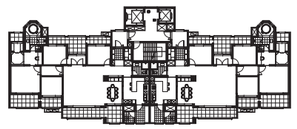
• 설계자 : 임종대(주.성현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한라건설(주) • 건축주 : (주)문일주택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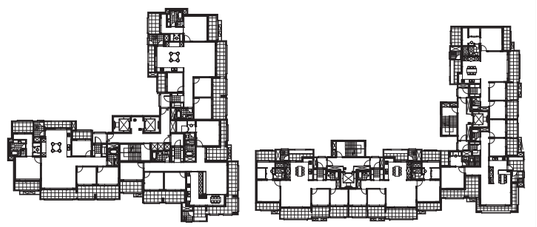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A15블럭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74,112.69㎡
건축면적 8,008.44㎡
연면적 193,749.69㎡
건폐율 10.80%
용적률 190.10%
규모 지하 2층, 지상 29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구조



배치도


103동 기준층 평면도



105동 기준층 평면도
110동 기준층 평면도

파주 교하신도시 내 중앙생태공원과 마주보며 위치해 있는 한빛마을 1단지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는 예술문화와 첨단기술 그리고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차세대 생활 문화 공간'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당시 민간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MA(Master Architect)방식을 채택하여 MA–건축주–시공사–설계자가 계획 초기부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인간중심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도시와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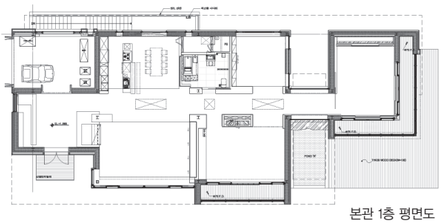
본 주거 단지는 12개의 주거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층에서부터 29층의 주거동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었으며, 탑상형 주동 형태를 사용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측의 근린공원과 북측의 중앙생태공원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을 향해 열린 주거단지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최고 층수 30층의 단지이지만, 서측 도로(25m)변에는 저층(15층)의 주거동을 계획하여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고, 측벽 및 옥탑에는 LED조명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계획함으로서 야간에도 다양한 도시경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측 인접대지인 A15–1블럭 경계부위에는 중저층 주거동을 계획함과 동시에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만들어지는 담장을 대신해 보행가로 및 화합의 광장을 계획하여 이웃단지와 교감할 수 있는 이웃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였고, 보행가로는 교하신도시 중앙생태공원으로 향하도록 하여 도시와 소통할 수 있는 단지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북측 중앙생태공원 변에는 주거동을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격 배치한 후 녹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중앙생태공원의 녹지를 단지 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생활가로 성격을 지니는 남측 16m 도로변에는 진입광장–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포켓공원–공공조경으로 이어지는 외부공간계획을 통해 생활가로에 활기를 주었으며, 또한 부대시설에는 옥상조경을 계획하여 가로경관이 풍성해지도록 하였다.

그린투모로우
Green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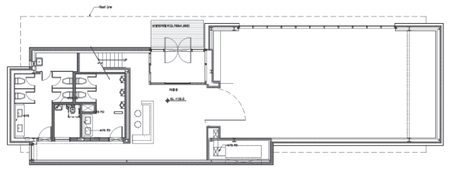
• 설계자 :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삼성물산(주) • 건축주 : 삼성물산(주)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26-1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2,456.1㎡
건축면적 622.35㎡
연면적 714.96㎡
건폐율 25.34%
용적률 24.6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골

친환경 건축의 출발은 자연과의 공생과 순환이다. 에너지 절감, 저탄소 발생, 자원재활용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친환경 설계적용 방식 이외에도 설계의 계획적인 접근방식과 시공, 유지관리측면에서 적절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친환경 건축 디자인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대지의 특성 및 기후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디자인 적용일 것이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큰 점을 고려한다면 봄과 가을 패시브 디자인의 활용도 충분히 고려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패시브 디자인적용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부하를 최대한 줄이고 액티브 디자인,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린투모로우는 계획초기에서 패시브 디자인을 활용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을 우선시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도되는 실현 가능한 건축물로 실제 거주 가능성과 한국 전통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최초의 친환경 건축을 실현하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시아지역 최초 LEED Platinum인증을 획득하여, 일반인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본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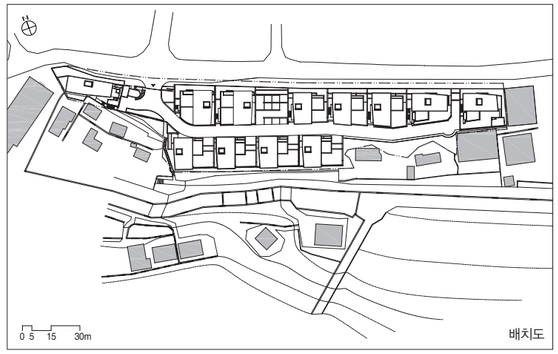


홍보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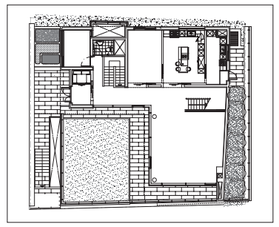
성북 더 게이트 힐즈
The Gate Hills Seongb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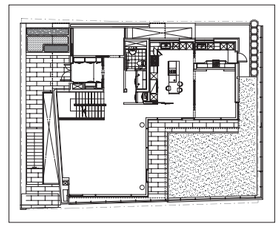
• 설계자 : 오찬제(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 건축주 : 주식회사 지온홀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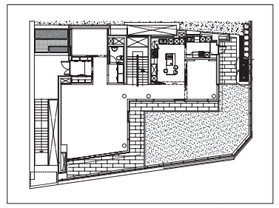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성북동 330-84 번지	연면적 6,616.89㎡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폐율 27.66%
용도 단독주택	용적률 42.44%
대지면적 8,093.00㎡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2,173.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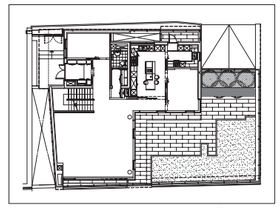


배치도


3동 1층 평면도


4동 1층 평면도


7동 1층 평면도


12동 1층 평면도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과 백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성북동에 위치하는 12세대의 환경친화적 주택이다.

대지 특유의 경사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풍부한 개인 옥외공간과 시각적으로 방해 받지 않는 조망을 제공하면서 옥상정원(Roofscape), 차경(Borrowed Views), Indoor-Outdoor, Interior-Exterior 등의 개념을 섬세하게 조합하여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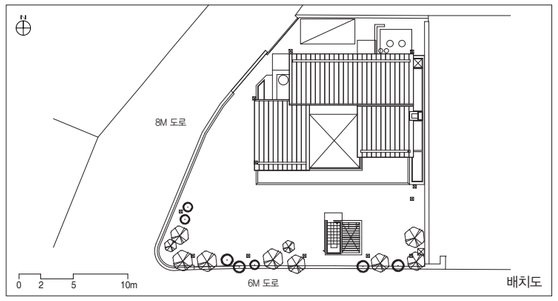
대지의 남측옹벽과 함께 땅에서 솟아나는 건물형상으로 대지와 건물의 경계를 흐리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외부 마감을 실내로, 실내 마감을 외부로 연결하여 조경과 건축의 융화라는 개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다.

정원 테라스의 석재바닥은 실내의 거실, 계단실, 마스터룸, 그리고 다시 2층 외부테라스까지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흐린다. 그 외의 인테리어에는 자연석재, 목재, 초록색과 나무색 등을 사용하여 자연의 색감과 질감을 제시하였다.

박학재
Bak Hak Jae

• 설계자 : 안우성(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 시공사 : 정일훈 • 건축주 : 정일훈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성북동 393-21 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성장관리권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478.00㎡
건축면적 92.90㎡
연면적 410.26㎡
건폐율 19.43%
용적률 35.3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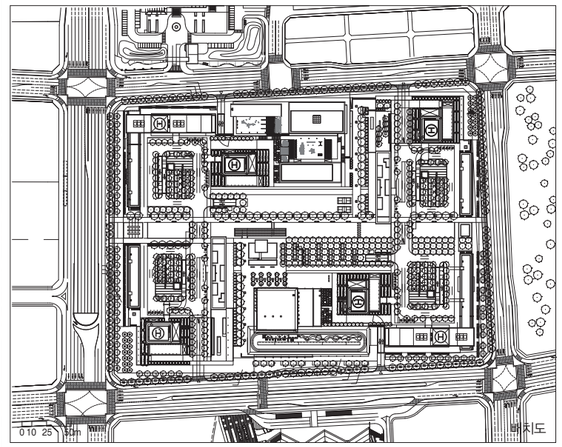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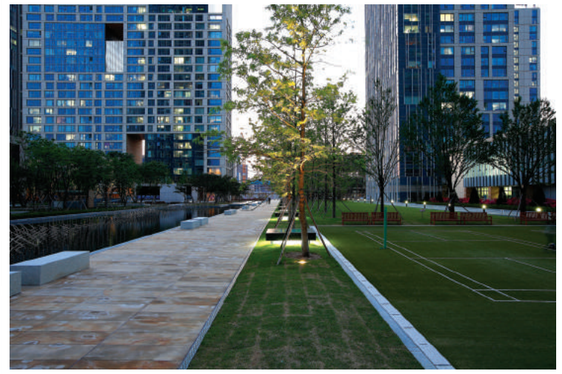
개인주택을 설계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주택은 참으로 어렵고 또한 즐거운 작업이다.
하나의 공간에서 의식주의 기본적인 행위가 전부 일어나며 가족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건축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또한 개성이 강한 건축주의 요구를 충족하며 건축사의 의도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 단독주택의 개념은 항상 건축주로부터 시작된다. 주택은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건축주의 삶과 특성을 가장 유니크(unique)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다.
건축주는 대학교수 부부로서 학교와 집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며 수년 전부터 단독주택을 지어 생활하는 것을 꿈꾸어 왔던 분들이다.
부부는 바쁜 연구활동 중에도 자주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 하므로 넓은 식당을 원하였고, 집에서 연구활동을 위한 업무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건축주를 그 전부터 알고 지내었지만 이 설계작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항상 수수하고 소박(蔬薄)하게 지내는 부부의 삶과 학습(學習)하는 공간이 중심이 되는집을 설계 개념으로 하였다.
대지는 용인에 위치한 단독주택단지 필지로서 한 건설회사가 대지와 단지도로를 완성하고 옹벽, 차고 등을 건축하여 분양한 필지이다.
남측은 건너편 산으로 시야가 시원하게 열려있으나 북, 동, 서측은 인접필지로 인하여 시야가 갇혀있다. 건폐율이 제한되어 있고 대지의 형상이 불규칙하여 한 층에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집의 중심이 되는 서재가 지하로 위치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지하로 접근하는 통로가 필요하였고, 이에 기존 옹벽을 일부 철거하고 새로운 대문을 지하층에 만들게 되었다.
이는 차고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와 연계되며 정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과도 연결된다. 지상보다 지하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들 예상하여 드라이 에어리어를 넓게 하고 중정을 지하로 내려 지하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Songdo the# 1st WORLD

- 설계자 : 김종국(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 건축주 : 송도국제도시개발(유)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송도동 4-1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특별설계구역
용도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103,154.00㎡
건축면적 28,435.997㎡
연면적 531,606.312㎡
건폐율 27.56%
용적률 358.29%
규모 지하 2층, 지상 6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프롤로그_송도 신도시에서 처음 현실화된 주거복합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젊은 가족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부지의 외곽으로 8층과 23층의 중층빌딩으로 되어 있고 64층의 고층빌딩은 대지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 주변으로는 4가지 성격의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행시스템은 서로의 정원을 연결한다. 중층빌딩들은 편안한 보행환경을 형성하면서, 번잡한 도로 교통으로부터 내부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지 가장자리에 형성되었다.

형상화된 개방 공간_보도로부터 잔디로 이어지는 연속된 조경이 특징인 1970년대와 80년대의 주거계획과 대조적으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주거동들의 입면과 수목의 열로 어우러진 다양하고 풍부한 외부공간을 구성한다. 이 공간들은 주거 내부와 공적인 공간을 중재하며, 연속된 잔디 위에 다양하게 구획되고, 분리된 녹지공간들이 대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외부 공간들은 형상화된 조경을 만들고, 빌딩만큼이나 명료한 이 프로젝트의 일부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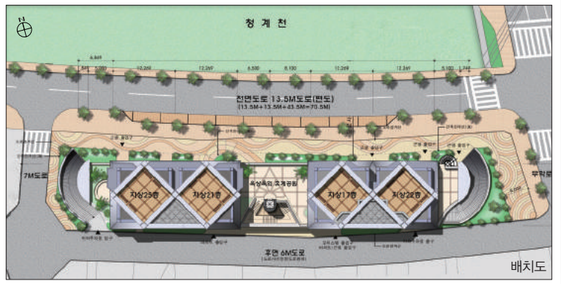
이동과 비대칭_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맞물린 공간의 퍼즐로 구성된다. 부지를 관통하는 순환패턴은 바람개비 원리를 따라 정원에서 다음 공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동선의 방향이 전환되는 패턴을 따른다. 타워 또한 바람개비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두 개의 타워는 컨벤션 센터를 향하고 다른 타워들은 공원을 향한다. 단지 내 건물 배치에 따른 공간은 잘 조화된 비대칭을 이룬다.

에필로그_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이 7:3규모로 건축된 국제 최대 규모의 주거복합건물이다. 건립 당시 주거복합건물의 새로운 모델로 실험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재는 타 주거복합건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앞으로도 송도신도시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모노퍼스
MONOPUS

- 설계자 : 임흥래(주.건축사사무소 단우유디)
- 시공사 : (주)한양
- 건축주 : 에스에이치공사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86-2번지	연면적 14,006.80㎡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58.99%
용도 아파트(69세대), 오피스텔(28세대),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577.18%
대지면적 1,789.50㎡	규모 지하 4층, 지상 25층
건축면적 1,055.68㎡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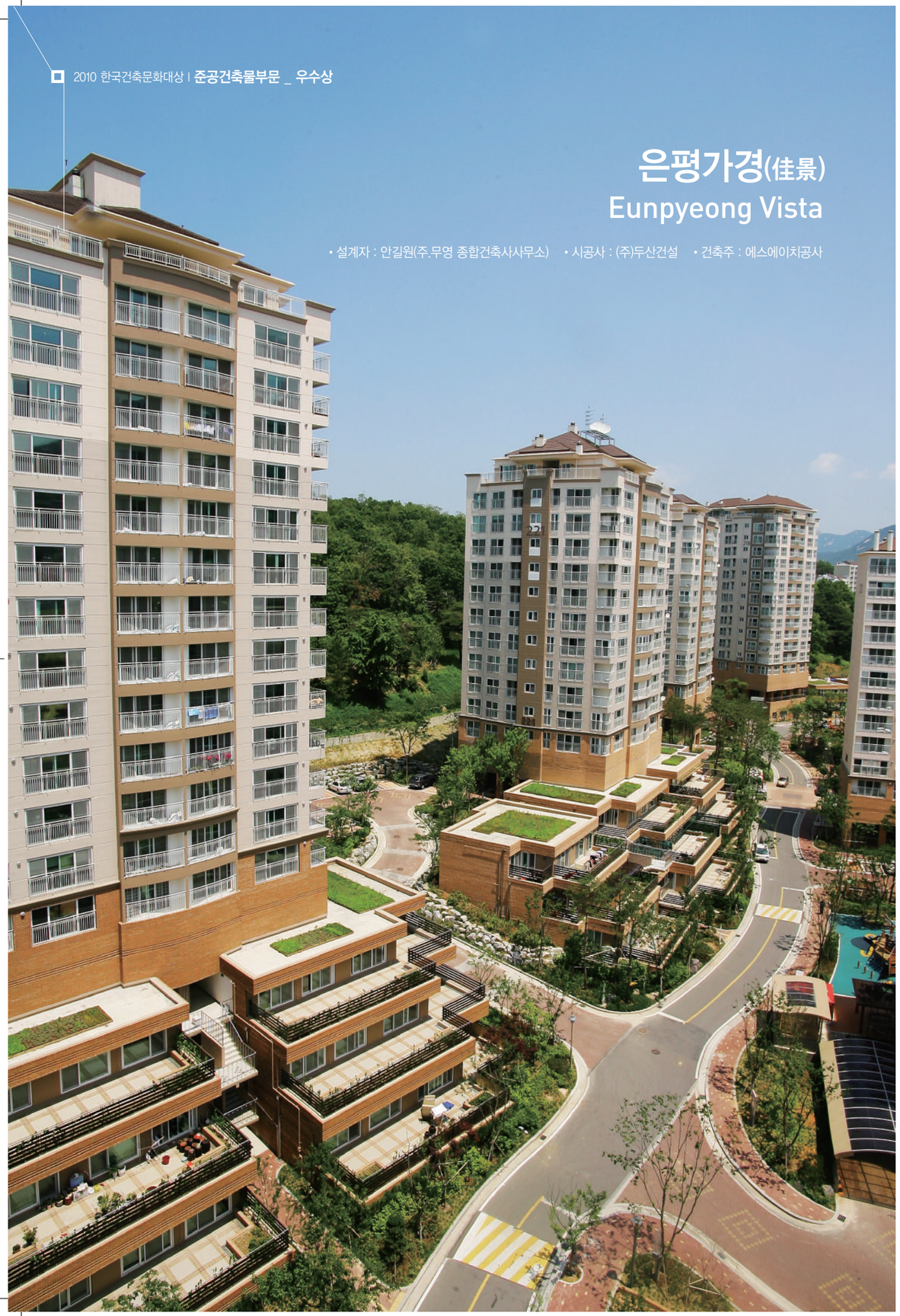
청계천과 길이로 접하여 면하고 왕십리뉴타운에 포함되는 길이(90m), 폭(20m)의 길고 세장한 540평 규모의 서울시 소유부지에 설계의뢰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한창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960년대 바로 청계천 뚝방과 열악한 수상가옥들이 기억에 떠올랐다.
폭이 20m에 불과한 좁은 부지에 공공임대주거를 계획하려니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래서 먼저 디자인 목표를 세우고 그 후 세부적 디자인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디자인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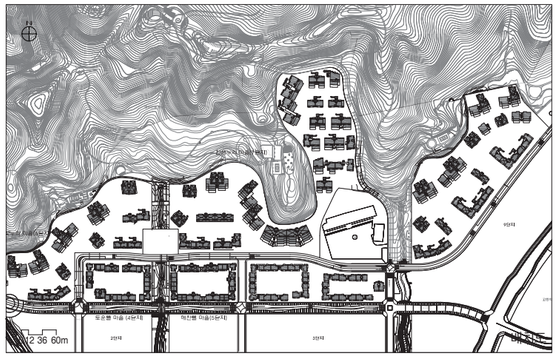
- 길이(90m), 폭(20m)의 작고 세장한 대지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일조와 청계천 조망권 확보.
- 왕십리뉴타운의 선도적 역할과 청계천복원 후에 청계천 인접건물로서의 도시적, 환경적인 역할 담당.
- 공공임대 건물로서 사회, 경제, 문화를 고려한 통합디자인(Collaborate)
- 시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조성으로 지속적 교류(Interactive) 및 공공성 확보(Together)
- 창의와 혁신의 건축디자인 모델 제시(Creative design)
- 주변과의 조화로 친근한 모습 추구(Sustainable)
- 부자나 서민이나 어울려 살 수 있는 행복한 곳 시프트(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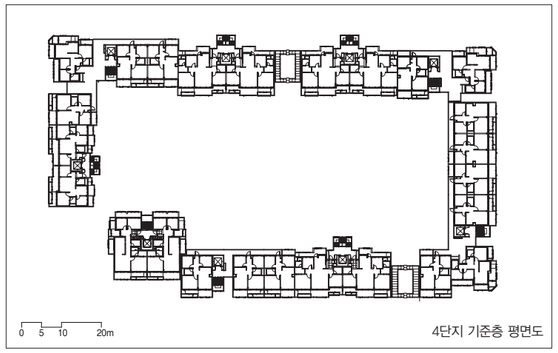
은평가경(佳景)
Eunpyeong Vista

• 설계자 : 안길원(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주)두산건설 • 건축주 : 에스에이치공사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은평뉴타운 2지구 내 BL2 - 4, 5, 6, 7, 8BL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 BL2-4BL · BL2-5BL · BL2-6BL · BL2-7BL · BL2-8BL -
대지면적 8,695.10㎡ · 8,940.13㎡ · 29,001.90㎡ · 50,512.10㎡ · 37,086.30㎡
건축면적 2,761.10㎡ · 2,915.22㎡ · 6,611.31㎡ · 14,325.28㎡ · 8,423.77㎡
연면적 22,638.78㎡ · 21,922.29㎡ · 57,802.21㎡ · 93,004.60㎡ · 75,319.30㎡
건폐율 31.75% · 32.61% · 22.80% · 28.36% · 22.71%
용적률 168.66% · 161.89% · 140.72% · 136.00% · 149.96%
규모 지하 2층, 지상 7~10층(3개동) · 지하 2층, 지상 1개층(2개동) · 지하 2층, 지상 10~15층(11개동) · 지하 2층, 지상 5~15층(22개동) · 지하 2층, 지상 9~15층(14개동)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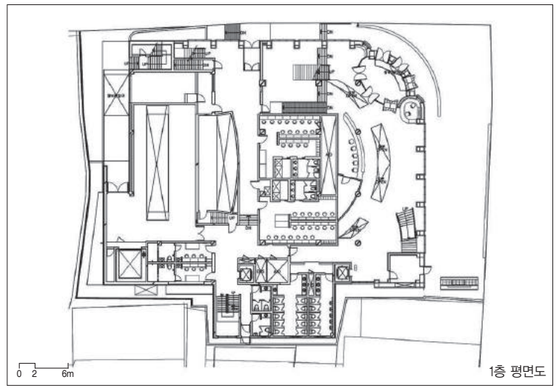
4단지 기준층 평면도

恩 · 平 · 佳 · 景 이라는 테마 아래 리조트형 생태 전원단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 조성 및 주거환경의 질적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했다.
생활가로에 면하여 매스분절 및 커뮤니티 Bridge계획 등으로 가로에 활력을 제공 하고 생태 축을 중정내로 끌어 들여 내부정원을 갖고 있는 중정 형 주거유형, 가로경관 주거유형, 산록 변 경사지 주거유형, 테라스주거와 산록 변 저층 연립주거단지 영역의 4개의 경관영역을 구분했다.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다채로운 경관을 보여줌과 동시에 북한산 산세와 어울리는 모임지붕과 경사지붕은 리조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입면요소로 활용되었다.

명동예술극장
Myungdong Theater

· 설계자 : 한중륜(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한일건설(주) · 건축주 : 문화체육관광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54 외 3필지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795.71㎡
건축면적 1,286.53㎡
연면적 4,923.13㎡
건폐율 71.64%
용적률 206.39%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1층 평면도

시간의 흔적과 문화의 빛

2004년 겨울 추운 주말에 찾은 명동 옛 국립극장은 주변의 소란스러움에 둘러 싸여, 조용히 그 자태를 감추고 있었다. 한 때는 연극인들의 꿈의 무대였던 이곳이 객석부분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채워지고 잡다한 인테리어로 치장된 사무실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1930년대의 외관과 전혀 관계가 지어지지 않는 내부공간으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70년대 초 청년문화의 중심이었던 명동은 90년대 압구정동에 밀려 쇠락하다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명동은 상업성이 강한 소비거리로 변했고 균형감을 상실한 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 치솟는 땅값과 높아만 가는 소비성향이 어우러져 헐리고 고층상업시설로 바뀔 위기에 처해있던 명동 옛 국립극장은 명동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옛 국립극장 살리기 운동으로 인해 다행스럽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서 그 외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옛 극장으로의 기능변경을 주제로 현상공모가 시행되었고 2004년 한 겨울 우리는 밤을 지새며 아이디어를 발전 시켜 나갔다.

외벽은 복원하고 보수하면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겠지만 내부 구조를 털어내고 들어설 새 공연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의 젊음과 명동의 상업성이 결합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에너지와 욕구를 끌어들여 문화적인 감성의 빛으로 전환시키면 어떨까…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무대의 막이 오르면" 명동예술극장은 문화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 명동의 새 중심으로 환하게 피어 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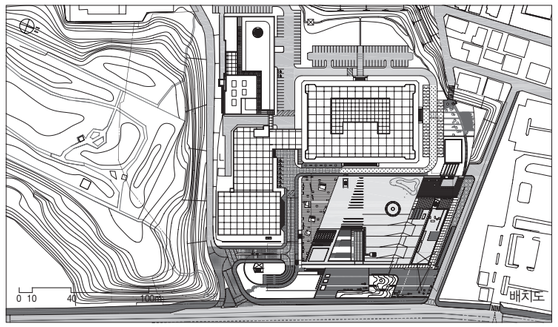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로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객석의 주진입을 2층으로 들어 올렸다. 1층은 외부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로비 등을 두고 2층, 3층의 홀 공간도 작지만 전시가 가능한 다용도로 계획하였다. 좌석은 2개의 발코니를 포함하여 558석을 확보하였고 좌석과 무대간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하여 중극장의 큰 장점인 관객과의 소통, 친밀감을 극대화 하였으며, 무대장치와 음향은 연극의 최적조건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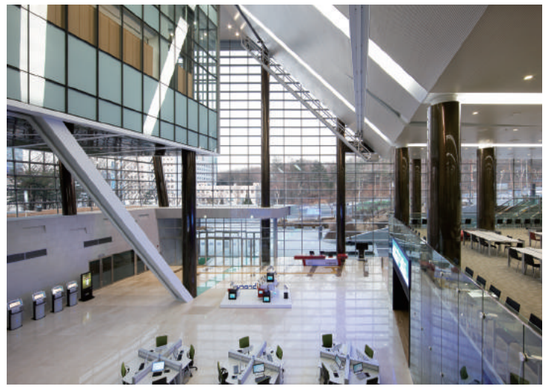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사업은 단순한 복원보존의 의미를 뛰어 넘는다. 과거 문화의 중심이었던 명동을 그리워하는 예술인과 명동 상인, 그리고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도시적, 건축적, 문화적 공간의 재탄생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문화부와 명동상가번영회의 노력이 사라질 뻔한 역사의 흔적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명동예술극장의 준공으로 다시금 명동문화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예술의 꽃으로 피어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립디지털도서관
National Digital Library

• 설계자 : 이필훈(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현대건설(주) • 건축주 : 국립중앙도서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66,888㎡
건축면적 12,389.46㎡
연면적 96,496.87㎡
건폐율 18.53%
용적률 63.16%
규모 지하 5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디지털 도서관은 서리풀공원내에 기존 중앙도서관 전면광장에 계획되었으며 건폐율 10%의 제약조건과 아나로그를 디지털로 압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기존 본관을 가리지 않고 존중하는 열린배치를 시작으로 마치 녹색의 카펫을 펼쳐 놓은 듯 넓고 푸른 광장의 조성, 그리고 커다란 저층부 기단을 통한 단지의 재통합과 기존 본관과의 편리한 연계를 통해 기계적이고 차가운 디지털이 아닌 자연과 감성이 살아 숨쉬는 녹색의 따듯한 디지털 공간을 구상 하였다.
디지털도서관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소통의 도서관이자 공원속의 도서관으로 도시의 컨텍스트와 새로운 공간과 장소를 만들고 있다.

풍경이 되다 (Green Carpet)_국립 중앙도서관 전면광장을 형성하는 대지의 판(Green Carpet)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근 서리풀 공원의 녹지에서 시작되며, 연속된 흐름을 통해 지상의 건물 입면으로 펼쳐져 지붕에서 완결된다.
또한 반포로에서 유입되는 보행자의 흐름은 전면광장과 건물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계 됨으로써 이용자는 유동적이며 연속적인 행위를 체험하며, 대지와 주변환경이 어우러져 건물과 조경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한편 이러한 풍경화된 건축은 도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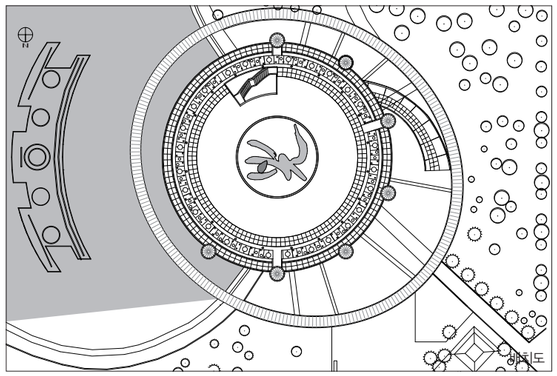
비움 (Urban Void)_국립중앙도서관의 전면광장을 비움으로서 도시 내의 다양한 문화와 다채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광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서의 장소적 역할을 할 수 있게된다.

소통 (Interaction)_지식정보시대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휴먼인터렉션(Human Interaction)을 증대시키는 요소들로써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종합영상음향실, 디지털 카페, 브라우징 데크, 포켓정원 및 그린포럼, 다문화 및 정보체험이 가능한 로비공간, 다층화된 연속된 단면을 가진 열람실을두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사람과 자연이 상호소통하는 흐르는 공간, 살아 숨쉬는 장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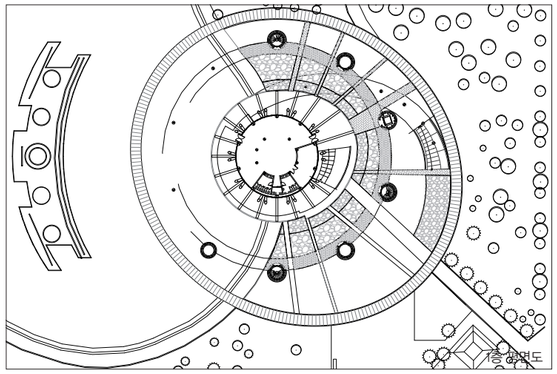
2010 광주 세계 광 엑스포 주제 영상관
World Photonics Expo
2010 Guangju, Theme Pavilion

- 설계자 : 조성호(주식회사 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남광건설(주)
- 건축주 : 광주광역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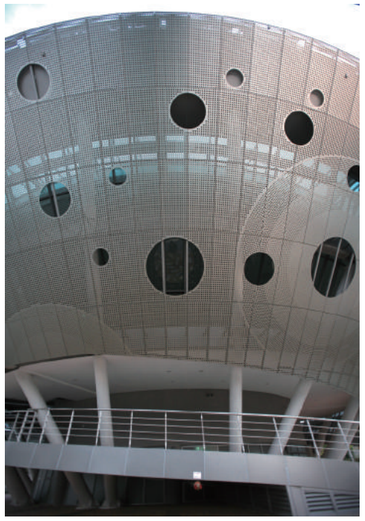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3-2	연면적 1,669.49㎡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건폐율 5.2%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적률 4.0%
대지면적 41,750.00㎡	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2,181.89㎡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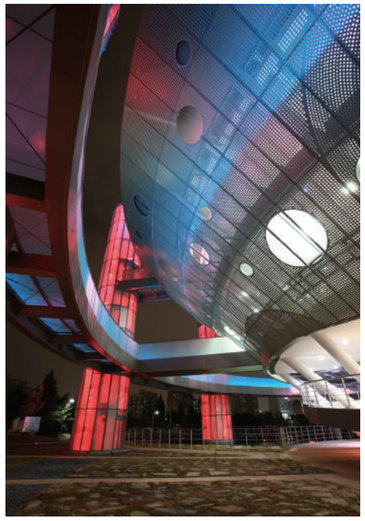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급속히 발전하는 광산업의 구심점으로서 광주의 새로운 시작과 발판을 제안하는 '빛나는'이라는 뜻의 라틴어 'Luminous'와 그릇을 뜻하는 영어 'Bowl'의 합성어인 세계 광엑스포 주제영상관 'Limibowl'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풍광으로 '빛고을'이라 불려온 광주를 도시와 사람, 빛이 어우러진 빛의 도시를 상징한다.

Design concept_빛 엑스포 행사장의 중심건물로서 빛의 근원인 우주와 행성의 이미지를 유추하여 독창적인 모습으로 그 환영(幻影)을 표현하고 야간의 별과 빛, 엑스포의 다양한 행사를 관찰할 수 있는 오브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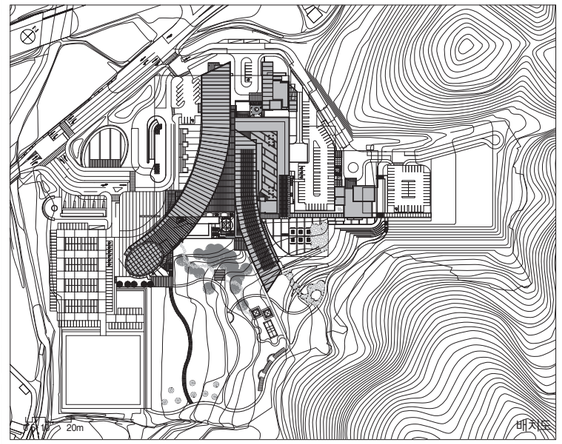
Site plan_기존 상무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공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건물계획과 주변 도로(고속도로)와 자연환경, 고층건물 등에서 광주의 랜드마크적 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Circulation_방사형 매스를 감아 도는 경사로와 7개의 빛기둥을 이용한 다채로운 동선계획은 빛을 모티브로 한 광 엑스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선이동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여 한 단계 상승된 전시문화를 제안한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Dongnam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 설계자 : 이관표(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건축주 :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267-2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종합의료시설
대지면적 73,082.00㎡
건축면적 11,421.44㎡
연면적 52,727.44㎡
건폐율 15.63%
용적률 44.39%
규모 지하 2층, 지상 9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

동남권 원자력병원은 부산과 경남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암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암 진료시설이 부족해 많은 경남권 암환자들이 서울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부산 기장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부에서 암전문병원과 원자력 사고 관련 비상 진료센터를 한곳에 묶어 건립하는 프로젝트이다.

부지는 부산시 기장읍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동쪽과 북쪽은 100m이내의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과 서측이 트여 있는 곳이다. 이 부지에 병원을 계획하며 어려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진입도로가 서측에 위치해 있어 서향을 피하며, 정면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고, 두 번째 부지 중심부에 들어서 있어 대지를 특징 지워주는 해송숲을 보존하면서 경관요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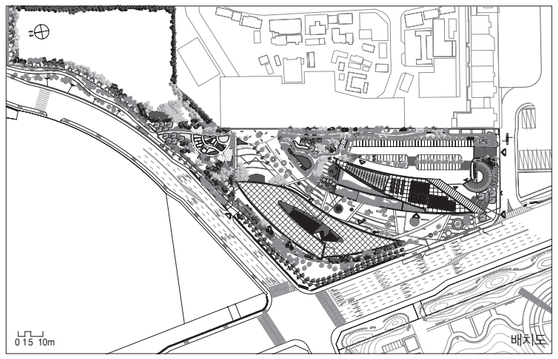
첫번째 정면성 문제는 병원 주 매스를 남서향으로 배치해 서측 전면도로와 남측 주출입구로부터의 정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향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 할 수 있었고, 두번째 문제는 병원기능을 충족시키면서도 병동과 전면 건강검진센터 매스를 해송숲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휘게 구성, 해송이 보존 되면서도 건물의 중심에 놓이게 해 외부에서 병원을 볼 때 해송과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내부 아트리움과 로비에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해송의 모습이 이용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소성에 대한 고민과 기존 식생에 대한 존중과 보존노력이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손길에 전이 되길 바라며, 암과 투병하며 인내의 세월을 견디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거친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해송의 늠름한 모습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어 조금이라도 암 치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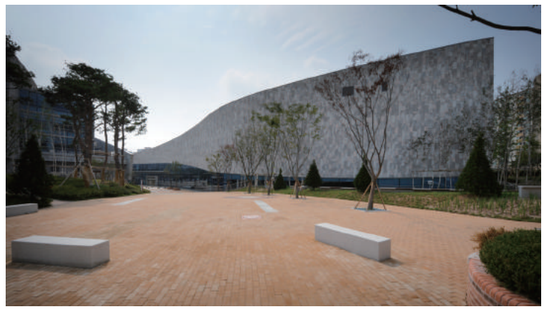
한국만화영상 진흥원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설계자 : 김자호(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현대건설(주) • 건축주 : 부천시청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26,541.71㎡
건축면적 5,282.81㎡
연면적 23,762.85㎡
건폐율 19.90%
용적률 59.11%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사무동)
지하 1층, 지상 4층(전시동)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Cartoon Valley는 4가지 단계의 개념을 모티브로 적절히 배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지되어 있는 빈 대지라는 개념의 Cartoon Paper, 두 번째 단계는 자유롭고 동적인 만화의 곡선을 모티브로 하는 Cartoon Curve, 세 번째 단계는 전시 및 지원시설간의 유기적 연결로 문화의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Culture Seed, 마지막으로 문화의 씨앗이 되어 도시의 흐름을 따라 퍼지는 City Flow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건축 개념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만화영상산업진흥원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있는 조형계획을 수립하였다. 영상 Film을 조형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전시동은 강한 상징성과 정면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 진입측에 배치하였으며, 사무동은 역동적이고 하이테크한 조형을 통해 미래지향적 만화산업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개성있는 두 덩어리의 조형물은 그 안에 담는 기능에서도, 전시영역과 업무영역을 명쾌하게 기능을 분리시키게 되며, 전시동은 층별로 시설간 조닝을 하여 명확한 공간위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사무동은 전시동과 분리하여 만화창작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두 덩어리 사이에 곡선의 연결 브릿지가 생성됨으로서 상상의 공간으로 전이되는 상징성과 업무공간과 전시공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Cartoon Valley는 부천의 랜드마크로서 시(市)경계에 위치하여 도시 거점의 관문이 되어,새로운 문화적 명소가 되고 주변 녹지축에 순응하여 자연스런 접근을 유도하여 주변 공간구조를 고려한 외부공각을 계획하여 Cartoon Valley의 체험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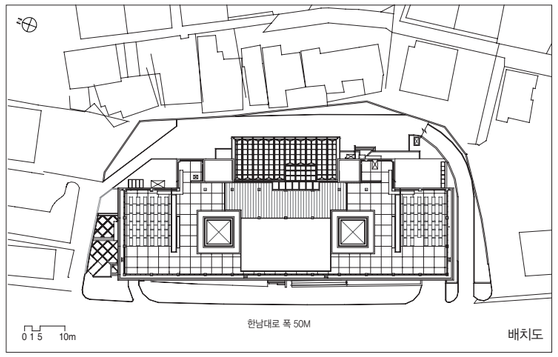
이곳은 앞으로 만화산업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며, 분리된 관련시설의 집적체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Cartoon Valley에서 퍼져나가는 Culture Seed는 장래 부천 영상 문화 단지만의 Character가 되어 단지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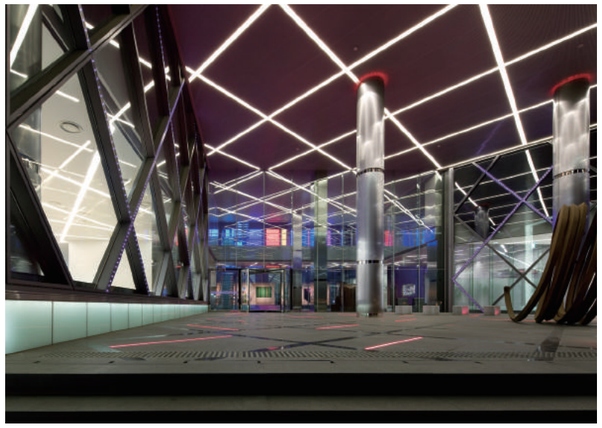
일신 한남동 10
Ilshin hannamdong 10

• 설계자 : 우시용(건축사사무소 시공건축) • 시공사 : 벽산건설(주) • 건축주 : 일신방직(주) 한남동빌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14	연면적 26,098.52㎡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건폐율 57.22%
용도 업무시설	용적률 223.89%
대지면적 5,809.70㎡	규모 지하 4층, 지상 5층
건축면적 3,323.4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터널로 가는 한남대로의 우측에 위치한 대지는 남산 기슭이 남쪽으로 흘러 멈춘 곳에 있다. 이 대지에서 부터 남산경관보호구역이 적용되어 층수의 제한을 받는다. 이 도로변에는 공관, 학교, 대사관, 외국인 아파트 등이 있어 사람의 통행보다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밤 시간에는 도로변이 어두운 편이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건물의 변화 있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시에 건축물은 본래의 길이보다 짧고 굵게 느껴진다. 이러한 매스가 나타내는 힘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의 매스로 단순하고 강하게 표현하는데 외부디자인의 초점을 맞췄다. 그 힘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어지는 건축공간에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건물은 남북으로 긴 형태의 대지에 전면도로에 접하여 길게 배치한다. 길게 보이는 건물의 전면에 주출입과 공개공지를 위한 비워진 공간을 두었다.

건물의 외피는 유리로 하되 입면의 패턴이 수직수평으로 정리되는 일반적인 창호 패턴에서 벗어나 우리 전통건축의 창호의 빗살문살 패턴을 차용하여 대로변에서 기존 창호들과 다른 느낌을 스피드감 있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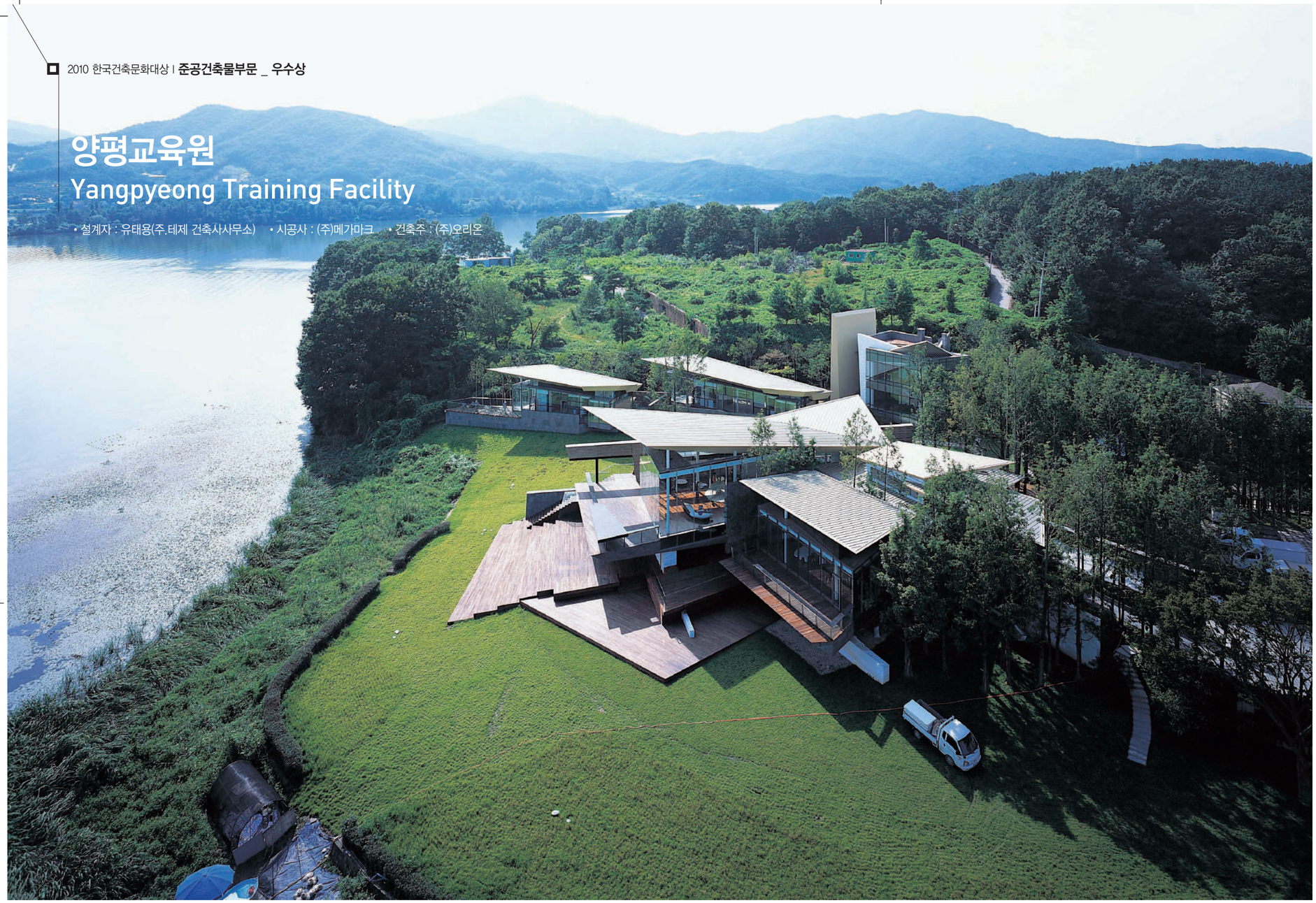
낮에는 주변의 환경이 빗살문살 창의 유리면에 비쳐 입면이 되고, 밤에는 빗살문살 창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숨겨져 있는 조명과 실내 풍경이 합쳐져 입면이 된다. 조명은 밤 시간에도 건축물과 합일된 유기체로 건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좋은 예술품으로 채우는 높은 안목이 있어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좋은 건축주가 좋은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을 이건축물은 보여주고 있다.

양평교육원
Yangpyeong Training Facility

• 설계자 : 유태용(주.테제 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주)메가마크 • 건축주 : (주)오리온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02-18
지역지구 관리지역, 수변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540.00㎡
건축면적 1,039.75㎡
연면적 798.96㎡
건폐율 29.37%
용적률 22.57%
규모 지상 1층,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배치도

이 프로그램은 대지의 흐름을 읽고 해석하는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의 대지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자연 속 땅 위에 놓여질 건축물은 정적인 '축'이 아니라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지형에 순응하는 동적인 의미로서 적용된다.
자유로움과 휴식을 담은 건축을 원하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강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사지에서의 건축적 래프팅, 즉 뗏목을 물에 띄워 보내는 듯한 자유로움을 건축물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는 강을 면하고 있어 홍수의 위험이 있다.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을 대지 레벨보다 3미터 높여서 시공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킨 건물은 무게감 있는 지붕과 하부 벽의 가볍고 투명한 유리의 사용,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의 현대적 표현 – 한옥지붕에서 영감을 얻은 겹침의 기법과 처마의 표현 – 을 통해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형태임에도 낯설음 없이 편안하게 다가온다.
사람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동화됨을 표현하는 재료로서 흙벽이 사용되었다. 이 흙벽은 건축물과 자연이 하나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습도 및 온도를 조절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흙벽 뿐만 아니라 돌벽 또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가공하지 않은 거칠고 날 것의 느낌이 나는 돌들을 층이 보이도록 쌓아 올려 자연스러운 마감을 표현했다.
자연경관을 극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 비정형적인 건축 매스들 주변에 수직성이 강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빼곡히 심어 숲의 대지에서 강으로의 연속성을, 드라마틱하면서도 주변 산세와의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 건축매스의 일부분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Vol. **498** October 2010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0년 10월호 통권 498호

Contents

10	특별기고	2010 건축의 날에 부치는 글	최영집
12	칼럼	'건축사' 500호를 통해 얻는 교훈	장양순
13	시론	건축계의 양극화 현실과 해소 방안	김영수
14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원창묵
15	건축만평	-	곽희수
16	특집 Ⅰ	2010 건축의 날 화보	
19	특집 Ⅱ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39		준공건축물부문	
87		계획건축물부문	
99	작품리뷰	남서울교회	유정훈 · 박인수
109	인터뷰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_김효만	최동규
114	설계경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청사	
120	연재	각국의 건축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조사③ – 독일(上)	이선구
125	건축마당	협회소식	
131		건축계소식	
135		해외건축동향	김은미
139		통계	

발 행 인 최영집
담 당 이 사 장양순, 신춘규
편찬위원장 최동규
편 찬 위 원 박인수 · 오섬훈 · 이용우 · 전진삼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 편 번 호 137–877
전 화 대표 (02)3415–6800
팩 시 밀 리 (02)3415–6898~9
인 터 넷 http: //www.kira.or.kr
인 쇄 (주)화신문화사 Tel : (02)2277–0624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4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orean architects

Vol. **498** October 2010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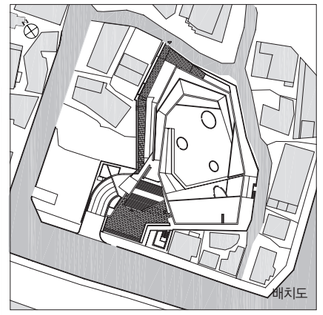
10	Special_Feature	Posting Word for The Day of Architecture 2010	Choi, Young-jip
12	Column	Learning a good lesson from Magazine 'Architect' 500th edition	Chang, Yang-soon
13	Focus	Comprehend of Polarization and Settlement for Architecture Field	Kim,Young-soo
14		Dynamic Green Wonju with New Hopes	Won, Chang-mug
15	Cartoon		Kawk, Hee-soo
16	Special_Issue Ⅰ	Day of Architecture 2010	
19	Special_Issue Ⅱ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0	
39		Professional Part	
87		The Submitted Part	
99	Work Review	Namseoul Church	Yoo, Jeong-hoon · Park, In-soo
109	Interview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_Kim, Hyo-man	Choi, Dong-kyu
114	Competition	Changwon District Court Jinju Branch	
120	Serial	'The New Fee Regulations for Architects & Engineers (HOAI 2009)'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A Stimulus To Revise the Present Architect's Fee Regulations in Korea	Lee, Sun-koo
125	Architects'Plaza	Kira News	
131		Archi-Net	
135		Overseas News Review	Kim, Eunmee
139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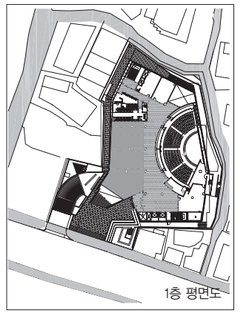
Publisher Choi, Young-jip
Director Chang, Yang-soon & Shin, Chun-gyu
Committee Chairman Choi, Dong-kyu
Committee Park, In-soo & Oh, Seom-hoon & Lee, Yong-woo & Jahn, Jin-sam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해운대 온누리 교회
Onnuri Methodist Church

- 설계자 : 이필훈(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주)파라다이스 글로벌
- 건축주 : 부산온누리 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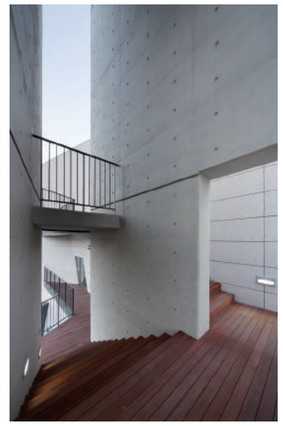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877번지
용도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2,668.53㎡
건축면적 1,597.5㎡
연면적 9,955.31㎡
건폐율 13.51%
용적률 22.89%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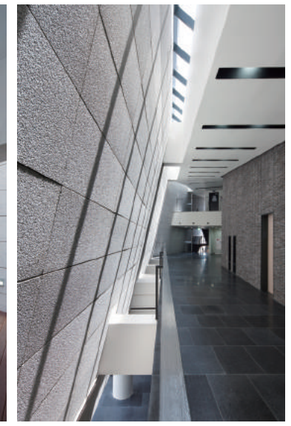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ONNURI great sanctuary_ 온누리교회 본당은 '온누리를 감싸안는 벽'의 개념에서 출발되었다. 이러한 벽의 개념은 종교적 근원의 상징물을 은유하며, 온누리 교회만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게된다.
외부의 다면체적인 속성과 대위법적 관계를 이루면서 형성된 곡선의 거친 '돌벽'은 본당에 상징적 속성을 부여하게된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강대상은 기존 제단형식의 공간개념에서 벗어나 강대상과 예대당의 관계를 이분법적인 아닌 종교적 소통의 공간으로 화해시킨다. 결국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예배의 공간이 단순한 인테리어적인 속성을 벗어나 종교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장소가 되기를 바랬다. -Wailing wall & Pr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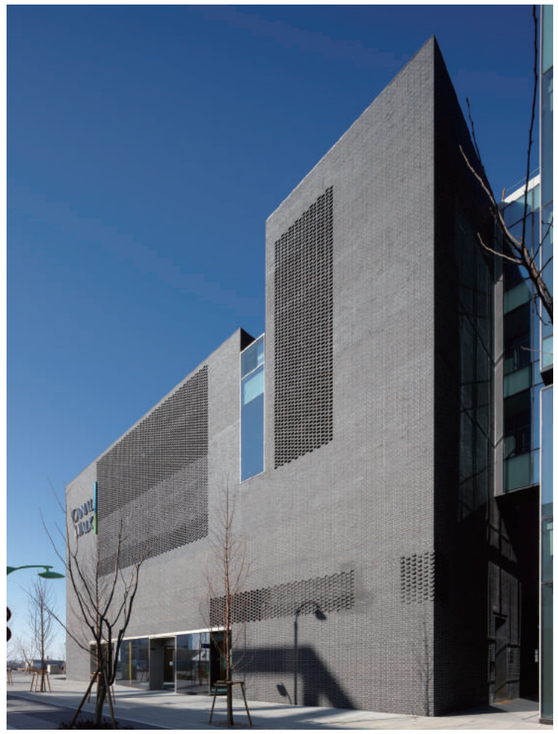
컨셉_ 동해의 강한 빛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는 해운대의 해변과 도시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지역축제는 해운대의 강한 지역성을 대변한다. 대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신도시의 정연한 길과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삶에 의해 조성된 골목길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서로를 관통하며 기존교회, 시장, 주변 도시로부터 다 방향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받아,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예배당으로 연장되는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 동선과 입체적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레벨의 마당은 지역주민과 신도가 문화적, 종교적, 친환경적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집적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감싸는 외부 파사드는 대지가 갖는 특질과 법적 요구사항에 반응하여 채워지고 비워지며 빛과 보는 각도에 따라 Multi-facade의 얼굴로 구성하여 절제된 도시의 조각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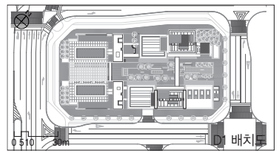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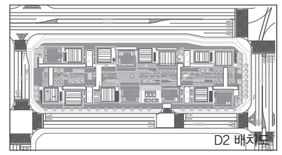
커낼 워크
Canal 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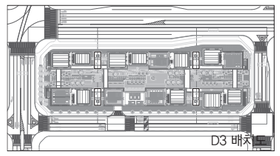
- 설계자 : 부대진(주.진아건축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 건축주 : 송도국제도시개발(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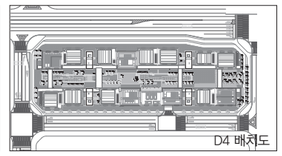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0-14, 90-15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대지면적 D1-7,035.1㎡ · D2-12,700.3㎡ · D3-12.091㎡ · D4-12,494.5㎡ · D5-7,201.6㎡
건축면적 D1-2,291.5㎡ · D2-6,086.3㎡ · D3-5,764㎡ · D4-6,010㎡
연면적 D1-16,370㎡ · D2-34,228.9㎡ · D3-33,492㎡ · D4-34,155.9㎡
건폐율 D1-42.5% · D2-47.9% · D3-47.7% · D4-48.1%
용적률 D1-151.9% · D2-171.6% · D3-175.6% · D4-174.5%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커낼 워크는 다섯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블록의 크기는 뉴욕 맨해튼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블록 정도인 것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다. 전체 블록은 남쪽에 주거지역, 북쪽에 국제병원을 비롯한 상업지역, 동쪽에 학교 운동장 그리고 서쪽에는 정부기관과 송도센트럴파크가 둘러싸고 있는 곳에 있다. 폭 35미터의 제 3경인고속국도가 동쪽과 북쪽을 끼고 지나간다. 이 도로는 서울과 인천, 국제공항과 같은 외각 지역은 물론 송도 신도시 내 지역을 용이하게 연결한다.

운하는 다섯 개의 블록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면서 대지 중앙에 위치한다. 첫 번째 블록인 D1부터 네 번째 블록인 D4까지는 1층과 2층에 상업공간을, 3층 이상에는 오피스텔을 배치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블록인 D5는 인천시의 요구로 야외 공용주차장을 포함한 도시공원으로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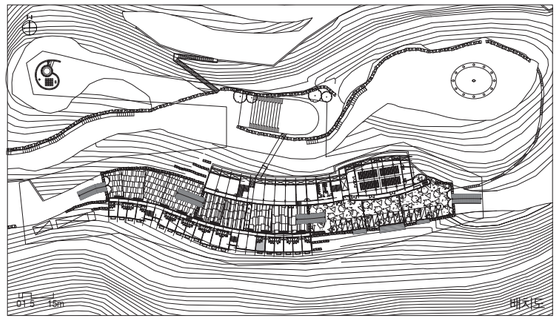
전체 상업공간은 모두 약 4만 6천 평방미터로 체육시설, 서점, 일반상점, 고급 레스토랑과 그 밖의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상점의 프로그램은 네 개의 모든 블록에서 1층과 2층에 위치한다. 그리고 그 상점들은 운하와 거리로부터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편재한다. 건물을 관통하는 운하와 높은 보행통로는 사람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소음을 차단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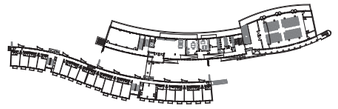
오피스텔로 디자인된 구역은 모두 약 7만 4천 평방미터로 펜트하우스, 오락시설, 그 외에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415개의 오피스텔은 크기에 따라 작게는 50 평방미터부터 크게는 200 평방미터 이상인 펜트하우스 등 다섯 개의 다른 평면을 가지고 있다.

천주교 마산교구 마산가톨릭교육관
Masan Catholic Center, The Diocese Masan

• 설계자 : 손기찬(건축사사무소 동이) • 시공사 : 지엔지건설(주) • 건축주 :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대지위치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난포리 156-1
지역지구 농림지역, 보전임지, 해군기지지역
용도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수도원)
대지면적 9,889.00㎡
건축면적 1,906.42㎡
연면적 5,914.95㎡
건폐율 19.28%
용적률 48.44%
규모 교육동_지하 1층, 지상 3층
숙소동_지하 1층, 지상 3층
기념성당_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1층 평면도

이 계획은 장소로부터 단절된 건물이 개입한다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확신과 함께, 현대사회의 방만함과 경계에서 집단생활을 위한 장이라는 의미와 조용히 기도하고 관상하기 위한 종교적 장으로서의 두 가지 의미로부터의 시작이었다.

제한된 부지와 지형 및 물리적인 규제와 주변자연환경에 의해 단절된 건축이 아닌 장소와 조응하는 배치 및 공간을 계획 설계함으로써, 이미 훼손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동과 숙소동의 기능과 동선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 교육공간의 영역구분을 꾀하였다.

정문에서 성당이, 동측을 향하게 하면서 전면광장과 함께 트인 바다로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상징적이고도 전례중심공간이 되도록 하였고, 필요시 교육동은 별도의 행사(일시적)가 숙소동과의 동선 장애가 없이(특히 강당)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세 수도원의 엄격성과 품격을 전형으로 삼고, 한국 카톨릭 전래의 가치를 지역적인 풍토와 현대적인 건축해석으로서, 진단생활을 위한 주거라는 생활의 장이라는 의미와 조용히 기도하고 사색하기 위한 종교적 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공간 환경으로 설계하였다.

Nobile claret opus, sed opus goud nobile claret clarificet mentes.
이집을 고귀하게 빛나게 하시고, 빛나는 이집이 우리마음을 밝히게 하소서.
– 최초의 고딕 창시자, 생드니 수도원장 쉬제르

공고

국제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봉사할 열정적인 협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국제위원회 목표

Ⅰ. 국내 건축의 국제 경쟁력 강화
Ⅱ. 국내 건축사들의 국제 경쟁력 함양
Ⅲ. 해외 각 국의 건축정보 수집, 분석 및 제도적 개선

국제위원회 활동 사항

Ⅰ. UIA(세계건축사연맹) 및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등 국제 행사 참석, 대한건축사협회 및 대한민국 건축사 업무 소개
Ⅱ. 국내 건축제도 개선에 필요한 해외 건축 정보 등 자료 조사 업무
Ⅲ. 건축사 회원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필요한 사전 활동
Ⅳ. 국제 경쟁력 함양에 필요한 국가와의 협약 체결 등
Ⅴ. 기타 활동 목표에 적합한 제반 사항

※현재 서울시와 2017 UIA 총회 서울 유치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자 격

Ⅰ.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Ⅱ. 국제 공용 언어인 영어 능통자 또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능통자 환영

제출 자료

Ⅰ. 이력서
Ⅱ. 활동 의향서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국제팀 사무국 – 한효림 과장
  Tel. 3415-6826 / E-mail. hrhelen2@gmail.com
- 국제위원회 – 김성민 위원장
  Phone. 010-4314-0625 / E-mail. smkim@hanssum.com

한국건축문화대상展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展

계획건축물부문

대 상

• 공 생

우 수 상

• 자생적 삶을 위한 제로 커뮤니티
• 도시와 천 그리고 학교, 그곳에서 쉬다
• 자연스러운 자갈치
• 침식된 경사지를 회복시키다
• 땅으로 내리고 물로 뜨다 (신곡양배수장 리노베이션 계획)

특 선

• 자연발생형 도서지역의 생태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안
• 난지 새로이 꽃피다
• 존속(存續) – 중지도에 바람이 불다
• 랜드스케이프 카펫
• 자연으로 스며들다
• 오감과 함께한 청계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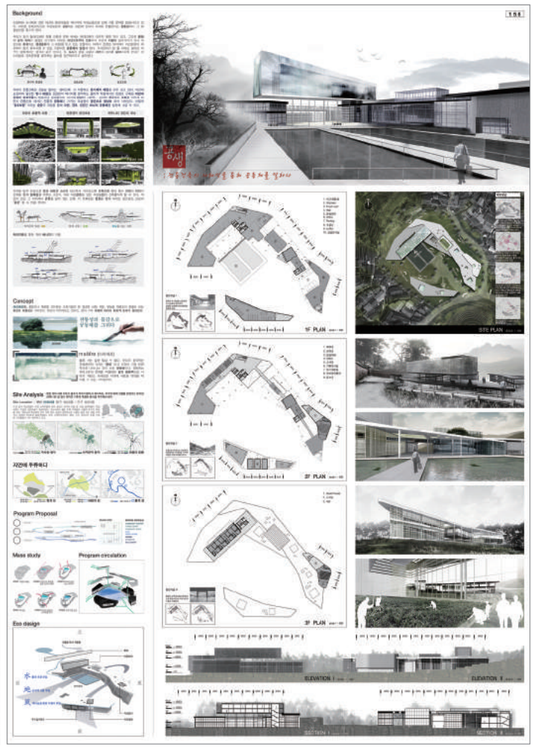
입 선

• 자연 위를 거닐다
• 훼손된 자연의 재생과 삶의 공간으로의 유입의 계획안
•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_친환경적 추모공간을 통한 공원화 계획
• 조수간만으로 변화하는 포구도시 군자만
• 공존(共存)
• 잊다, 그리고 잇다
• 그린 스케치
• 그만파라, 마이 아프다!
• 자연과 하나가 되다
• 낙동강 나루터 복원을 통한 문화친수공간 계획안
• 기억의 씨앗을 심다
• 도시와 자연 사이, 폐부두의 풍경
• 우물터 – 잃어버린 사람 터 –
• 낙산공원의 자연요소와 대학로 예술문화의 결합을 통한 산동네 개선 방안
• 아이야, 자연을 품에 안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자!
• 자연 : 날 건들지마
• 호혜적인 경계
• 건축, 자연의 품에서 공간을 만들다
• 그대로 흐른다
• 회현 시민아파트, 자연으로 돌아가다
• 장항, 단비로 적시다

공 생

조흥래, 최용기, 옥민진 _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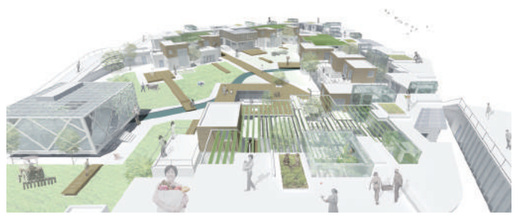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환경개발은 에너지와 자연남용으로 인해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계화 흐름보다는 전통성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전통건축과 문화 속에는 현대건축이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문화와 삶의 지혜가 결합된 것으로서 대부분 자연으로부터 연유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는 생성윤회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구현이란 공동체의 실현에 있다. 도시전체가 한 몸이라는 생각은, 지구는 생명체라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즉 도시의 생성 소멸이 자연의 섭리를 닮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야말로 건축문화를 생각하는 올바른 접근태도라고 생각한다.



자생적 삶을 위한 제로 커뮤니티

심창경, 유양현, 소재남 _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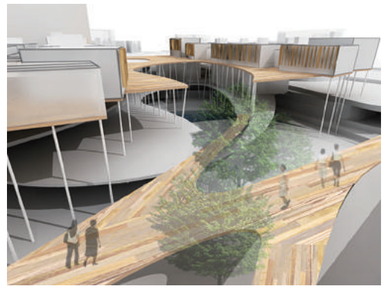
주거는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과거에 자연적인 삶의 방식에서 르 꼬르뷔제는 유니떼 다비다시옹 아파트 타입의 보편적 주거건축유형을 제시하면서 균일한 LDK방식과 기능적인 주거 Image로 현대인은 적응되어 갔다. 현재의 주거는 기존보다 어메니티, 기능적 요소가 더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LDK 단위 방식의 틀은 변화하기 힘든 요소로 전락하게 되었다.
최근 그린벨트 내의 무분별한 주택개발은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한 난개발과 자연적 요소를 파괴하고 또다시 도심의 인프라를 의존해야하는 이 시점에서 그린벨트 내의 새로운 주거개발은 LDK단위를 대체하여 자연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연 안에서의 최소의 점유방식, Zero타운의 자생적 Community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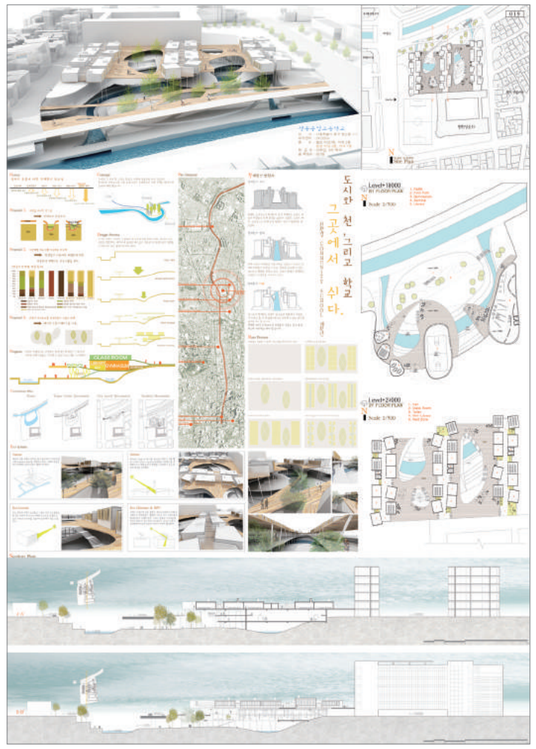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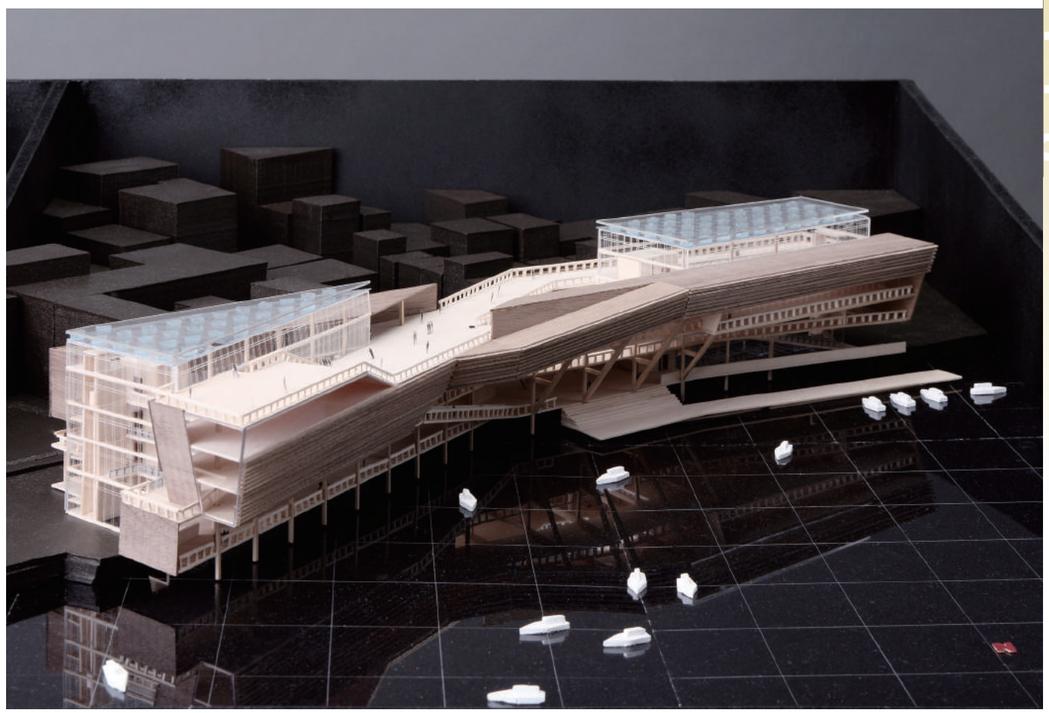
도시와 천 그리고 학교, 그곳에서 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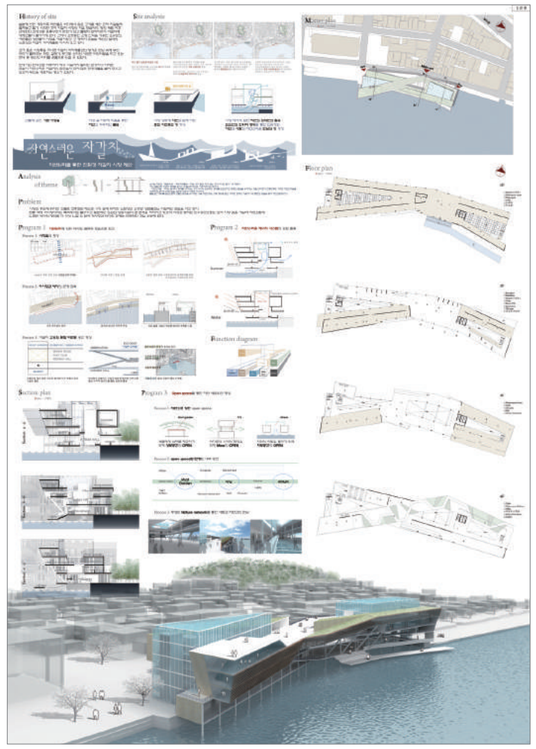
이수정 _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김용규 _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건물들로 인해 빽빽한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천'이라는 선적인 요소는 사람들의 흐름만을 유도시킬 뿐이다. 도심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선적인 요소에 숲이라는 점적인 요소를 삽입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자 함이 이 계획의 기본 취지이다.
대지로 선택한 성동고등학교는 청계천변에 바로 맞닿아 있는 유일한 학교로서 도시에서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성동고는 현재 학생들의 수업공간인 본관을 개축공사 중이다. '천'이라는 자연요소를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성동고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연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청계천 물길을 학교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기존의 청계천이 주변의 프로그램과 얽히지 못하고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만 했던 것을 보완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하였다.









자연스러운 자갈치

이상호, 김용찬, 김주란 _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매스에 갇힌 시장 길을 열어주어 주변 환경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경계를 제거한다. 분절된 매스는 시장 길을 연장하고 길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어시장의 문화이벤트 공간을 만나게 된다.
바다에 인접한 특성을 활용하여 대지 안으로 바다를 적극적으로 들이며 송풍탑과 같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바닷바람의 순환 원리에 따라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시장에 필요한 환기기능을 하도록 유도하며 층별로 적층된 내부공간에 바다를 들인다. 이는 자연과 사람의 만남을 더욱 자연스럽게 하며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여 냉난방 부하를 줄여준다.
불필요한 상업공간 대신 자갈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갈치축제, 상설시장, 나루터에서 일어나는 체험이벤트 행위 등을 담을 수 있는 공간과 부산의 다양한 해산물을 맛 볼 수 있는 곳을 둔다. 이곳은 전통건축에서 볼 수 있는 반 외부공간인 마루와 마당과 같으며 자갈치의 자연과 함께 노닐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자갈치시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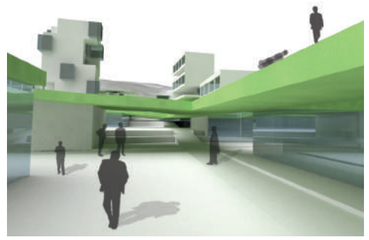
침식된 경사지를 회복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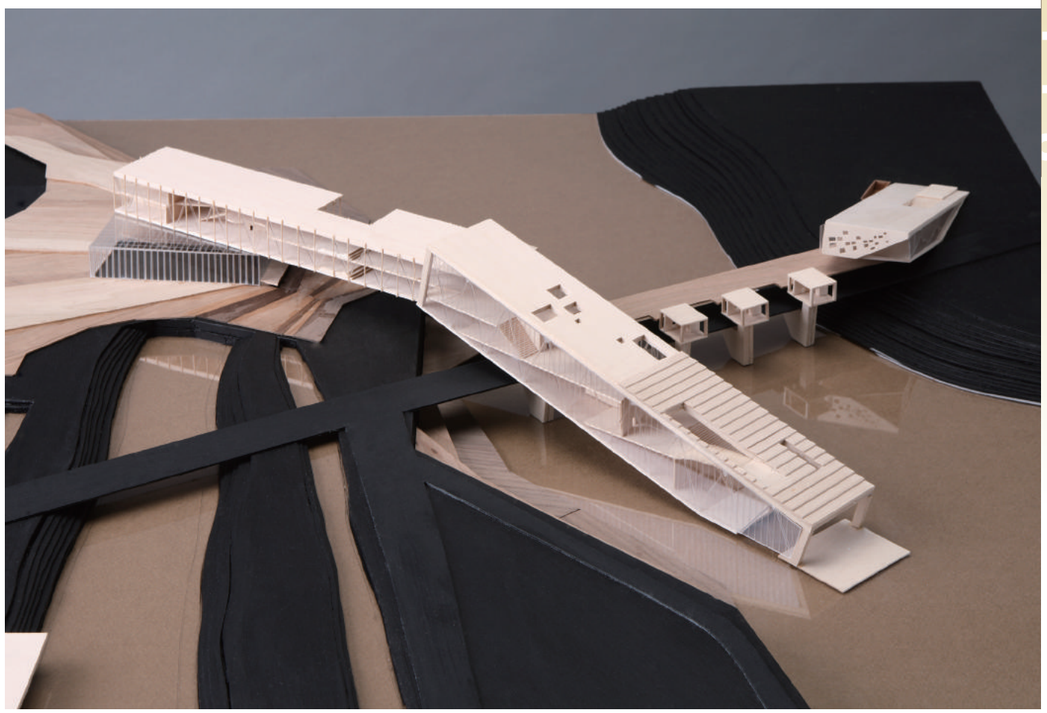
김진성, 오준호, 양지훈 _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악순환 되고 있는 도심 내에서 도시 공간의 자정능력을 수행하는 녹지공간의 복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도심에 녹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도시적 기능을 지워내고 자연공간을 형성한다면 그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또 다른 자연공간의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화된 도시공간에 도시적 기능을 재정비하고 본연으로서 수행했던 녹지공간을 결합시킴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상생하는 Urban Void를 형성한다.

기존의 지형을 복원하고, 도시의 축을 기준으로 블록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성격별 조닝을 하면서 대지 내외부의 도시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결합하게 한다. 더불어 경사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친환경시스템을 부가시켜 자가적인 발전과 정화능력이 가능토록 한다.

밀집화된 도시공간 속에서 도시 확장으로 침식되어 노후화된 경사지와 자연공간들을 Green Solid로 채워가면서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가고 자연공간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녹색 도시로의 변모를 기대한다.





땅으로 내리고 물로 뜨다
(신곡양배수장 리노베이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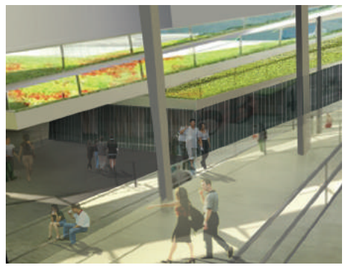
정하영 _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인류의 도시생성은 강을 따라 만들어졌다. 서울 역시 한강을 따라 발전해왔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수 문화공간이었던 한강은 점차 개발로 인해 자연을 파괴하는 현상을 낳았고 현재에 와서는 자연과 물, 인간과 도시라는 단절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한강에도 자연을 생각하고 순응하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고 이용하는 개발로써는 부족함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자연이, 물이 도시와 함께 어울리며 순응하고 소통하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본 건물은 원초적인 3차원 공간을 구현하는 Box를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소재인 목재와 한국적 건축요소인 중첩과 관입을 통해 자연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한국의 전통미를 극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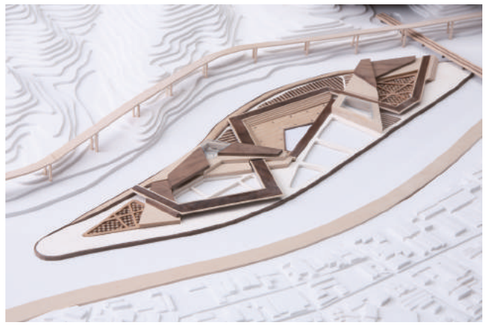


자연발생형 도서지역의 생태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안

| 정수진, 우종희, 박윤동 _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난지 새로이 꽃피다

| 김성중, 양희진, 송대한 _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존속(存續) – 중지도에 바람이 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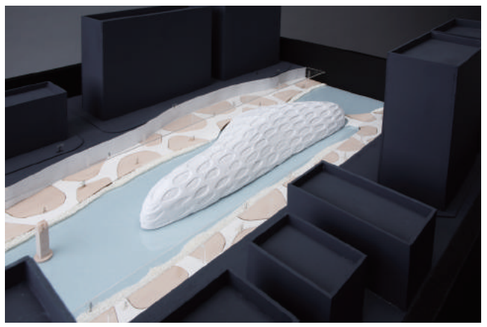
| 이준희, 정민화, 손재현 _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랜드스케이프 카펫

| 강성엽, 곽남윤, 양승일 _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자연으로 스며들다

| 장하종, 정재철, 오수민 _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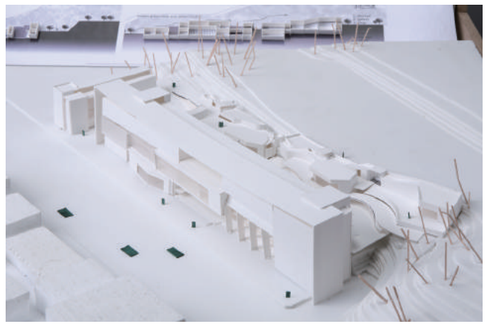


오감과 함께한 청계천 만들기

| 유영수, 위대한 _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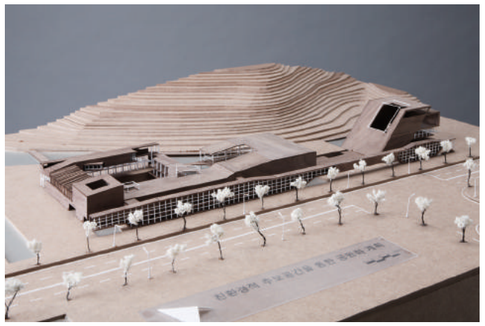
자연 위를 거닐다

| 천진호 _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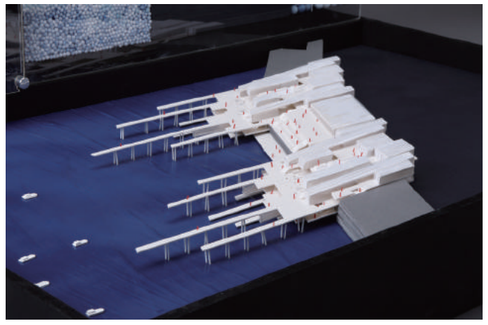
훼손된 자연의 재생과 삶의 공간으로의 유입의 계획안

| 백연자 _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_ 친환경적 추모공간을 통한 공원화 계획

| 심광기 _ 국립 한밭대학교 건축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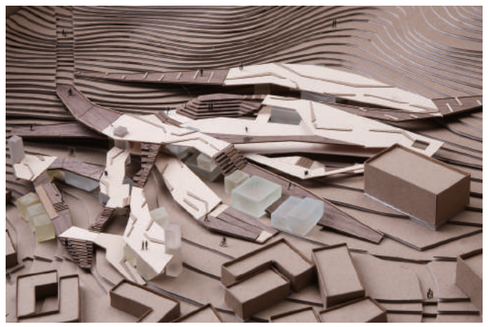


조수간만으로 변화하는 포구도시 군자만

| 김남수, 이상윤, 김정은 _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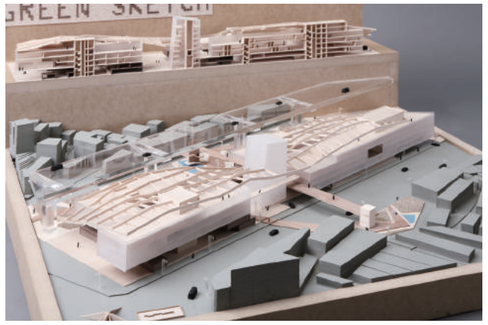
공존(共存)

| 정다혜 _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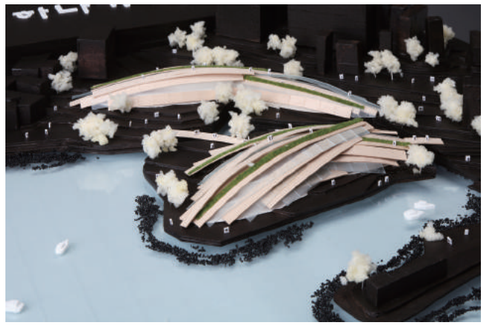
잊다, 그리고 잇다

| 채가영, 김장한 _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그린 스케치
| 전봉수, 박주석, 박찬우 _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그만파라, 마이 아프다!
| 한아름, 고은옥 _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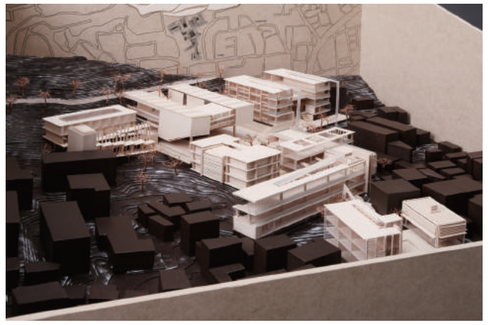
자연과 하나가 되다
| 현미주 _ 부경대학교 건축학전공

낙동강 나루터 복원을 통한 문화친수공간 계획안
| 김현진 _ 지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석경훈 _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우물터 – 잃어버린 사람 터 –
| 장원주, 박찬일, 전성환 _ 중앙대학교 건축설계학과

도시와 자연 사이, 폐부두의 풍경
| 정유미 _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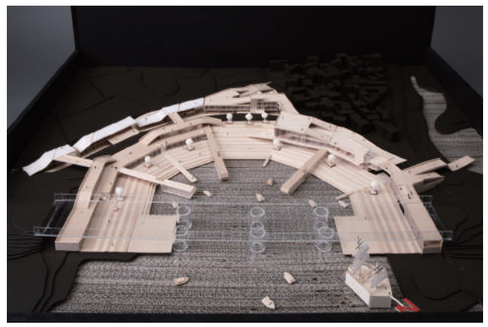
기억의 씨앗을 심다
| 김나연, 최보민, 정일석 _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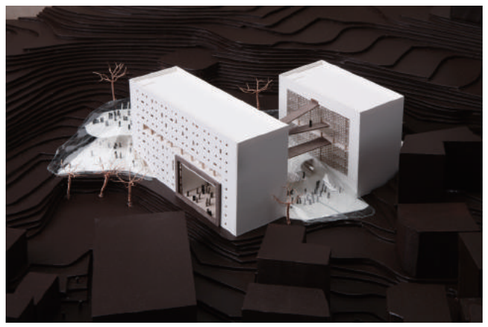
낙산공원의 자연요소와
대학로 예술문화의 결합을 통한 산동네 개선 방안
| 황현혜 _ 홍익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과

아이야, 자연을 품에 안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자!
| 임나정, 이민지, 김관중 _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자연 : 날 건들지마
| 한상희, 박천범, 김영후 _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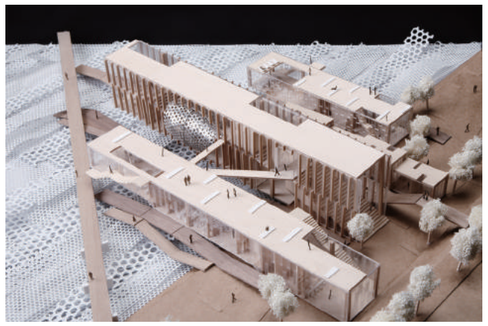


호혜적인 경계
| 백승엽 _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회현 시민아파트, 자연으로 돌아가다
| 김규엽 _ 영남대학교 건축학과

입선



그대로 흐른다
| 최 헌, 박초아 _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장항, 단비로 적시다
| 윤진용, 윤재훈 _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건축, 자연의 품에서 공간을 만들다
| 민영철, 주현돈 _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심사 이모저모

작품리뷰 REVIEW

남서울교회

Namseoul Church

이용우 건축사 |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용우 건축사는 착실히 건축을 배우고, 또 매우 차분히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 건축사였다.
그는 교회건축을 통해서, 건축의 의미와 그가 할 일을 찾는 것으로 보여졌다.
설계를 하면서 매우 진지하게 숙고하는 과정이 그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리라….
특히 BIM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효율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그의 건축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앞으로도 자연을 담고, 주변과 조화로운 교회다운 교회를 기대한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 :** 이제 여러 회를 거듭하면서, 저희 인터뷰도 성숙해가는 느낌입니다. 반응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인터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이 :**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취지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건축사님과 사무소에 대해 이야길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인터뷰가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와 네트워킹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를 통하여 다른 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간접적이나마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건축사들 간에 공유되는 문제의식이나 내용을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 :** 각 사무소마다 창업의 시기가 상당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큰 사무소의 대표를 하시다가 개인 사무소를 여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가 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후에 창업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3년 일하고 창업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용우 건축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 **이 :** 맞습니다. 언제 창업하느냐는 각각 다르겠지요. 저는 좀 빠른 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중업 선생님 사무소에 들어가서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서 시작하였으니까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회사에서 나와서 건축사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을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한 것이지요. 작은 주택 하나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 밖에는 특별하게 보장된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 **유 :** 그 때 시작하신 사무소 이름이 별빛건축이었나요?

● **이 :**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영배 교수님이 운영하시던 도성건축이란 사무소에 파트너처럼 일을 하였던 것이었어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5년간 김중업건축연구소에 있었던 후에, 연이어 도성건축에 1년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저의 개인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 **박 :** 김중업건축연구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 **이 :** 진주문화회관으로 시작해서 예술의전당 현상설계, 그리고 을지로 재개발 현장의 실시설계와 감리책임을 맡아서 현장에 2년간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얼마 안 된 동안에 아주 큰 일들을 하였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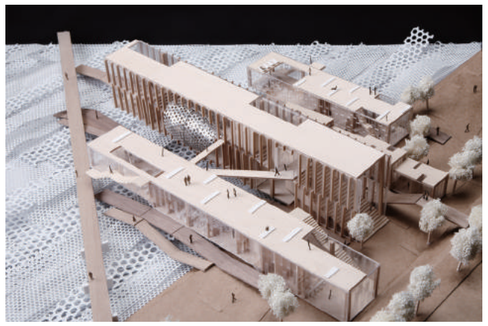
● **박 :** 그 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겠군요.

● **이 :**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을지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좀 별난 경우였지요. 도면이 완비된 후에 시공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초에 은행 본점이란 것까지만 알고 설계한 것인데, 납품 직전까지 어느 은행이란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외관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지만 내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인터뷰 일자 2010년 9월 27일
장 소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회의실
참 석 자 이용우 건축사 /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유정훈 교수 / 우송대학교 건축학과

review

입선



그대로 흐른다
| 최 헌, 박초아 _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장항, 단비로 적시다
| 윤진용, 윤재훈 _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건축, 자연의 품에서 공간을 만들다
| 민영철, 주현돈 _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심사 이모저모

작품리뷰 REVIEW

남서울교회

Namseoul Church

이용우 건축사 |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용우 건축사는 착실히 건축을 배우고, 또 매우 차분히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 건축사였다.
그는 교회건축을 통해서, 건축의 의미와 그가 할 일을 찾는 것으로 보여졌다.
설계를 하면서 매우 진지하게 숙고하는 과정이 그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리라….
특히 BIM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효율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그의 건축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앞으로도 자연을 담고, 주변과 조화로운 교회다운 교회를 기대한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 :** 이제 여러 회를 거듭하면서, 저희 인터뷰도 성숙해가는 느낌입니다. 반응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인터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이 :**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취지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건축사님과 사무소에 대해 이야길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인터뷰가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와 네트워킹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를 통하여 다른 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간접적이나마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건축사들 간에 공유되는 문제의식이나 내용을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 :** 각 사무소마다 창업의 시기가 상당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큰 사무소의 대표를 하시다가 개인 사무소를 여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가 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후에 창업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3년 일하고 창업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용우 건축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 **이 :** 맞습니다. 언제 창업하느냐는 각각 다르겠지요. 저는 좀 빠른 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중업 선생님 사무소에 들어가서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서 시작하였으니까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회사에서 나와서 건축사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을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한 것이지요. 작은 주택 하나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 밖에는 특별하게 보장된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 **유 :** 그 때 시작하신 사무소 이름이 별빛건축이었나요?

● **이 :**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영배 교수님이 운영하시던 도성건축이란 사무소에 파트너처럼 일을 하였던 것이었어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5년간 김중업건축연구소에 있었던 후에, 연이어 도성건축에 1년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저의 개인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 **박 :** 김중업건축연구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 **이 :** 진주문화회관으로 시작해서 예술의전당 현상설계, 그리고 을지로 재개발 현장의 실시설계와 감리책임을 맡아서 현장에 2년간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얼마 안 된 동안에 아주 큰 일들을 하였던 것 같아요.

● **박 :** 그 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겠군요.

● **이 :**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을지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좀 별난 경우였지요. 도면이 완비된 후에 시공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초에 은행 본점이란 것까지만 알고 설계한 것인데, 납품 직전까지 어느 은행이란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외관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지만 내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인터뷰 일자 2010년 9월 27일
장 소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회의실
참 석 자 이용우 건축사 /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유정훈 교수 / 우송대학교 건축학과

review

전경

주출입구

남서울교회

● **박 :** 당시 발주처가 어디였나요?

● **이 :** 지금으로 보면 토지주택공사였죠. 납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은행(현, 기업은행)이 들어오기로 정해졌어요. 현장은 3개의 지구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각 한화, 쁘렝땅 백화점, 중소기업은행으로 나뉘었고, 설계도 3개 회사가 각각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설계자가 선정되었던 것인데, 지하층만 공유하고, 지상부는 서로 달리 했습니다. 사실, 단지계획이란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에선 건물들 서로 간에 무언가 유기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마스터 아키텍트(Master Architect)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중정이 좀 어색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 직전에 입점할 은행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도면이 거칠게 납품되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많은 것을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사무소 안에 있었더라면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가 사무소가 가장 활기차게 돌아갈 때였거든요. 김중업 선생님도 활발히 일을 하셨고, 저하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곽재환 선생도 계셨습니다. IBC(국제 방송센터), 올림픽상징 조형물 등을 하였을 때인데, 저는 현장근무를 하느라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물론 간혹 사무소에 들러서 아이디어 교환정도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론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 **유 :** 아무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집중이 많이 필요했던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박 :** 당시에 김중업 선생님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 **이 :** 현업에 안 계신 원로들이 꽤 되시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말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곽재환 씨, 이일훈 씨 등이 계셨죠. 제가 현장에 나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오고 갔어요.

● **박 :** 사무소에는 몇 명 정도가 계셨었나요?

● **이 :** 한 10여명 정도… 당시가 김중업 선생 귀국 후 가장 컸을 때가 아닌가합니다.

● **유 :** 김중업 선생은 항상 10여명을 넘지 않은 사무소를 운영 하셨나는 말씀인가요?

● **이 :** 그렇습니다.

● **박 :**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김중업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김수근 선생님은 공간이란 회사를 운영하시고, 상당히 조직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중업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회사 운영을 하셨나요?

● **이 :** 제가 아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아틀리에(Atelier)였지요. 어떤 새로운 일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예를 들어 지어지진 못했지만, 강남에 아나아트센터라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가 있었지요. 3~400평 정도를 설계하는 것이었는데 선생님이 우선 화두를 던졌어요. "여기에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고 나면, 직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하며 머리 싸매고 고민 고민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미리 생각해 놓은 것이 있으셨겠지만,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원추형의 건물이 설계되었어요.**

● **유 :** 그러니까 어떤 그림 같은 것을 앞서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 **이 :** 그림은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케치 한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는 식이 아니라, 화두를 던지고 스태프들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 다시 원하시는 바대로 방향을 수정하며 진행하셨던 것이지요. 지난 후에 보니까, 저도 배운 게 그런 거라 그런지,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더군요.

● **유 :** 그럼 김중업 선생님도 그렇게 배우셨을까요?

● **이 :** 사실 저는 근무기간에 비하여서 김 선생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르 꼬르뷔제 선생에게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듣지 못하였어요. 제가 있었던 5년이라는 근무기간은 그 곳에서는 매우 긴 편이었지요. 대부분 한 1~2년 정도 일을 하고 떠나더군요.

● **박 :** 다른 분들의 근무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이 :**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추측하자면, 그 만큼 혹독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 **유 :** 근무시간이 길었나요? 아니면 업무 자체가 힘들다거나…

● **이 : 당연히 퇴근시간이란 것이 따로 없었죠. 또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하니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 박봉에 힘들었겠죠. 하지만 당시 거의 모든 사무소 상황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유 :** 그때가 80년대 초로 제가 일할 때와 비슷한 시기일 텐데요. 당시 세간에는 김중업 사무소는 돈을 내고 다닌다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박 :** 이용우 건축사님은 어떻게 김중업 선생님 사무소에 들어가시게 되셨나요? 돈을 내고 가셨나요? (웃음)

● **이 : 대학 졸업하고, 한일개발이라는 건설회사를 들어갔어요. 하지만 계속 설계를 하고 싶어서 설계실로 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라빅이라는 시멘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숙소를 짓는 일이었고 그곳의 샵 드로잉 팀을 맡게 된 것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도면을 그리면 그것을 제가 관리하는 업무였어요. 당시 저는 대학 갓 졸업한 초년병인데, 거기서 책임자가 되어버린 거지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보니,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유 :** 설계는 어디서 한 것인가요?

● **이 :** 설계는 터키에서 해 온 것인데요. 숙소라고 하지만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였어요. 단지계획은 손가락 모양으로 재미있게 된 것이었는데, 직원숙소이다 보니 품질이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도면이 기본도면 정도의 수준 밖에는 없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설계를 좀 하긴 해야 했지만 제 성에 차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좀 다른 일할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월간지인 건축문화에서 기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건축사들을 소개 해달라고 했고, 김중업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뵙고서 일하고 싶다 했더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 **박 :** 건축사사무소, 그러니까 김중업 사무소 5년과 도성 1년 이전에 건설회사 1년의 경력이 더 있으신 거군요.

● **유 :** 사우디에서는 배우고 도움 받을만한 선배들이 없었나요?

● **이 :** 전혀 없었어요. 원래 한일개발에 설계실이 있는데, 본사에 있었고 현지 제다에도 설계실 본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설계실 소속이 아니고 신입사원 연수교육 받고서 별도로 현장에 나가게 된 것이라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 **유 :** 그래도 졸업 직후에 그렇게 일하시려면 학창시절에 매우 열심히, 또 성실히 공부했었겠어요.

● **이 :** 네. 그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아직까지도 써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 :** 그러면 도성 다음이 별빛건축인가요?

● **이 :** 아닙니다. 제가 사무소 이름을 여러 차례 변경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사무소를 연 것은 논현동에 차린 토건축이라고 합니다. 1992년에서 1997년까지 한 5년간 IMF외환위기 직전까지 했어요. 중간에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과정 등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디자인 토로 바뀌었어요. 후배들과 함께 하였고 방배동에 사옥을 차렸는데, 건물 전체를 빌렸어요. 우리가 디자인해서 짓고 전세를 얻은 것이죠.

● **유 :** 그 무렵에 지어진 건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이 :** 당시에 지어진 건물은 발표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근생, 작은 호텔, 공장 등 일이 제법 많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작품이라고 할 순 없어요. 일 자체가 좋은 건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지요.

● **박 :** 당시에 직원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 **이 :** 한 15명 정도 되었지요.

● **박 :** 상당한 인원이군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로는 괜찮은 시기였겠네요.

● **이 :** 그렇죠. 당시에는 매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이 상태로 계속가면 제법 자리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 **박 :** 토 건축의 주 프로젝트 마켓이 민간분야이었겠네요.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연결 되었나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양평 미쓰바기도원 전경

충주 산탄교회 전경

● **이 :** 예. 민간분야의 일이 전부였지만, 소위 '브로커' 등으로부터 일을 소개받지는 않았어요. 모두 저희가 아름아름 알아서 알게 된 고객들이었지요. 그러다가 IMF외환위기 때, 당시 후배들하고 함께 사무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일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모든 프로젝트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요. 각자 나서서 살길을 찾자고 하였지요.

● **박 :** 저희가 한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은 함께 일하다 헤어지는 것이 '서로 잘 될 때 그렇다.' 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이 경우는 그 반대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네요.

● **이 :**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회사가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3개의 회사가 되면, 공공에서 입찰이나 현상 등에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 **박 :** 그럼 IMF외환위기 다음에는 어떠했나요? 그 다음이 별빛건축인가요?

● **이 :** 네. 그런데 토 건축도 그렇고, 별빛건축도 그렇고, 또 여기 칸도 그렇고, 이름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 **박 :** 별빛건축이란 이름은 어떻게 지은 것인가요?

● **이 :** 약간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건축과는 상관없이, 우리 집 아이들 이름이 참별과 참빛입니다. 그래서 별빛으로 이름을 지었지요. 저희 가족 이름이 별빛가족입니다.

● **박 :** 재미있습니다.

● **이 :** 독립하기 1년쯤 전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설계하게 되었어요. 충주의 삼탄교회와 양평의 미쓰바기도원을 하게 되었는데, 삼탄교회는 한 60평 정도이고, 미쓰바기도원은 한 250평정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 건물들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빛이란 이름이 교회의 이미지와 잘 맞는 거예요.

● **유 :** 별빛건축은 언제까지 지속되었나요?

● **이 :** 2006년까지 했습니다.

● **유 :** 그 전의 사무소들에 비해 오랜 기간 하신 것이네요.

● **박 :** 당시에 별빛건축은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 **이 :** 많을 때는 한 7명 정도 되었습니다. 적을 때는 3명이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동안 인원은 계속 변동 되었습니다.

● **박 :** 그 기간 중에 대표작이라고 말씀하실 건축이 있나요?

● **이 :** 그게 포도원 교회입니다. 노출콘크리트이고, 미송무늬 거푸집, 시스모를 사용하였고, 대구 칠곡에 있고 200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의 종교부지에 지었는데 지구의 경계부에 위치합니다. 교육관을 증축할 수 있도록 마당에 기둥을 미리 만들어 두고 조명을 얹었습니다. 2006년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경

내부

대구 포도원교회

● **박 :** 실내가 매우 훌륭합니다.

● **유 :** 하시고 싶은 것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단에 칠판이 있네요.

● **이 :** 네, 목사님이 강의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출신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본당만 있습니다. 처음엔 1층이 필로티였는데, 준공 후에 다시 증축을 하여 1층을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 **유 :** 지금도 이대로 인가요? 건물이 부족하진 않나요?

● **이 :** 현재도 이대로 있는데, 지금은 좀 부족할 거예요. 유치부만 한 200명 정도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이 한 50명 정도였거든요. 이 교회를 끝낼 즈음에 안동 광덕교회 등 전국적으로 교회설계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했던 삼탄교회의 건축과정과 목사님에 관한 글이 농촌목회라는 잡지에 쓰이게 되었어요. 그 후에 전국에서 농촌교회 일을 하게 되었지요. 소규모 농촌교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삼탄교회는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 것에는 300평도 보다 작은 농촌 교회가 많아요.**

● **유 :** 시골의 교회인데도, 이러한 디자인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 **이 :** 사실 저도 이런 노출콘크리트의 건축이 시골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는데, 오히려 잘 인정하셨어요. 안동의 광덕교회는 더 재미있었지요. 그 교회의 터는 안동 하회마을 부용대 반대쪽에 위치한 부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짓든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이었지요. 땅은 2,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딱 100평만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본당만 있는 교회인거죠. 그런데 매우 걱정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동이라는 전통성이 강한 지역에 그것도 잘 보이는 땅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기와지붕의 교회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모던한 도시적 교회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착수 이후에도 몇 달간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 중에 매우 세련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게는 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분에게서 중간에 전화가 한 번 왔는데, 제가 아직 구상이 안 되었다고 하니, 또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 걱정 말고 계속 구상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이 크리스마스였고,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날 생각이 탁 떠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보에 스케치를 했죠. 그 생각은 바로 물고기였어요.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우물을 못 판다고 합니다. 하회마을의 생긴 모양이 방주 같아서 거기에 우물을 파면, 배 바닥에 구멍이 생겨 마을이 침몰한다는 것이었죠. 또 그 말이 지켜진 게, 당시 양반사회에서 양반은 물 길러 다니지 않았으니,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배는 언제든 가라앉을 수 있지만, 물고기는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고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의 이미지가… 로마시대 때 기독교가 박해 받던 시절에 교회의 상징이 물고기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서로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낙동강 건너편에서 대지가 보이는데 대지가 수면 하고 거의 높이 같아서 건너편에서 볼 때 등대처럼 환하게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러한 여러 생각을 잘 조합하면서, 그래도 전통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니까 한국적 건축의 느낌을 어떻게 줄까 생각을 하면서 목구조 같은 기둥과 보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물론 콘크리트로 만들긴 했지만.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 평상시 예배에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매해 여름에 그 노회에서 이곳에서 수양회를 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수용하는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용적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회마을 양반 댁에서 볼 수 있는 분합문[1]의 개념을 이용하여 내부 예배당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의 병산서원을 보면, 동제와 서제가 있고 가운데 공간이 있듯이 예배당의 가운데 부분을 마당처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각 실이 붙어있고 예배당을 향해 분합문으로 연결되게 하자는 게 주된 개념이었고 교회에서도 매우 좋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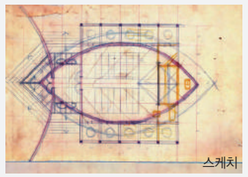
● **박 :** 그러다가 2006년도부터 칸 건축이란 것을 시작 하시게 되었군요.

● **이 :** 저하고, 방철린 선생님하고, 곽재환 선생님하고,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각각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전경

야경

배치도


스케치

안동 광덕교회

곽재환 선생님은 저하고 김중업 사무소에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만났을 때에는 맥 건축이란 사무소를 하고 계셨고, 방철린 선생님은 공간에서 정림으로 가셨다가 인토건축이란 사무소를 하였었죠. 그전에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진 못했습니다. 전 별빛건축을 하고 있었고요.

● **박 :** 그럼 곽재환 선생님이 중간자가 되셨겠네요. 두 분을 모두 아셨으니까.

● **이 :** 그래요. 그렇게 모여서 서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우리 모두 동감을 했지요.

● **박 :** 그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 :** 글쎄요. 각자의 처해졌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제 경우는, 사무소가 매번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사무소 규모가 작다보니 다양해지지도 않고, 프로젝트의 품질을 더 높이고 싶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애를 먹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거의 모든 감리를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제가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가 합쳐져서 규모를 키우면, 좀 더 유용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 **유 :** 1997년에는 파트너들과 헤어지셨는데, 2006년에 다시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신 거네요.

● **이 :** 그래요. 그렇지만 1997년 이전에는 모두 같은 학교 출신이고, 제가 선배이다 보니 제가 리더가 되어, 사무소를 이끌게 되었었지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이었어요.

● **박 :** 그렇다면 지금의 칸 그룹은 학교 친구들에서 벗어난, 소위 '프로'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네요.

● **유 :** 그럼 새 사무소를 함께 쓰시게 되었을 때,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오신 것인가요?

● **이 :**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직원이 모두 몇 명되지 않았습니다.

● **박 :** 이름의 구조에 대해 좀 궁금한데요. 칸도시도 있고, 사무소 입구에는 칸그룹으로 되어있고 해서요…

● **이 :** 그건 우리가 같이 일하고, 발표를 하고, 셋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룹 칸'으로 하자고 했고, 좀 더 정확하는 '건축그룹 칸'입니다. 그리고 사무소는 '각자 독립된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성숙하고, 서로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면 합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인원이나, 사무소 등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 **박 :** 들어보면, 독립채산제인 것 같고요. 사무소를 공유하자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일정부분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을 쓰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용우 건축사님이 일이 많아서 직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곽재환 선생님도 일이 많으셔서 직원을 써야 한다면 결국 사람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1) 분합이라고도 한다. 겉창과 같으나 아래쪽에 통널 조각을 대고, 흔히 4쪽문[四扇門]으로 만든다. 대개 고옥의 사당(祠堂) 정면에는 분합문을 달아 제례 때는 활짝 열어놓는다.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653)

● **이 :** 글쎄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불행이겠죠. 아직까지는 프로젝트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어요.

● **유 :** 직원들이 전부 자기 소속이 있겠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회계나 경력관리 등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박 :** 지금 이런 회사의 포메이션은 매우 중요하고,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사항이라서 그런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세 분이 모인 것을 '건축그룹 칸'이라 하자고 하셨는데,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 **이 : '건축그룹 칸'을 등록할 순 없어서, 각자 사무소를 등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 칸도시, 칸종합, 칸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쓰고 있고, 그중에 칸 도시가 제가 운영하는 사무소입니다. 나중에 세 사무소가 통합 되었을 때, 혼란을 없애려면, 우선 이름을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 :** 세 분이 모여서 '건축그룹 칸'을 하고 계신데요. 함께 협업, 혹은 같이 일하신 경우가 있으셨나요?

● **이 :**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아이디어, 기획단계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사된 일이 아직 없어요. 사실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였는데, 막상 성사된 일은 없는 편입니다.

● **유 :** 현상설계 같은 것을 하시면,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현상설계는 많이 안 하시나요?

● **이 :** 저희는 교회 현상을 늘 하고 있는데 아주 큰 현상은 하지 않아요. **교회 현상도 거의 칸도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캐드프로그램으로 'Revit'을 쓰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쓰다보면, 거의 제가 기획안 다 잡고, 기획안 다 만들면 도면도 제가 다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 **박 :** 그래서 '건축그룹 칸'에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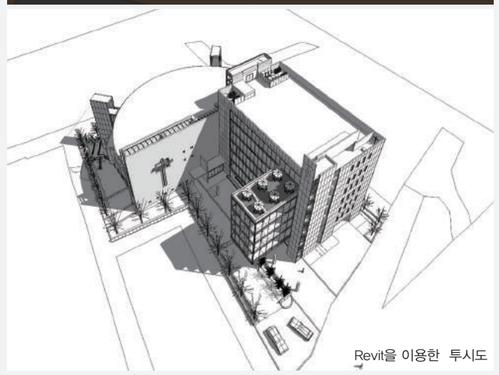
● **이 :** 지금 전부 5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적지만, 또 좋아질 것입니다.

● **유 :** 저희가 지금까지 인터뷰 한 사무소 중 가장 적은 인원인데, 또한 가장 효율적인 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 **박 :** 들으니까 궁금한 것이 더 많아 지는데요. 지금 'Revit'을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 :** 우선 **기획단계에서부터 스케치해서 방향이 나오면, 그때부터 레빗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것을 다 레빗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투시도도 모두 레빗으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남서울 교회도 현상설계로 당선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도 레빗으로 하였고요. 지금껏 제출물을 모두 레빗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 **박 :** 여기 나오는 2D도면도 모두 레빗으로 하신 것인가요? 실시설계까지 모두 그런가요?



Revit을 이용한 투시도

● **이 :** 보시는 도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시설계에서는 절반 정도만 레빗으로 하고, 나머지는 오토캐드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원을 충원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레빗을 주프로그램으로 쓰다 보니, 새로 들어 온 친구들을 교육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돼요.

● **박 :** 그렇다면, 직원 중에 레빗을 잘 다루는 직원이 있나 봅니다.

● **이 : 우선은 제가 제일 잘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좀 하고.**

● **유 :** 그럼 이 레빗이 사무소에 유용하다고 하실 수 있나요?

● **이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립해서 1988년에 면허 따고, 1990년부터 사무소를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 전 캐드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캐드작업은 주로 직원들이 하였고, 저는 차라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IMF외환위기 때 직원들 다 나가고 나니 제가 도면 그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캐드를 다시 배우는 것도 좀 그랬고,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레빗을 알게 되었죠. 그 전에는 스케치업을 먼저 알았고, 2003년부터 레빗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쓰다가 보니, 현상설계 할 때는 진짜 유용해요. 모델만 되어있으면, 수없이 많은 뷰(view)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시설계까지 이걸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 **박 :** 그럼 사무소에서 독자적인 레빗용 패밀리나 오브젝트, 기타 컨피규어(configure)를 구성하셨나요?

● **이 :** 기존에 있는 것에서 조금씩 수정하고, 약간은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교회의 가구까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존의 것을 약간씩 고쳐가며 쓰고 있습니다.

● **박 :** 직원들의 경력이 대개 어떻게 되나요?

● **이 :** 한 3년 정도 됩니다.

● **유 :** 오래 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이 :**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되네요. 제가 그 전에 별빛건축이나, 토건축 할 때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오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 내보내진 않았으니까 7, 8년 또는 10년 정도 된 직원들이 많았었어요.

● **유 :** 최근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꾸 옮기는 것이… 직원은 어떻게 뽑으시나요?

● **이 :** 전에는 전부 **학교나 교수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직원들에게서도 주변 사람을 추천 받았었죠. 요 근래는 그것도 쉽지 않아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박 :** 공개모집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 **이 :** 협회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내는 것이지요.

● **유 :**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시험 같은 것으로 하시나요?

● **이 :** 시험은 아니고, 포트폴리오 보고 성적표 보고… 그러지요. 인터뷰도 합니다.

● **박 :** 작은 사무소의 경우, 직원들 한명 한명의 중요도가 매우 큰 데요. 어떤 경우는 기대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대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직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나 겪는 일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건축사님의 직원 뽑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요?

● **이 :** 글쎄 뭐 제가 직원을 잘 뽑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옛날과 달리 요즘은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봉급은 상관없다. 일만 잘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이었는데요. 저는 중동에서 받던 월급의 1/7정도 수준의 급여로 건축사사무소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지 전 직원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숙한 친구들을 뽑기 어렵고, 많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전 크게 실망한 적도 없고, 또 반대로 크게 기대하는 적도 없고 그런 편입니다.**

● **유 :** 혹시 여기서 일하고 나간 직원들이 다른 사무소에 가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나요?

● **이 :** 네. 그런 이야기는 간간히 듣습니다. 잘 배웠다고…

● **박 :** 좋은 직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 :** 글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의 **건축설계에 대한 열정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굳이 원인을 밝히자면 세상이 많이 다양해 진 것도 한 몫인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방향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보니, 학생들 또 젊은 직원들의 건축설계에 대한 열정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건축설계는 재능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학교에서부터 어느 정도 준비되고, 사무소에서 경력을 열심히 만들어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건축사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5년제 졸업생들이 계속 배출될 텐데, 이들이 모두 설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계한다고 해도 문제이구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년제는 그래도 건축사, 건축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일 텐데 말이죠. 이 중에 얼마나 설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소양이나 교육을 받고 있느냐를 질문해 보면, 전 참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1년이나 더 투자 했는데, 남들과 다를 바 없다면, 이 과정의 의미가 어떨지…**

● **박 :**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아까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이 작은 사무소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프로그램 말고 사무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나 체험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 :** 저희는 **제가 주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저희 형편상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춘 효율이라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건축사가 모든 것에 콩나라 팥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다음 일이 없는 수가 생겨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작은 사무소가 효율이 좋다 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기 위해 힘들고, 끝나면 또 일이 없어서 힘들게 되죠. 기회만 되면, 어느 정도의 팀워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역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 **이 :** 2~3개 정도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어서,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작 기다리는 경우는 없지요.

● **박 :** 그럼 이 건축사님 보시기에, 사무소의 적정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한 세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 팀워크도 살아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물론 100명이 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최소단위를 말씀해 주신다면.

● **이 : 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면, 한 7~8명 정도 되면, 아주 큰 프로젝트가 아닌 웬만한 일은 두세 개를 함께 진행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한 팀이 세 명 정도 되면 되겠지요. 그런데 대개의 건축주들이 시작할 때에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갈수록 시간을 너무 당겨서 일들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남서울교회도 당선 되고나서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계약을 하고서는 3개월 만에 도면을 완성하여야 했어요. 또 감리도 저희가 할

학동주택 전경

수 없었습니다. 모회사에서 CM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잃었습니다.

● 유 : 그것이 교회에게도 매우 손해가 나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잘 못 보는 거죠. 그 논리가, 설계는 여기서 하고 감리는 저기서 해야 크로스 체크가 되고, 빈틈없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할 텐데 말이죠.

● 이 : **가장 큰 오해가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서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게 시공하고 준공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설계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또 설계가 완성되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변경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관공서에서는 그저 공사비 증액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그런 제안을 하였는데 그 때 반응은 왜 처음 설계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냐며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 :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축사님이 지내오신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가장 좋았던 것, 보람 있었던 것, 나빴던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 : 결국은 일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 포도원교회는 매우 작은 프로젝트였고, 또 진행 중에는 목사님하고 언쟁도 벌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제안한 모든 것을 수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적으로 저를 신뢰해주셔서, 시공자가 모든 것을 제게 문의해서 결정 받은 후에 시공 하였습니다. 못 하나 박는 것까지 제게 문의하였어요. 한번은 제가 등산을 갔는데, 오전 9시부터 내려오는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시공자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시공을 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건물을 만들었어요. 권기웅 목사님이셨는데, 참 감사한 경우죠. 이것이 참 보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한 것이니까요. 반대로 나빴던 경우라고 하면, 열심히 하려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복기를 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건축주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지요. 대개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의 증감이 바로바로 피부로 와 닿게 되니까 매우 힘들어 집니다.** 또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싸진다는 주변의 의견에 너무도 쉽게 물들게 됩니다. 제 경우에 노출 콘크리트 건물인데, 한 5층 높이 됩니다. 2층까지는 노출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거푸집을 3, 4, 5층에 다시 썼어요. 그러니 노출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리를 못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교회일이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준공할 때는 또 가서 봐드려야 했죠. 가서 보고는 칼로 난자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출이 좀 잘못되더라도, 요즘은 복원기술, 면처리 기술이 참 좋아서 어느 정도는 복구할 수 있는데, 하얀 본 타일 뿜칠로 전부 발라 버렸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고생을 하였던 것일까 생각 되었지요.

● 박 : 말씀을 들어 보니 역시 **우리나라 건축에서 기준의 부재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을 보면 설계 계약을 할 때, 이 건물의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설계비와 용역의 범위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준은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말씀처럼 건축주 직영공사인 경우, 설계업무가 대단히 많아지고, 그래서 설계자의 책임과 권한이 달라지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 설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결정이 이미 되어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시설계도를 그리는 수준과, 또 현장에서 감리하는 방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준이 없는 형편에서는 건축주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건축의 품질은 나빠질 수 있는 것이죠.

● 이 : 맞습니다. **국내의 보수기준 등을 보면, 업무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소위 기본이라는 게, 그것만 하면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냐? 등 기준이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책임만 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부실하고 그런 편입니다.** 문제가 큽니다.

● 유 : 사실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설계비 기준과 부합되게 정리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기준대로 했다고 해서 건축을 완성시킬 순 없다는 말씀이군요.

● 이 : 그렇습니다. 품질에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늘 고민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할 일이 많은데도 건축주들이 몰라서, 또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기준에 대비해서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경우죠. 양자 모두 경제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할 순 없겠습니다. 또, **관청의 설계 프로젝트 수주가 너무 치우쳐 있어요. 작은 사무소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BTL 같은 경우 보면, 서로 몇 십 킬로미터 떨어진 프로젝트를 모아서 100억 원 이상 만들어 발주하는데, 이것들이 왜 함께 모여 발주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 유 : 발주자들에겐 편리하겠죠.

● 이 : **건축의 품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데, 이 제도가 발주자에게 편리하다고 해서 품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 : 공공 프로젝트의 정의를 보면 사실 몇 개의 사무소에 일이 집중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집중되고 있다면 그것을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의무일 터인데, 그러기 보다는 계속 집중을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의와 반대로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면 좋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라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공 발주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적정한 안을 뽑아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 : **현실은 행정적 편의가 우선으로 흐르고 있다지만, 그것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 지금은 그렇다 쳐도, 학생들이나 이제 막 개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클 수 있을까요?

● 유 :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 다행입니다. 교단에서 인근 동네의 몇 개의 교회를 묶어서 발주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 유 : 이 남서울교회가 지금 하셨던 교회 중엔 가장 큰 교회인가요?

● 이 : 네, 1,600석 정도의 대예배당과 13,000㎡ 규모입니다.

● 박 : 현상설계로 당선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상 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이 : 지명 현상이었어요. 저희하고, 정주, 규빗 등 7군데를 지명했지요. 지침 등은 별 문제 없었고 오히려 신선한 편이었습니다. 가작까지 상금을 지급하고, 프레젠테이션도 모두 했고,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 박 : 심사는 외부에서만 진행했나요?

● 이 : 내부에서도 함께 한 것이, 두 개안으로 축소하여, 외부 심사위원과 성도들의 투표로 결정한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 정확한 판단을 하긴 좀 문제가 있지요. 아무튼 저희가 당선되었어요. **저도 상당히 놀란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투시도나 제출물을 레빗으로 작업하여 제출했거든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형도 없었고요. 좀 프레젠테이션이 약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2등안을 보았는데 투시도가 매우 훌륭하더군요.**

● 유 : 남서울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나요?

● 이 :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이죠. 고신이 보수적이라는 평판이 있긴 합니다.

● 박 : 보상금이 얼마나 되었나요?

● 이 : **2,0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 기간은 2개월 정도 되었어요. 저희의 경우는 투시도나, 모형 등을 외주로 작업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저희가 스스로 만들고, 기계, 전기 등의 컨설팅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저희는 그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무소들의 경우는 많이 모자랐을 거예요. 투시도나 모형 등에 우선 한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또 기타 컨설팅을 유료로 하였다면, 더 부족하겠죠.**

● 유 : 현상설계 당선 후에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나요?

● 이 : 아니에요. 그렇지 못했어요. 대지의 전면에 삼각형으로 도로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도로 공원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전면 사선제한 때문에 높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는 현상 시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또 대지를 좀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도로공원부지 안에는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었고, 소유는 시유지였습니다. 구매하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도로공원으로 되었습니다.

● 유 :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셨군요?

● 이 : 네. 그렇지만 아주 바빴습니다. 계약되지 않은 채로 대지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의 대안도 하나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일을 서비스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고 3개월 정도 후에 계약은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선금금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니까 괜찮았습니다. 또 외주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계획안을 계속 발전시켰죠. 그런데, 대지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심의, 허가가 잇따르고 허가 후에 2개월 내에 납품을 하여야 했어요. 갑자기 시간이 촉박해진 거죠.

● 유 :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획안이 변경되거나 하진 않았나요?

● 이 : 기본적 계획안은 유지되었어요. 대지 구매와 심의 의견에 따라 진입에 대한 내용이 약간 변경된 것 외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심의도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요.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 유 : 이 설계를 하면서, 무언가 굉장히 잘 되었다던가 또는 교회에게 크게 유리한 것이 만들어졌던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이 : 이 교회의 경우 **전 계속 발전시켜서 더 좋은 안을 만들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제가 감리를 못하고 CM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좋더라도 시공중에 발전안을 만들기엔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많이 고려했지요. 주변에는 2, 3층짜리 주거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대비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는 낮게 맞추고, 도로 쪽으로는 높은 매스를 사용하였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들과 잘 소통 할 수 있는 교회를 계획했습니다. 교회전면의 소공원과 연못 등이 그러하지요. 담장은 없지만 북측 대로와 주변의 소음과 번잡함으로 부터 보호되고 안정된 영적 영역을 확보하기위해 고심했습니다.

● 유 : 완공은 언제였나요?

● 이 : 올해 3월입니다.

● 박 : CM이 나서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였지요?

● 이 : 설계 계약하고, 안이 정해졌을 때 쯤 나타났어요.

● 박 : 그럼 설계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약하실 때와 실제 업무상의 조건이 달라진, 즉 설계변경에 준하는 조건이 아닐까요?

● 이 :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마감공사 때는 감리계약도 없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들려야 했습니다. 안 갈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애프터서비스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발언권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유 : CM회사는 어디였나요?

● 이 : 국내에선 제법 큰 회사이죠. 이 프로젝트의 경우, 어떻게 CM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CM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CM이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서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맡긴다하여도 별 성과 없이 상당한 비용만 소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 박 : 그럴 것 같습니다. **CM은 기본적으로 설계자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속성일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개입하게 되어서 무언가 건축주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만들어야 하니, 억지로라도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 건축주가 따지기는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기존 안이 좋은 데 뭐 하러 CM을 쓸까?' 한다면, CM의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지요.**

● 유 : 그럼 그 CM이 V.E. 같은 것도 하고 그랬나요?

● 이 :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공사 시작에서 끝까지 상주 1인을 했고, 각 파트마다 해당 공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감리 했어도, 똑같이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V.E.를 한다면, 공법을 바꾸거나, 재료를 바꾸거나 해야 절감이 될 텐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디자인상 재료를 막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는 공사비를 얼마 줄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끝난 시점에서는 실**

제로 줄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일을 왜 하나 생각하게 되지요. 태생적으로 CM은 건축주에 딱 붙어서 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감리는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있으면서 또 공공을 생각하면서 일하게 되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가치와도 상관있는 이야기죠.

● **유 :**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당 예배 때 가셨나요? 그리고 이 공사의 관련인들 중 순위에서 합당한 대우를 하던가요?

● **이 :** 네 가서 감사패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만일 그것마저 못 받으면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처음에 교회에서 CM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조건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디자인은 제가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일들이 서로 막 겹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본당 인테리어의 도면을 저희가 그렸어요. 당초 현상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 있는 인테리어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콘셉트를 다 만들었는데, 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해서 저희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진행해 버렸던 것이죠. 아쉬움이 큽니다. 자연채광 같은 것이 다 날라 갔어요. 천창도 있었는데…

● **유 :** 그럼 조명이 없으면, 깜깜하겠네요…

● **이 :**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발언권이 센 부서가 음향부서예요. 이들은 영상이 잘 보이도록 무조건 자연채광을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말이 없으면 자연채광은 전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음향설계를 할 수 있어서, 직접 소프트웨어 돌려서 음향설계를 하였고, 실제로 음향 시공에도 관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업체에서 제안한 데로 하더군요.**

● **박 :** 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들은 언제나 교회가 수지맞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업체가 수지맞는 방안으로 제안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 그냥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 **이 :** 제가 본당 내부에 대해서는 시각적 뿐만 아니라 음향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게 실현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 **박 :** 전체적으로 잘 유지되었지만, 인테리어, 본당의 내부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시겠어요.

● **이 :** 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교회의 내부가 되어버렸어요.

● **유 :** 그밖에 제안하신 것들이 더 있나요?

● **이 :**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자 시스템을 정하는 데 장의자와 개별의자 사이에서 좌석 수 때문에 여러 번의 제안이 있었어요. 저는 개별의자가 좋다고 했고, 교회는 장의자를 선호했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맨 마지막에 교회에서 개별의자로 바꾸었어요.

● **유 :** 앞으로도 계속 교회건축을 하시겠죠?

● **이 :** 그러고 싶지만 제가 **수주를 위한 그런 것을 참 못해요.**

● **유 :** 교회건축세미나 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산 동안교회

● **이 :** 가서 보니, 교회건축의 방향을 약간 오도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 **박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건축을 상업화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더군요. 교회라는 게 정성껏 해야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요.

● **이 :**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자주 이야기 하는 게, **좋은 건축으로 교회를 만들면, 형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길 하고 있어요. 종탑 없어도 되고, 건축자체가 좋으면 된다고…**

● **박 :** 오늘 교회에 관한 이야길 많이 했는데요. 이 건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건축에서 '이래야한다' 혹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유 :** 종교적인 내용도 괜찮습니다.

● **이 :** 교회건축 자체가 일반건물하고 기능이란 측면에선 대동소이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곳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서면, 무언가 느낌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역에 들어설 때부터, 또 성전에 들어섰을 때 그 공간과 분위기를 통하여 신의 임재라던가 신과의 소통, 이런 게 느껴지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느낌이 달라야죠. 결국 교회의 건물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건물을 통하여 일반건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경험을 심어주자는 것이죠. 교회건축은 Ikon(성화)과 같이 성서의 내용을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적인 것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친환경이란 화두가 유행인데, 교회가 바로 친환경을 앞장서서 이뤄야 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공기, 물과 주변풍경 등 자연환경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거기에 무언가 자꾸 덧대어서 자연환경을 가리면, 창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설계 소묘 중에 "교회의 인테리어는 내가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포도원교회의 내벽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채광이 달라져서 벽의 색깔이 바뀌고 음영이 바뀌면서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건축은 배경이고 화폭이 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빛과 시간으로 채우는데 이것이 교회의 인테리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 오늘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축 부탁드립니다.

● **유 :** 말씀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좋은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김효만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1955년 7월 인천 생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8년)

어린 시절에 화가가 되려고 하다

원래 초등학교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장래 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일찍부터 집안의 강한 반대로 접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장래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미술대학을 향한 진학은 안되는 것이니 특별히 다른 분야로의 지향성이 없었습니다. 미술대학 진학이 가로막힌 상태라 더더욱 방향을 못 잡고 있던 터에 진학을 결정해야 되는 긴박한 시점에서 누구한테 정보를 듣기를 건축설계의 분야가 미술과 공학의 중간지대인 학문일 수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건축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에 들어간 후에는 예상외로 아주 만족스런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건축과 일학년 때부터 의장실습이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림도 그리고 조형실습을 하는 등 흥미로운 강의를 접하고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안도했습니다.

공간에서 몇 년 근무한 후 입대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78년에 공간사에 바로 입사했습니다. 이범재 교수님이 당시 단국대학에 출강중일 때인데, 그래서 공간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범재 교수님이 팀장인 설계팀에 잠깐 실습을 한 경험을 통해서 공간사의 문화를 잠깐 맛보았었지요.

당시가 김수근 선생의 공간사는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공간사에서 수행하던 프로젝트는 류춘수 실장님이 맡아서 하던 이란 알보즈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일도 다수 할 정도였고, 그래서인지 입사시험의 난이도도 대단했습니다.

영어회화, 스케치, 면접의 삼단계 시험을 치르고 공간에 입문하다

공간사에는 당시 남산에 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 고문이시면서 공간의 고문도 맡아하시던 분이 입사지원자의 영어회화 시험까지 치르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이를 나누어주고 한 시간 안에 공간사 주변의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그려내는 스케치 시험도 즉석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는 자신의 작품을 내보이며 김수근 선생과의 어려운 면담까지 통과해야 되는 것이었지요. 어쨌든 합격하여 공간에 들어갔고 삼년 정도 있다가 입대를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다시 공간에 들어가다

1981년도에 바로 군대 갔다가 와서는 아람건축(김기석 선생님)에 다니다가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신 후인 84년에 공간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수근 선생 사후의 당시 공간사를 운영했던 장세양, 승효상 선생들과의 친분이 있어서 입사요청을 받고 다시 들어가게 된 거지요.

장세양 선생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아주 돈독했고 공간에 들어가서도 장선생 팀에서 항상 같이 의기투합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후 89년도에는 결국 퇴사하고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근 선생 사후의 공간사의 불안정으로 개업을 하게 되다

개업하게 된 동기는, 당시의 공간은 제가 볼 때 건축 외적인 문제에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시 실무를 맡은 실장이었으나 그런 내부의 경영상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불편했고 미래적 비전 또한 불투명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또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고 싶은 욕구 또한 충만해있을 때라 과감하게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일은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근선생의 공간사에서 재직 중 담당했던 일들은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미술관,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 뒤편에 있는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C빌딩, 창원대림오토바이공장, 한샘기숙사, 강남에 있는 현재는 차병원건물인 회빈레스토랑,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건너편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상록회관) 등 입니다.

개업 후의 일들은 대부분이 주택이고, 많은 상을 수상하다

거의 대부분이 개인주택들입니다. 임거당(97년, 2009WA건축상, 9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학익재(95년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홍대 앞에 있는 남강빌딩, 호유재, 와선재(2004 경기도건축문화상 은상), 혜로헌(2005 아카시아 금상, 2009WA건축상, 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등입니다. WA건축상은 월드아키텍처 커뮤니티(world architecture community)에서 주는 건축 상입니다.

그밖에 조린헌(2002아카시아상 금상,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자안재(2010WA건축상 수상), 녹성헌(2003년), 천안 TP-1(토템폴패션사옥 1990년 초), 파주 출판단지 안의 포토피아(2009년) 등입니다.

가평에 준공된 도헌이 해외잡지에 유명세를 타다

2009년에 준공된 가평 북한강변에 지어진 도헌은 세르지오라는 이태리 사진작가로부터 촬영 요청이 들어 와서 유럽의 유명한 미디어인 월페이퍼, 네덜란드의 마르크, 타센 출판사의 아키텍처 나우(architecture now) 시리즈에 게재되었고 이태리 인테리어 잡지인 인테르니에도 게재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인터넷 웹진인 「archdaily.com」에서 도헌에 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더니 다른 여러 작품들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동안 해왔던 저의 모든 작품이 게재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작년과 금년에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 자료를 보내느라 기분좋게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도헌의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들 눈에 띄었나 봅니다.